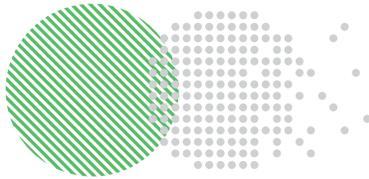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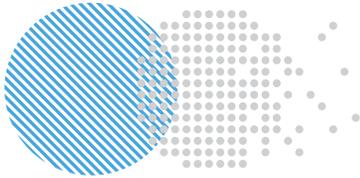


연구보고25-일반02-01

청년의 성인기 이행경로 연구: 심층분석보고서

김기현 · 김윤희 · 권경만 · 오병돈 · 유현주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은
청소년과 함께
지속가능한 미래사회를
만들어갑니다.



nyp*i*



청년의 성인기 이행경로 연구 I : 심층분석보고서

김기현, 김윤희, 권경만, 오병돈, 유현주

연구보고25-일반02-01

청년의 성인기 이행경로 연구 I: 심층분석보고서

저 자 김기현, 김윤희, 권경만, 오병돈, 유현주

연구진 연구책임자_김기현(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공동연구원_김윤희(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공동집필진_권경만(한국성서대학교 전략기획실장)
공동집필진_오병돈(뉴욕주립대 폴리테크닉 인스티튜트 교수)
공동집필진_유현주(인하대학교 연구교수)
연구보조원_조양진(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연구원)

연구요약

■ 연구목적

- 이 연구는 청년의 성인기 이행과정에서 나타나는 주요 변화를 실증적으로 분석하고 그 원인을 진단함으로써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함. 여기에서는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 2010(KCYPS 2010)」 중1패널 자료와 유지조사(2011-2025), 추적조사(2026) 자료를 활용하였음.
- 성인기 이행 과정 중에서 이 연구에서는 고3 시기의 교육기대와 실제 이행, 학교-일자리 이행 경로, 초기 성인기의 핵심 역할 전환(졸업·취업·분가)이 20대 후반 청년의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분석함으로써, 청년의 사회이행 구조를 다층적으로 이해하고자 함.

■ 연구내용

- 이 연구는 청년의 성인기 이행 과정을 양적인 분석과 질적인 접근을 통해 종합적으로 분석함.
 - 이 연구에서는 먼저 고3 시기의 교육기대와 2026년 조사 결과에 따른 실제 이행 간의 관계를 분석하고, 진로인식과 학업성취도, 학교유형, 가정배경 등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진단하였음.
 - 이어서 이 연구에서는 2026년 중1패널 응답자 중 일부를 대상으로 심층면담을 실시하여 교육기대 형성과 실제 이행 과정에서 작동하는 제도적·문화적 요인을 찾아보고, 사회구조적 측면과 개인의 선택을 살펴봄.
 - 다음으로 중1패널과 유지조사 자료로 26년 간의 데이터를 활용해 청년의 학교-일자리 이행 궤적을 시계열적으로 추적하여 연도별 신분 상태 변화를 분석하고, 경력 유형을 군집화하여 전형적·비전형적 이행 특성을 규명함.

- 마지막으로 초기 성인기 핵심 역할 전환(졸업·취업·분가)이 청년의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패널 자료 분석을 통해 살펴보고 사회경제적 요인과 시간적 변화가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봄.

■ 연구방법

- 고3 시기의 교육기대 결정 요인 분석에서는 KCYPS 2010 중1패널 데이터를 활용하여, 교육기대(미결정, 고졸 희망, 전문대 희망, 대학원 희망 등)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가족·학교 변수를 다항로짓분석(multinomial logit model)을 통해 분석함.
- 교육기대 형성과 실제 이행 과정의 심층 분석을 위해 21명을 대상으로 수정근거이론(M-GTA)을 적용하여 질적 사례연구를 수행함.
- 학교-일자리 이행 분석에서는 시퀀스 분석(sequence analysis)을 통해 연도별 상태 변화를 추적하고, 군집분석을 통해 주요 경력 유형을 도출함. 각 유형의 대표 경로와 상태분포, 전이확률을 시각화하여 제시하였으며, 유형별로 개인·가정배경·일자리 특성에 따른 차이를 분석함.
- 삶의 만족도 분석에서는 시간 가변 변수를 고려한 패널 회귀분석을 실시함. 개인 간 차이는 개인평균 회귀모형, 개인 내 변화는 고정효과(fixed effects) 모형으로 분석하였으며, 하위집단 분석(subgroup analysis)을 추가로 수행함.

■ 연구결과

주요 연구결과

- 고3 시기의 교육 기대와 실제: KCYPS 결과
 - 고3 시기의 교육기대와 실제 이행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학업성취도와 고교 유형이 교육기대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으며, 진로정체감이 높은 학생일수록 대학원 진학을 희망하는 경향이 높게 나타남. 한편, 고졸 취업이나 대학원 진학을 희망한 집단의 절반 이상은 실제로 해당 기대를 달성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남.
- 고3 시기의 교육기대와 실제2: 심층면담 결과
 - 심층면담을 통해 교육기대 형성과 이행은 개인의 선택보다 제도·문화적 요인에 의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하였음. 참여자는 '현실적 포기형', '실용적 타협형', '상향 지속형'으로 나뉘었고, 모두 '대학 진학은 필수 경로'라는 사회적 인식을 공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이러한 결과는 진로결정이 학교 풍토, 사교육, 가족기대, 지역적 환경 등 구조적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는 점을 보여주며, 진로교육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확인하였음.
- 학교-일자리 이행의 유형과 특성
 - 학교-일자리 이행 분석에서는 '대졸-재직형', '조기 재직형', '학업 지속 후 중단형', '전문대 일-쉬 반복형'의 네 가지 유형이 도출됨. '대졸-재직형'은 안정적인 경로였으나, 조기 재직형과 일-쉬 반복형은 고용불안과 낮은 만족도를 보임. 이는 개인의 노력보다는 사회경제적 배경, 첫 일자리의 질, 사회적 지원망 등이 경로 안정성을 결정하는 요인으로 작용함을 보여줌.
- 초기 성인기 역할 이행이 청년의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
 - 초기 성인기 역할 이행과 삶의 만족도 분석에서는 고등학교 졸업 이후 삶의 만족도가 전반적으로 하락하였으며, 특히 졸업 후 취업하지 못한 집단의 만족도 하락이 두드러짐. 취업은 삶의 만족도 향상에 긍정적으로 작용하였고, 분가는 성별·소득·학력에 따라 상반된 결과를 보임. 남성은 분가 후 만족도가 낮아졌으나, 여성은 자율성과 안정감을 얻는 경향을 보였음.

청년의 성인기 이행 경로 연구 I: 심층분석보고서

연구보고25-일반02-01

I. 서론	1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3
2. 연구 내용 및 방법	4
II. 고3 시기의 교육기대와 실제1: KCYPS 결과	7
1. 서론	9
2. 이론적 배경	10
3. 고3 시기의 교육기대 결과	14
4. 고3 시기 교육기대와 실제의 차이	18
5. 연구 결과 요약 및 시사점	22
III. 고3 시기의 교육기대와 실제2: 심층면담 결과	23
1. 개요	25
2. 이론적 배경	25
3. 면담 방법	28
4. 면담 결과	32
5. 요약 및 시사점	46

IV. 학교-일자리 이행의 유형과 특성	51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53
2. 연구 방법	55
3. 분석 결과	59
4. 결론 및 제언	82
V. 초기 성인기 역할 이행이 청년의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 ...	93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95
2. 이론적 배경	96
3. 연구 방법	102
4. 분석 결과	105
5. 논의	121
VI. 결론 및 제언	125
1. 요약	127
2. 정책적 시사점	129
참고문헌	133
부 록	143
1. 면담 질문지	145
국문초록	150
Abstract	151

표 목차

표 II-1. KCYPS 2010 고3학생의 교육기대 영향 요인 분석 (multinomial logit)	17
표 II-2. KCYPS 2010 중1패널 교육기대와 실제 영향 요인 분석 (binomial logit)	21
표 III-1. 면담참여자 현황	29
표 III-2. 주요 면담질문	30
표 III-3. 고3 시기 교육기대 형성 및 이행 과정의 유형별 특성	47
표 IV-1. 활용 변수 및 문항	57
표 IV-2. 청년 경력 이행 변수 생성	58
표 IV-3. 청년의 학교-일자리 이행 현황	61
표 IV-4. 유형 1(대졸-재직 이행형)의 상태분포변화	65
표 IV-5. 유형 1(대졸-재직 이행형)의 전이확률	66
표 IV-6. 유형 2(조기 재직 진입형)의 상태분포변화	68
표 IV-7. 유형 2(조기 재직 진입형)의 전이확률	69
표 IV-8. 유형 3(학업 지속 후 중단형)의 상태분포변화	71
표 IV-9. 유형 3(학업 지속 후 중단형)의 전이확률	72
표 IV-10. 유형4(전문대 진학 후 일-쉼 반복형)의 상태분포변화	74
표 IV-11. 유형 4(전문대 진학 후 일-쉼 반복형)의 전이확률	75
표 IV-12. 유형별 개인 특성 차이 분석 결과	76
표 IV-13. 유형별 일자리 특성 차이 분석 결과	78
표 IV-14. 유형별 가정배경 특성 차이 분석 결과(고3 시점)	80
표 IV-15. 유형별 특성 종합	81
표 V-1. 기술통계	106
표 V-2. 삶의 만족도 분산 분해 결과	110
표 V-3. 청년의 졸업, 취업, 분가 여부에 따른 삶의 만족도의 차이: 개인 간 차이 분석	111
표 V-4. 청년의 졸업, 취업, 분가 여부에 따른 삶의 만족도의 차이: 개인 내 차이(고정효과) 분석	114

그림 목차

그림 II-1. 아동·청소년패널조사에서 고3 시기 교육기대 응답 결과비교 (2007/2015/2023)	12
그림 II-2. 특성화고 고등교육기관 진학을 추이 및 코호트별 응답 시기 ...	13
그림 II-3.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아동·청소년 패널조사 현황 (2003-2025)	15
그림 II-4. 교육수준별 교육기대와 실제 일치 비율	19
그림 II-5. 고3 시기 고졸 및 대학원 희망 실제 대학(전문대+대학교) 진학 비중	20
그림 III-1. 고3 시기 교육기대 형성과 이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간의 관계	48
그림 IV-1. 청년의 학교-일자리 이행 상태 변화	60
그림 IV-2. 청년의 학교-일자리 이행 경로 유형의 덴드로그램 그래프 ...	62
그림 IV-3. 청년의 학교-일자리 이행 유형 결과	63
그림 IV-4. 유형 1(대졸-재직 이행형) 대표 시퀀스	64
그림 IV-5. 유형 1(대졸-재직 이행형)의 sankey graph	66
그림 IV-6. 유형 2(조기 재직 진입형) 대표 시퀀스	67
그림 IV-7. 유형 2(조기 재직 진입형)의 sankey graph	69
그림 IV-8. 유형 3(학업 지속 후 중단형) 대표 시퀀스	70
그림 IV-9. 유형 3(학업 지속 후 중단형)의 sankey graph	72
그림 IV-10. 유형 4(전문대 진학 후 일-쉼 반복형) 대표 시퀀스 ...	73
그림 IV-11. 유형 4(전문대 진학 후 일-쉼 반복형)의 sankey graph ...	75
그림 V-1. 생애 주기에 따른 삶의 만족도의 변화	99
그림 V-2. 유지조사 시점별 삶의 만족도 변화	107
그림 V-3. 유지조사 시점별 졸업·취업·분가 비율 변화	108
그림 V-4. 유지조사 시점별 졸업·취업·분가 이행 조합에 따른 집단 분포 변화	109
그림 V-5. 졸업·취업·분가 조합별 삶의 만족도 예측값 개인 간 분석 결과 ...	112
그림 V-6. 졸업·취업·분가 조합별 삶의 만족도 예측값 개인 내 분석 결과 ...	115

그림 V-7. 성별에 따른 졸업·취업·분가 조합별 삶의 만족도 예측값: 개인 내 분석 결과	118
그림 V-8. 가족배경에 따른 졸업·취업·분가 조합별 삶의 만족도 예측값: 개인 내 분석 결과	119
그림 V-9. 교육 수준에 따른 졸업·취업·분가 조합별 삶의 만족도 예측값: 개인 내 분석 결과	120

○———— 제1장 서론

-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2. 연구 내용 및 방법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청년정책은 2020년 「청년기본법」 추진 이후 본격적인 국가정책으로 추진 중이다. 정부에서는 청년정책의 청사진을 제시하는 제1차 청년정책기본계획을 수립하였고 각 중앙행정기관과 지자체에서는 2021년부터 적용되어 시행계획을 국무조정실에 제출해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청년정책을 총괄하고 조정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청년정책조정위원회가 구성되었고 사무국 역할을 수행하는 청년정책조정실이 국무조정실에 설치되었다. 이처럼 법, 제도적인 기반이 마련되었으나 청년의 삶 실태가 과거보다 크게 개선되고 있지 않아 이에 대한 원인과 대응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과제로 등장하고 있다.

청년의 삶 실태 중에서도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청년의 성인기 이행 과정의 지연과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는 점이다. 성인기 이행 과정의 지연은 학교 이행과 학교-일자리 이행, 분가와 자립, 가족 형성에 이르기까지 전체 이행 과정에서 나타나고 있다. 학교 이행 과정에서는 휴학이나 졸업유예로 인해 재학기간이 늘어나고 있으며 대학 진학과 관련하여 재수를 선택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다. 학교-일자리 이행과정에서는 근본적으로 대다수가 고졸 취업 대신 대졸 취업을 하고 있어 첫 취업 연령이 증가하고 있다. 동시에 신규채용 대신 경력채용이 확대되고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로 인해 취업 경쟁이 심화되어 졸업 후 취업에 이르는 기간이 늘어나고 있다. 초기 이행이 늦어지고 청년의 자산이나 소득이 줄어들면서 부모로부터 독립하고 주거를 마련해 살아가는 과정이 늦어지고 있다. 결혼이나 출생과 같은 가족형성 과정은 필수가 아닌 선택이 되고 있으며 30대 중반까지 늦어지고 있다.

이 연구의 목적은 청년의 성인기 이행의 변화가 발생한 원인을 진단하고 정책적인 시사

1) 본 장은 김기현 선임연구위원(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집필하였음.

점을 제시하는 데 있다. 이 보고서는 심층분석보고서로 이러한 연구 목적에 따라서 아동·청소년패널조사(KCYPS)의 2010년 중1패널 대상 조사와 2024년까지 이어진 유지조사, 그리고 2025년에 실시된 추적조사 자료 등을 활용하여 분석한 결과를 다루고 있다.

이 연구에서 주된 자료로 KCYPS 2010년 중1패널조사를 활용한 이유는 이 조사 참여자를 대상으로 2017년부터 2024년까지 유지조사가 이루어졌고 2025년에 추적조사를 통해 성인이 이행 과정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을 파악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연구는 3년 동안 이루어지는 장기 연구이며 2025년에는 KCYPS 추적조사 설계와 조사 실시가 이루어졌고 성인이 이행과정에서 진학과 취업에 초점을 맞추어 분석이 진행되었다. 2026년 2차 연도 연구에서는 성인기 이행과정에서 자립에 초점을 맞추고자 하며 3차 연도 연구에서는 가족 형성에 초점을 맞추어 분석을 시도하고자 한다.

이 보고서에서는 KCYPS 중1패널 자료를 활용한 양적 분석과 더불어 심층면담을 통한 질적 분석을 시도하였다. 심층면담 대상자는 KCYPS 중1패널에 참여자로 2025년 현재 28세 내외로 성인기 이행 시기에 직면해 있다. 이번 심층면담을 통해 이 연구에서는 고등학교 3학년 시점에서 가졌던 교육 기대대로 고졸 취업, 대학 진학, 대학원 진학을 했는지 여부와 성인기 이행의 역동성을 살펴보았다.

2. 연구 내용 및 방법

이 연구에서는 KCYPS 2010 중1패널 참여자를 대상으로 교육기대와 실제에 대한 분석과 학교-일자리 이행, 그리고 초기 성인기 역할 이행이 20대 후반 청년의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을 시도하였다.

먼저 교육기대에 대한 분석은 양적 연구와 질적 연구를 병행하여 이루어졌다. 양적 연구는 패널조사 참여자를 대상으로 2015년 고3 시점에서 교육기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무엇인지를 분석하였고 10년 후인 2025년에 추적조사 데이터를 분석해 실제 교육 이행 상황(고졸, 대졸, 대학원 진학 여부)과 고3 시점의 변수들의 영향 여부를 살펴보았다. 이에 대한 분석은 다항로짓분석(multinomial logit analysis)으로 대졸 대신 고졸이나 대학원 희망 여부와 일치 대신 불일치(고3 당시 미결정 구분) 여부에 대한 영향 요인들의 효과 검증 형태로 이루어졌다.

이어서 교육기대에 대한 질적 연구는 심층면담으로 고3 시점에 고졸, 대졸, 대학원졸을 선택했던 KCYPS 중1패널 조사 참여자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분석 방법으로는 질적 연구방법 중에서 사례연구(case study)가 활용되었다. 심층면담은 총 21명의 패널 참여자의 응답으로 이루어졌고 좀 더 충분한 면담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전 질문을 보내고 이에 대한 답변을 받은 상태에서 1인당 1시간씩 1회 면담이 진행되었다.

다음으로 이 연구에서는 학교-일자리 이행 과정에서 이행 궤적에 대한 유형을 KCYPS 패널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이에 대한 분석은 KCYPS 중1패널 참여가 성인기에 진입한 2016년부터 유지조사를 통해 확보한 8년 간의 데이터를 활용하여 이루어졌다. 분석 방법으로는 경력 배열의 유사성을 유형화하기 위해 시퀀스 분석(sequence analysis)이 활용되었으며 유형별 특성에 대한 비교분석(집단간 차이 검증)이 시도되었다.

마지막으로 이 연구에서는 초기 성인기 이행 역할이 청년들의 삶의 만족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보았다. 이에 대한 분석은 고정효과(fixed effects) 모형으로 패널분석 방법론을 활용하였으며 이행 효과의 차이를 탐색하기 위해 하위 집단 분석(subgroup analysis)이 이루어졌다.

각각의 연구들은 연구 결과를 토대로 시사점을 도출하였으며 마지막 장에서 연구 결과를 요약하는 한편, 정책적 시사점을 정리하여 제출하였다. 그리고 이 연구의 결과들은 총괄보고서에서 정책 제언을 위한 근거 자료로 활용되었다.

○ — 제2장 고3 시기의 교육 기대와 실제1: KCYPS 결과

- 1. 서론
- 2. 이론적 배경
- 3. 고3 시기의 교육기대 결과
- 4. 고3 시기 교육기대와 실제의
차이
- 5. 연구 결과 요약 및 시사점

1. 서론

학교-일자리 이행에 있어서 어떤 목표를 갖고 이후의 삶을 살아갈 것인지를 결정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특히 고등학교 3학년 시점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취업할지, 아니면 대학에 진학할지, 나아가 대학원까지 진학할지를 결정해야 하는 중요한 시기이다.

이 시기에 이루어지는 진로에 대한 결정은 인생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친다. 이것은 어떤 일을 하고 살아갈지와 연결되기 때문이다. 직업 중에는 고등교육을 이수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일이 있고, 대학원 진학과 같이 오랫동안 이루어진 학업을 통해서만 진입이 가능한 일도 있다. 내가 원하는 일이라고 해도 교육 여건을 갖추지 못한다면 그 일을 할 수 없게 된다. 좀 더 일찍 사회에 진출해 소득을 올리고자 하는 고3 학생은 고등학교 단계에서부터 취업을 준비해 일정 정도의 소득을 좀 더 이른 나이에 얻을 수 있다. 대학 진학이 변변한 일자리로 이어지지 못한다면 고졸 취업을 통해 어린 나이부터 안정적인 경력을 쌓는 것이 더 좋을 수 있다.

이 선택은 이후의 삶에 큰 방향을 결정하는 것으로 중요한데 문제는 이러한 결정이 그대로 실현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대학 진학을 목표로 했으나 그 목표를 달성하지 못할 수 있고 고졸 취업을 희망했으나 졸업 후에 대학에 진학할 수도 있다. 이는 선택과 더불어서 이를 실현해 내기 위한 계획의 수립과 그것을 실천해 나가는 일련의 과정을 통해 이루어진다.

이 연구에서는 고3 시점에서 학생들이 어떤 경로로 진로를 정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고 실제 고3 시기의 결정이 시간이 경과한 후에 실현되었는지 향후 교육 계획과 이에 대한

2) 본 장은 김기현 선임연구위원(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집필하였음.

실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무엇인지를 살펴보았다.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는 청소년의 성장 과정이 생애 경로에 따라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2003년부터 패널조사를 실시해 왔다. 1기 조사는 청소년 패널조사(KYPS)로 초등학교 4학년과 중학교 2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2기 조사는 아동·청소년 패널조사(KCYPS)로 확대되어 초등학교 1학년 대상과 4학년 대상, 그리고 중학교 1학년 등 3개 코호트에 대해서 한 조사를 7년 동안 이루어졌다. 2018년에도 새로운 조사가 이루어져 2025년까지 조사가 진행 중이다.

2기 조사 중 중1패널 조사는 7년 동안 진행된 후 본조사는 아닌 유지조사 형태의 간략한 조사가 이어졌다. 그리고 2025년에 과제와 조사 예산이 확보되어 성인으로의 이행 과정을 파악할 수 있는 추적 조사가 이루어졌다. 이에 따라 추적 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중1 시점에서 28세 내외가 될 때까지 고3 시점에 생각했던 교육 경로가 실제 실현되었는지 여부를 파악할 수 있게 되었다.

이 연구에서는 고3 시점인 2015년 당시 중1패널의 응답자들이 어떤 교육 경로를 선택했는지, 이러한 선택에 어떤 요인이 영향을 미쳤는지를 살펴보았다. 동시에 2025년 시점에서 생각했던 교육 경로대로 삶을 살았는지 아니면 교육 경로에 변화가 생겼는지 살펴보고 이러한 변화에 영향을 미친 요인이 무엇인지를 살펴보았다. 마지막으로 이 연구에서는 연구결과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2. 이론적 배경

교육 경로에 대한 선택을 다룬 연구들은 교육적인 포부나 열망(educational aspiration)을 다루거나 교육에 대한 기대(educational expectation)를 다루고 있다(Morgan, 1998). 열망과 포부는 차이가 존재하는데 전자는 이상적으로 희망하는 교육수준을 의미한다면 후자는 객관적으로 달성이 가능한 교육수준을 의미한다(박수역, 2010: 108-109).

교육 열망을 측정한다면 이상적인 목표와 이에 기반해 희망하는 교육수준을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나는 의사가 되고 싶어서 대학에 진학하고 싶다”라고 할 때 교육 열망을 드러내는 것이기 때문에 조사에서도 자신의 목표와 이에 따른 희망 교육수준을 질문하는 것이 필요하다. 반면, 교육 기대를 측정한다면 실질적으로 접근 가능한 수준을 고려해 교육수준을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가정형편이 어려워 대학에 가

어렵다"라고 할 때 교육 기대를 드러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처럼 개념적으로 두 가지를 구분해 볼 수 있으나 실제 조사 과정에서 측정하는 것이 열망인지, 기대인지를 구분하기 어렵다.

그런데 조사 시점에 따라서 열망에 가까운지, 기대에 가까운지를 판별해 볼 수 있다. 초등학생에게 희망하는 교육수준을 물어본다면 객관적이고 현실적인 이유보다는 이상적인 목표나 희망에 따라 답변한 결과일 가능성이 높다. 반면, 고등학생에게 희망하는 교육수준을 물어본다면 구체적인 계획으로 현실적인 여건을 고려해 답변한 결과일 가능성이 높다. 이 연구에서는 고3 시점에 희망하는 교육수준을 물어본 결과를 활용하고 있어 교육 열망보다는 교육기대로 정의해 보고자 한다.

교육 기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분석은 미시적 측면과 거시적 측면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미시적 측면의 개인이 가지는 특성이나 개인의 가족배경에 주목하는 것이다. 개인 특성은 흔히 인구-사회적 요인으로 성별을 비롯하여 연령, 살고 있는 지역과 같은 요인들이 있다. 교육기대에 미치는 영향을 다루기 때문에 교육과 관련된 변수들이 중요한데 진학에 가장 영향을 미치는 학업성적이 교육기대에도 큰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이혜란, 이지은, 류신혜, 2024). 교육기대가 학업성적에 영향을 받을 뿐만 아니라 영향을 주기도 한다(차중천, 오병돈, 2012).

중요한 타자와의 관계나 심리정서적 요인 역시 주목을 받았다(Morgan, 1998). 중요한 타자와의 관계를 비롯하여 자기이해와 관련된 자아존중감, 자아탄력성을 비롯하여 진로와 관련된 효능감이나 진로성숙도 등이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로 고려되었다. 부모와 자녀의 교육기대의 차이가 반대로 자아존중감과 같은 심리정서적인 요인에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장원빈, 문의정, 2023). 개인이 경험한 다양한 체험 역시 영향요인으로 고려되는데 아르바이트와 같은 일을 경험하거나 자원봉사활동과 같은 체험활동이 교육기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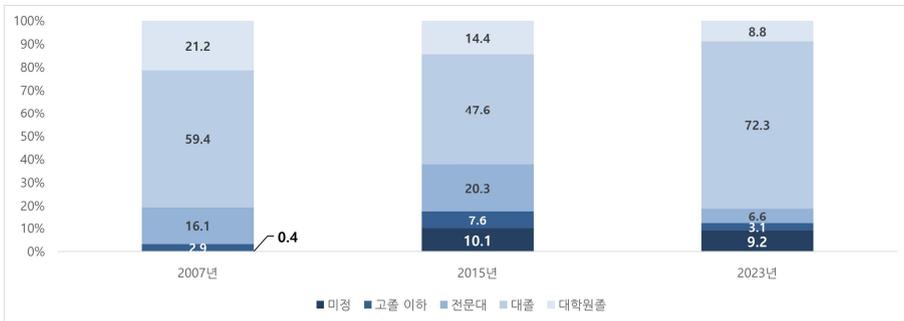
가족배경 역시 교육 기대와 진학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데 부모의 교육이나 직업, 가구 소득, 자산을 비롯하여 형제자매수를 비롯한 가구원 수, 출생순서 등이 중요한 영향요인으로 다루어져 왔다(김기현, 방하남, 2005; 김창환, 2022).

거시적 측면에서 영향 요인으로 다루어진 것은 학교 변수와 국가 변수들이다. 학교 변수는 다닌 학교의 계열이 무엇인지와 고교의 소재지가 어디인지, 학교 여건이 어떤지 등이 고려되었다(박수역, 2010). 학교 수준의 맥락 효과에 대해서 학교 학생들의 부모가 가지는 사회경제적 배경이나 학교 차원의 능력 수준 등이 고려되기도 한다(Alwin & Otto, 1977).

국가 변수들로는 과학기술의 변화에 따른 직업세계의 변화를 비롯해 저출생, 고령화와 같은 인구 변화 요인, 노동시장 구조나 경기변동 등이 해당된다. 국가 수준의 거시적 영향 요인에 대한 분석은 국가간 비교나 연도를 달리하여 동일 연령집단인 코호트 비교를 통해 가능하다. 김기현, 오병돈(2024)은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아동·청소년패널조사의 3개 주기(round)의 고3 시점에서 교육기대의 결과를 비교 분석하였다. 1차 주기 조사는 2007년에 응답자의 대부분이 고등학교 3학년이 되었고 2차 주기 조사는 2015년, 3차 주기 조사는 2023년이 고3 시점에 해당된다. 3개연도 고3 시점의 결과에서 두드러진 차이는 세 가지였다.

먼저 고졸을 희망하는 비율이 증가하였다가 감소하는 추세를 보여주었다는 점이다. 2차 주기 조사인 2015년 결과를 보면, 고3 학생 중 7.6%가 고졸을 희망했는데 이는 1차 주기 조사의 2.9%보다 크게 증가한 수치였고 3차 주기 조사(3.1%) 보다 높은 수치였다. 이는 직업계고인 특성화고 고등학교 졸업생의 진학을 추이를 통해 살펴볼 수 있다. 특성화고의 대학 진학률은 2000년 들어 크게 증가해 60%를 넘어섰으나 2010년 이후 감소해 2015년에 최저치를 기록하였다. 이 시기에 직업계고의 진학률이 낮아진 것은 정부가 강력한 취업연계 정책을 추진했기 때문이다. 직업계고 중에 특수목적고인 마이스터고를 신설해 학생들에 대한 파격적인 지원과 취업 연계를 강화하였다.

(단위: %)



* 자료: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03년 청소년패널조사(KYPS 2003) 중2패널 6차조사(2007년), 2010년 아동·청소년패널조사(KCYPS 2010) 중1패널 7차조사(2015년), 2018년 아동·청소년패널조사(KCYPS 2018) 중1패널 7차조사(2023) 원자료
 ** 출처: 김기현, 오병돈(2024: 40)

그림 II-1. 아동·청소년패널조사에서 고3 시기 교육기대 응답 결과비교(2007/2015/2023)

2000년 중반 현장실습 사망사고로 인해 졸업 시점으로 유예됐던 현장실습이 다시 재개 되어 재학 중 취업 비중이 증가하였다. 이에 따라 직업계고가 일종의 대안으로 인식되어 일시적으로 대학 진학률이 줄어들고 취업률이 증가하는 상황이 전개되었다. 다만, 안타까운 것은 현장실습 사망사고가 잇달아 발생하면서 이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었고 직업계고 특별 전형 등을 통해 대학 입학의 길이 넓어지면서 다시 진학률이 증가하고 취업률이 낮아지는 상황이 초래되었다.



* 자료: 교육부·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서비스(2024), KESS(<https://kess.kedi.re.kr/>) 자료 인출(검색일: 2024.10.29.).
 ** 출처: 김기현(2025)

그림 11-2. 특성화고 고등교육기관 진학률 추이 및 코호트별 응답 시기

최근 직업계고의 대학 진학률 증가는 고졸 노동시장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직무불일치(job mismatch)에 따른 청년 고용 여건 악화로 이어지고 있어 개선 방안 마련이 필요한 상황이다.

다음으로 대학원을 희망하는 비중이 크게 감소했다는 점이다. 1차 주기 조사에서는 21.2%가 대학원 진학을 희망했으나 3차 주기 조사에서는 8.8%만이 대학원을 희망했다. 이와 관련 김기현, 오병돈(2024)은 우리나라가 OECD 국가들 중에서 가장 높은 청년(25-34세) 고등교육 이수율을 보여주고 있으나 대학원 석사와 박사 과정으로 좁혀 보면 매우 낮은 수준을 보여주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AI 등 첨단기술 분야에 대응하는 고급인재 양성이 중요한 시점에서 대학원 교육이 자리를 잡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에 대한 대응도 중요해 보인다.

교육 기대와 실제 간의 차이에 관한 연구들은 취약계층의 자녀이거나 학습과 관련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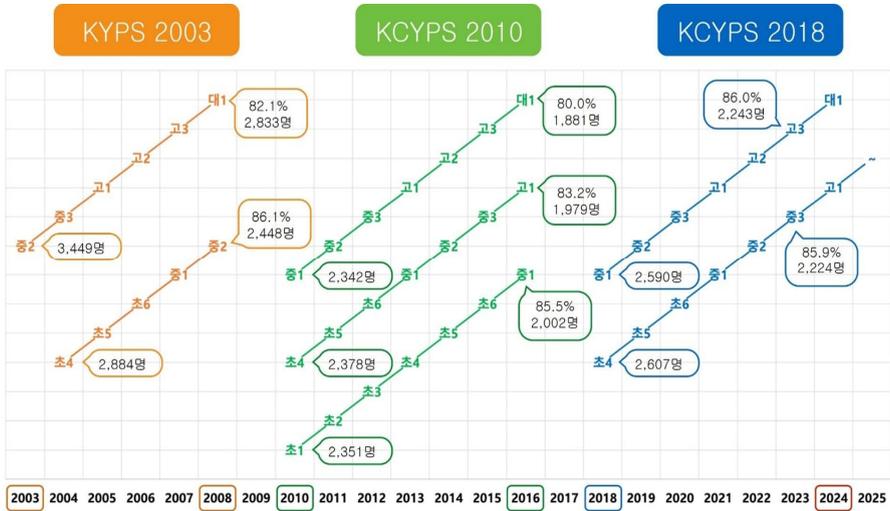
자원에 제약이 있는 경우 본인의 교육 기대를 포기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한다 (Alexander, Bozick, & Entwisle, 2008). 전자와 관련하여 Trusty(2000)는 교육기대의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였는데 가족의 사회경제적 배경이 낮을 경우 자신의 교육기대를 낮출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하였다. 후자와 관련하여 영향 요인으로 고려되고 있는 것은 학업성과 같은 학업 성취도나 학습 몰입도와 같은 학습태도 등이 있다.

이 연구에서는 교육기대와 이에 대한 실현 여부를 파악할 수 있는 아동·청소년 패널조사(KCYPS) 2010년 중1패널의 2015년 응답 결과와 이들에 대한 추적조사에 따른 2025년 결과를 분석해 보고자 한다.

3. 고3 시기의 교육기대 결과

1) 분석 자료

이 연구에서는 2010년에 조사가 이루어진 한국 아동·청소년 패널조사(KCYPS 2010) 자료를 분석하였다.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아동·청소년 패널조사는 2003년(KYPS 2003)과 2010년(KCYPS 2010), 2018년(KCYPS 2018)에 이루어졌다. 이 가운데 이 연구에서 2010년 중1패널 조사를 분석자료로 선정한 이유는 이 조사 대상자에 한해 유지 조사가 이어져 성인기 이행 이후 실제 교육 경로를 파악할 수 있기 때문이었다. KCYPS 2010 중1패널 조사는 2010년 총 2,342명을 대상으로 이루어졌으며 6년차인 고3 시점에서 표본 응답자는 2,067명이었다. 7년차 마지막 조사에서는 총 1,881명이 응답해 표본유지율은 80.0%를 보여주었다.



* 출처: 하형석, 김기현, 최인재, 한지형(2024: 3)

그림 II-3.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아동·청소년 패널조사 현황(2003-2025)

2) 분석 방법

이 연구에서는 교육기대를 종속변수로 사용하고자 한다. KCYPs 2010의 중1패널 조사에서는 “앞으로 어느 정도 수준까지 공부할 계획입니까?”로 묻고 있다. 이에 대한 답변은 고졸, 전문대졸, 대졸, 대학원 석사학위 취득, 박사학위 취득으로 나누어져 있으며 마지막 항목에 “아직 결정하지 않았다”가 포함되었다. 이 연구에서는 1차적으로 미결정과 결정으로 구분하였고 결정을 고졸 희망, 전문대 희망, 대학 희망, 대학원 희망 등으로 나누었다. 대학원 석사와 박사는 표본수를 고려하여 하나의 변수 값으로 조정하였다.

분석 방법은 다항로짓분석(multinomial logit model)을 활용하였으며 4년제와 5-6년제 대학 희망을 기준 범주로 고졸 희망, 전문대 희망, 대학원 희망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독립변수들의 효과를 분석하였다.

독립변수들로는 개인 변수로 성별과 학업성취도를 비롯하여 체험과 관련하여 자원봉사 및 직업체험활동 여부 등이 포함되었다. 성별 변수는 여성의 경우 1, 남성의 경우 0값이 부여되었다. 학업성취도는 고3 시점에서 주관적 성적 평가로 국어, 수학, 영어에 대해서 5점 척도(매우 못했다, 못한 편이다, 보통이다, 잘한 편이다, 매우 잘했다) 값을 합산 평균

한 값이 사용되었다. 자원봉사 및 직업체험 활동은 연간 참여 경험 유무로 있는 경우 1값을, 없는 경우 0값이 부여되었다.

심리정서적 변수로는 자아존중감이 포함되었고 진로 관련 변수로는 진로정체감과 진로 선택 요인이 포함되었다. 자아존중감은 10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신뢰도 분석 결과 제외 시 신뢰도 값(Cronbach's α)을 낮추는 2번과 8번 문항을 제외하고 합산 평균한 값이 사용되었다. 이 경우 신뢰도 값은 .842였다. 진로정체감은 4점 척도로 총 8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유의미한 결과 값이 나온 경우가 1번 문항(“장래에 내가 꼭 하고 싶은 구체적인 분야가 있다”)이어서 이 문항으로 측정되었다. 직업선택 요인은 총 12개 문항으로 4점 척도인데 이 중에서 “안정적으로 오랫동안 일할 수 있다”, “수입(임금)이 많다”, “자신의 소질과 적성을 살릴 수 있다”, “여러 사람들과 어울려 일할 수 있다” 등 4개 문항이 변수로 추가되었다.

가족배경 변수로는 부모의 교육과 아버지의 직업, 가구소득 등이 사용되었다. 부모의 교육은 대학 이상인 경우 1값이, 아닌 경우 0값이 부여되었다. 아버지의 직업은 아버지의 직업이 관리직이거나 전문직인 경우 1값이, 아닌 경우 0값이 부여되었다. 가구소득은 전년도 가구소득에 로그값을 취한 값이 사용되었다.

학교 변수로는 고교 유형과 고교 소재지가 포함되었다. 고교 유형은 직업계고인 경우 1값이, 특수목적고와 일반계고인 경우 0값이 부여되었다. 고교 소재지는 서울이면 1값이, 서울이 아니면 0값이 부여되었다.

3) 분석 결과

고3 시기의 교육기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한 결과, 학업성적은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업성적이 높을수록 대학 진학 대신 미결정을 하거나 대학에 희망하는 대신 고졸이나 전문대를 희망할 가능성을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낮춘다. 기댓값을 보면, 학업성적이 1단계 높으면 고졸의 경우 0.74배 낮고 전문대 희망의 경우 0.75배 낮았다. 반면, 학업성적이 높을수록 대학 진학을 넘어서 대학원 진학을 희망할 가능성이 높이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곧, 학업성적이 1단계 높으면 대학 진학보다 대학원 진학을 희망할 가능성이 1.12배 높았다.

표 II-1. KCYPS 2010 고3학생의 교육기대 영향 요인 분석(multinomial logit)

변수	미결정/ 대학 희망	고졸 희망/ 대학 희망	전문대 희망/ 대학 희망	대학원 희망/ 대학 희망
학업성적	-.121(.047)*	-.305(.066)***	-.276(.039)***	.111(.036)**
자아존중감	-.332(.238)	-.040(.343)	-.132(.197)	-.040(.196)
진로정체감	-.180(.126)	-.200(.188)	-.057(.105)	.414(.115)***
진로선택 중요요인-안정성	-.531(.167)**	-.198(.269)	-.003(.142)	-.225(.141)
진로선택 중요요인-수입(임금)	-.045(.163)	-.401(.238) [†]	-.198(.131)	.086(.132)
진로선택 중요요인-소질, 적성	-.030(.113)	.282(.161) [†]	-.107(.094)	-.062(.095)
진로선택 중요요인-관계	.036(.139)	.238(.230)	-.096(.112)	-.118(.107)
성별(여성=1)	.059(.190)	.103(.282)	.119(.156)	.170(.157)
자원봉사활동 경험(있음=1)	-.383(.229) [†]	.732(.452)	.446(.216)*	-.557(.182)**
직업체험 경험(있음=1)	.584(.293)*	.214(.388)	.038(.224)	.143(.224)
고교계열(직업계고=1)	1.439(.268)***	3.503(.316)***	1.557(.218)***	-.794(.422) [†]
고교소재지(서울=1)	.643(.397)	.802(.656)	-.294(.261)	-.463(.231)*
아버지 교육(대졸 이상=1)	.055(.268)	.031(.401)	.406(.212) [†]	-.185(.230)
어머니 교육(대졸 이상=1)	-.296(.262)	-.361(.401)	.267(.218)	-.195(.215)
아버지 직업(관리/전문직=1)	-.251(.227)	.111(.380)	.467(.224)*	-.241(.177)
가구소득	-.477(.235)*	-.194(.345)**	-.200(.188)	.339(.196) [†]
절편	6.219(2.268)*	8.728(3.209)**	3.430(1.827) [†]	-4.410(1.918)*
Pseudo R2(Nagelkerke)	.316			
N	1,491			

* 주: [†]p<.10, *p<.05, **p<.01, ***p<.001

심리정서적 요인으로 자아존중감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보여주지 않았고 진로 정체감은 대학원 희망에 있어서 뚜렷한 정(+)의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곧, 진로 정체감이 1단위 높아지면 대학 대신 대학원 진학을 희망할 가능성이 1.5배 높았다. 진로선택 중요요인 중에서 대학 진학을 희망하는 대신 고졸을 희망할 가능성에 대해서 10%의 유의 수준에서 수입을 증시할수록 낮추는 효과가 있고 소질이나 적성을 증시할수록 높이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체험활동과 관련해서 자원봉사활동은 대학 진학 희망 대신 미결정이나 대학원 진학을 희망할 가능성을 낮추는 효과가 있었고 전문대 진학을 희망할 가능성을 높이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 요인으로 고교 계열을 보면, 직업계고인 경우 일반계고보다 대학 진학을 원하기보다 미결정이나 고졸, 전문대 진학을 희망할 가능성이 높게 추정되었다. 기대값을 살펴보면, 직업계고 학생인 경우 대학 진학 대신 미결정을 선택할 가능성이 4.2배나 높았다. 고졸을 선택할 가능성은 매우 높게 나타났다. 매우 큰 차이처럼 보이지만 직업계고가 취업을 목적으로 하는 완성교육기관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이는 지극히 당연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전문대 진학 가능성은 직업계고가 일반계고보다 5.01배 높았다. 반면, 대학원 진학 희망의 경우 부(-)의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곧, 직업계고가 일반계고에 비해서 대학 대신 대학원 진학을 희망할 가능성은 0.45배 낮았다. 고교소재지의 경우 서울인 경우 대학원 진학 희망에 대해 부(-)의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족배경 요인은 전반적으로 유의한 결과를 보여주지 않았는데 다만 가구소득의 경우 고졸 희망을 낮추고 대학원 희망을 높이는 효과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가족배경의 영향이 전반적으로 유의하지 않게 나타난 것은 이에 대한 효과가 고교계열에 대부분 반영되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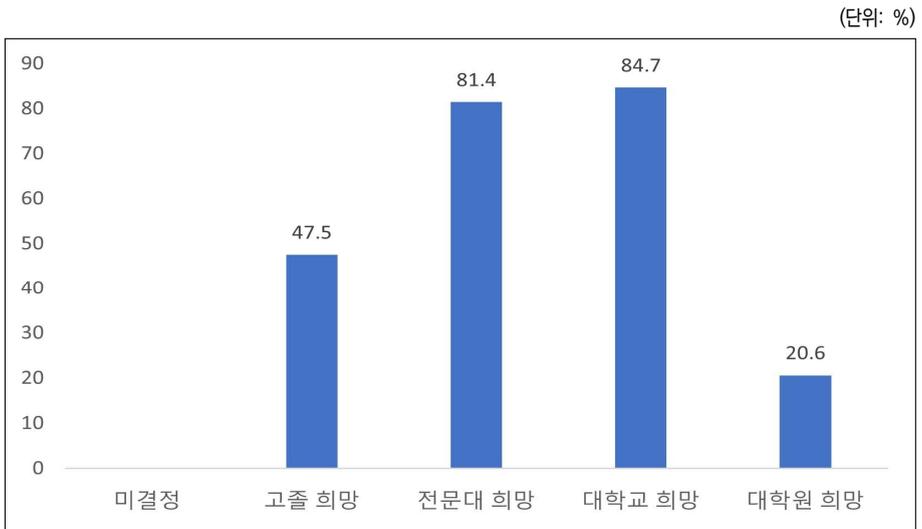
4. 고3 시기 교육기대와 실제의 차이

1) 분석 자료

이 절에서는 고3 시기의 교육기대와 28세 전후로 실제 교육 경로가 일치하는지, 아닌지에 대해서 어떤 요인이 영향을 미쳤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에 대한 분석자료는 2025년에 조사가 이루어진 KCYPS 2010 중1패널 추적조사가 사용되었다. KCYPS 2010 중1패널 조사는 2010년부터 2016년까지 이루어졌고 2016년도에 80.0%가 응답하였다. 이후 간략하게 조사하면서 패널을 유지하는 조사가 2017년부터 2024년까지 이어졌다. 2025년에 이에 대한 추적조사 예산이 확보되어 조사가 이루어졌으며 이 절에서는 이 자료에서 실제 최종적인 교육 경로에 대한 파악하고 이에 대한 요인 분석을 시도하였다. 추적조사는 1,139명이 응답하였고 이 중에서 교육기대와 실제에 대한 분석에서 결측값이 없는 유효표본은 658명이었다.

2) 고3의 교육기대와 실제의 차이

KCYPS 2010 중1패널에 대한 2025년 추적 조사 결과, 교육기대와 실제 간의 차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교육수준별로 교육기대와 실제 일치비율을 보면, 일치여부를 다룰 수 없는 고3 시기 미결정 집단을 제외하고 먼저 전문대를 희망한 학생 중 81.4%가 전문대까지 진학하였으며 대학교를 희망한 학생 중 84.7%가 대학까지 진학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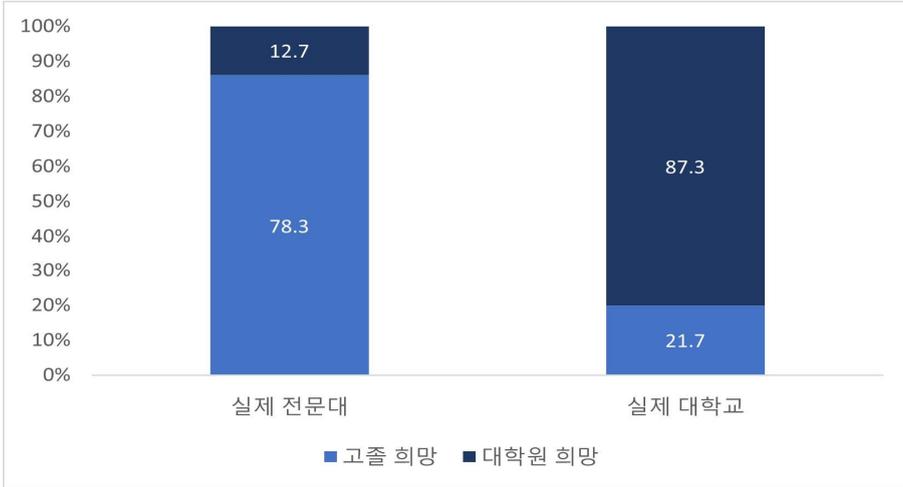
* 자료: KCYPS 중1패널 추적조사 원자료. 결측치를 제외한 1,139명의 결과임.

그림 II-4. 교육수준별 교육기대와 실제 일치 비율

반면, 고졸을 희망한 고3 학생 중 47.5%만이 고졸이었고 대학원 진학을 희망한다고 밝힌 학생 중 20.6%만이 대학원에 진학하였다.

고졸자들의 실제 행보를 보면 고졸 희망자 중 고졸이 아닌 경우에 78.3%가 전문대에 진학했으며 21.7%로 실제 대학에 진학하였다. 대학원의 경우 대학 진학에 그친 경우가 87.3%였고 전문대까지만 진학한 경우가 12.7%로 나타났다. 2010년 중1패널의 경우 2003년이나 2018년 코호트에 비해 고졸 희망자와 대학원 희망자가 많았으나 실제 이를 유지하지 못한 경우가 대부분임을 알 수 있다.

(단위: %)



* 자료: KCYPS 중1패널 추적조사 원자료. 결측치를 제외한 1,139명의 결과임.

그림 II-5. 고3 시기 고졸 및 대학원 희망 실제 대학(전문대+대학교) 진학 비중

이어서 2015년 당시 고3 시점에 교육기대에 영향을 미쳤던 요인들이 28세 전후로 실제 교육경로와 일치하는지, 하지 않는지에 미치는 효과를 살펴보고자 한다. 고3 시점에서 교육기대에 미치는 요인들의 효과는 31.6%였는데, 실제와의 일치여부에 미치는 요인들의 효과는 7.7%에 그쳤다. 다른 많은 요인들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여기에서는 교육기대 영향 요인을 중심으로 결과를 살펴보고자 한다.

가장 큰 영향을 미쳤던 학업성적이나 고교 계열은 교육기대의 실제 일치 여부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심리정서적 요인들은 실제 일치 여부에 대해서도 유의미한 결과를 보여주었다.

표 II-2. KCYPS 2010 중1패널 교육기대와 실제 영향 요인 분석(binominal logit)

변수	미결정/일치	불일치/일치
학업성적	-.027(.075)	.047(.043)
자아존중감	.357(.392)	-.247(.225)
진로정체감	-.012(.229)	-.250(.131) [†]
진로선택 중요요인-안정성	-.766(.295)**	-.685(.178)***
진로선택 중요요인-수입(임금)	.329(.280)	.087(.159)
진로선택 중요요인-소질, 적성	.042(.186)	.040(.110)
진로선택 중요요인-관계	.241(.225)	.229(.127) [†]
성별(여성=1)	.106(.327)	.029(.188)
자원봉사활동 경험(있음=1)	-.011(.432)	-.023(.242)
아르바이트 경험(있음=1)	.552(.601)	-.237(.295)
고교계열(직업계고=1)	-.242(.513)	.064(.277)
고교소재지(서울=1)	.124(.396)	.302(.225)
아버지 교육(대졸 이상=1)	.157(.497)	-.207(.277)
어머니 교육(대졸 이상=1)	-.163(.485)	.409(.268)
아버지 직업(관리/전문직=1)	.029(.396)	-.111(.224)
가구소득	-.307(.371)	.104(.210)
절편	.517(3.596)	2.300(2.047)
Pseudo R2(Nagelkerke)		.077
N		658

* [†] $p < .10$, * $p < .05$, ** $p < .01$, *** $p < .001$

진로정체감은 일치 대신 불일치할 가능성을 낮추는 효과가 10%의 유의수준에서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진로선택 중 안정성을 중시하는 경향이 높을수록 일치할 가능성이 통계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반면, 진로선택 중 관계를 중시하는 경향이 강할수록 10%의 유의수준에서 일치보다는 불일치할 가능성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가족배경의 영향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보여주지 않았다.

5. 연구 결과 요약 및 시사점

이 연구에서는 고3 시점에서 교육기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과 28세 전후 시점에서 실제 교육 경로의 일치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해서 KCYPS 2010 중1패널의 2015년 조사 자료와 이에 대한 2025년 추적조사 자료를 활용해 분석하였다.

고3 시기의 교육기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에서 학업성적과 고교계열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업성적이 높을수록 높은 단계의 교육기대를 갖는 경향이 있었고 직업계고 학생인 경우 일반계고 학생에 비해 고졸이나 미결정, 전문대 진학을 희망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흥미로운 부분은 진로정체감으로 다른 경로에서 확인되지 않았으나 대학원 진학 희망에 있어서 통계적으로 뚜렷한 정(+)가 효과가 있다는 점이었다. 이 결과는 첨단과학기술 분야의 고급인재 양성이 필요한 시점에서 대학원 진학과 관련하여 중등교육 단계에서 학생들의 진로정체감을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을 말해주고 있다. 진로선택 요인 역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안정성을 중시하느냐, 수입이나 임금을 중시하느냐, 적성과 소질을 중시하느냐에 따라 다른 결과를 보여주고 있어서 고교 단계에서 진로교육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

다음으로 교육기대와 실재를 살펴본 결과, 고교 단계에서 고졸이나 대학원 진학과 같은 다양한 선택을 했더라도 이를 실현해 내는 것이 어렵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고3 시점에 고졸 취업을 선택한 학생 중 절반 이하만이 고졸 상태를 유지하였고 대학원 진학 희망자 중 4명 중 1명이 실제 대학원에 진학하였다. 반면, 전문대나 대학 진학 희망자 중 대다수는 실제와 일치했다. 이러한 결과는 청년들이 자신의 다양한 선택을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말해준다.

마지막으로 고3 시점의 동일 변수들로 교육기대와 실제 간의 일치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살펴본 결과, 진로 관련 변수들만이 유의미한 결과를 보여주었다. 이는 진로교육의 중요성을 말해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고 동시에 어떤 요인들이 교육기대와 실제 간의 일치 여부에 영향을 미쳤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을 말해주고 있다.

○ — 제3장 고3 시기의 교육 기대와 실제2: 심층면담 결과

- 1. 개요
- 2. 이론적 배경
- 3. 면담 방법
- 4. 면담 결과
- 5. 요약 및 시사점

1. 개요

본 장의 목적은 2015년 당시 고3 시점에서 제시한 교육기대와 27, 28세 시점에서 실제 고졸이나 대학·대학원 진학(졸업) 여부를 살펴보고, 양적 자료로는 포착하기 어려운 부분을 분석하여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 KCYPS 2010 중1패널 응답자 중 성별, 수도권과 비수도권, 교육 수준을 고려하여 21명 내외를 목적으로 선정하였다. 이 면담참여자들을 대상으로 심층면담을 통해 성인기 이행 과정에서 고3 시점의 교육기대와 실제 그들의 진로 이행 간의 삶의 변화 과정을 동태적으로 조명함으로써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면담의 주요 질문 영역은 고3 당시의 교육기대, 실제 교육기대 이행(진학 또는 취업) 과정, 교육기대 이행 과정에 대한 자기 성찰 및 정책 제언이다. 수집된 자료는 실용적 사례연구 방법을 적용하여 분석 결과 및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2. 이론적 배경

‘교육기대(educational expectations)’란 개인이 성취하고자 하는 교육 수준에 대해 달성 가능하다고 인식하는 현실적 예측을 의미한다(Giustinelli, 2022; Morgan, 1998). 이와 관련하여 Morgan(1998)은 교육기대를 교육 열망(educational aspirations)이 아닌 개인의 실제 선택 및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보고 있고, Giustinelli(2022)는 교육기대는 ‘합리적 환상(rational fantasy)’으로써 의사결정 시 작동하는 핵심 변수라고 설명하고 있었다.

3) 본 장은 권경만 전략기획실장(한국성서대학교)이 집필하였음.

교육기대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 먼저 개인 요인으로서는 성별, 학업성취도, 자기개념 및 내적 통제력 등이 있으며, 자기효능감이 높을수록 더 교육기대를 높게 갖는 경향이 있다(박수역, 2010; 하형석, 정은진, 최승주, 2017; Trusty, 2000). 둘째, 가정 배경 요인은 부모의 학력, 직업, 가구 소득 등 사회경제적 지위(SES)이며 교육기대의 수준과 변화를 설명하는 가장 결정적인 변수로 확인된다(김기현, 방하남, 2005; 이해란 외, 2024). 가정 배경 요인 중 어머니의 학력이 자녀의 진학 경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도 보고된 바 있다(최인희, 2020). 셋째, 학교 및 사회환경 요인으로는 학교 유형, 교사와의 관계, 또래 집단의 학업 분위기, 사교육 경험 등이 있으며, 특히 직업계고 학생의 낮은 교육기대는 계열 서열 구조와 교내 비교문화에 기인한 '냉각현상(cooling out)'으로 설명된다(박수역, 2010; 장윤선, 임소현, 이윤희, 김은영, 2023).

교육기대를 다룬 선행연구들은 교육기대가 고정된 것이 아니라 역동적으로 변화한다는 점에서 종단연구에 기반하여 수행된 점을 주목할 수 있다. 먼저 국내 연구를 보면, 주로 교육기대의 변화 과정의 특징과 영향 요인을 다루고 있었다. 주로 고3 시점의 교육기대와 실제 진학 간의 괴리 현상을 탐구하거나(김기현, 오병돈, 2024), 고등학교 과정에서 청소년들의 교육기대가 주로 사회경제적 배경과 학교 계열, 진로 지도 등 구조적 요인과 밀접히 연관되어 있다는 점을 확인하였다(박수역, 2010). 특히 사회경제적 배경에 대해서 이해란 외(2024)는 부모의 사회경제적 위치(SES)가 높을수록 학생은 높은 수준의 교육기대를 갖고 있으며, 실제 학업성취에도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음을 밝혔다. 다음으로 국외 연구의 경우, 교육기대를 개인적 요인보다 사회경제적 환경에 따라 유동적으로 조정되는 과정이라는 점을 드러내고 있었다. 예컨대 교육기대가 기대되는 수익, 재정 부담, 정보 접근성과 같은 요인에 따라 현실 조정되는 '합리적 판단'임을 강조한다든지(Morgan, 1998), 교육기대에 대한 하향 조정은 낮은 성취도와 낮은 사회경제적 지위에서 주로 나타난다고 보고 하였다(Alexander et al., 2008).

우리나라 청년들은 대부분 만 19세에 고등학교를 졸업하면서 복잡다단한 양상의 성인기 이행(transition to adulthood) 과정을 시작한다(김기현, 배정희, 김창환, 성재민, 2021; 유민상, 신동훈, 신영규, 박미희, 2022). 성인기 이행에 대해 Settersten(2007)은 교육기대의 실현 여부(최종 학교 졸업)와 함께 취업, 분가, 결혼, 출산 등의 일련의 사회적 역할 이행 과정을 강조하였다. 김기현, 오병돈(2024)은 최근 청년들이 성인기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급격한 변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학교 졸업과 취업, 분가 등 생애 단계별로 이행 지연을 약화시키기 위한 정책 개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여기서 최종 학교 졸업 단계는 사회적 역할 이행 과정의 첫 시작점으로써 고3 시점에 가진 교육기대와 매우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성인기 이행 과정에서 교육기대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4차 산업혁명이 가져올 불확실한 미래 사회의 변화에 대비할 수 있는 역량이 요구된다고 볼 수 있다. 이를 다룬 연구(김희명, 황매향, 2015; 장근영 외, 2015; 하형석 외, 2017)에서는 개인이 적절하게 대응하고 주체적으로 삶을 설계하기 위해 요구되는 핵심역량으로 협동심(cooperation), 창의성(creativity), 끈기(grit) 등을 중요하게 다루고 있었다.

협동심은 가족, 친구, 교사 등 주변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형성되며(하형석 외, 2017), 장근영 외(2015)는 이를 '대인관계 역량'의 핵심 요소로 다룬다. 이는 진로 선택에서 타인의 조언을 수용하고 함께 조정해 나가는 능력과 직결된다. 창의성은 불확실한 진로 환경에서 기존의 경로를 넘어 다양한 선택지를 모색할 수 있는 능력이나, 국내 자료에서는 주로 간접적으로만 언급된다(하형석 외, 2017). 끈기(grit)는 장기 목표를 향한 지속적 노력의 성향으로, 교육기대가 좌절되거나 수정되는 상황에서 재도전의 동력이 되며 학습 동기와 자기 통제성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김희명, 황매향, 2015; 하형석 외, 2017; Duckworth, 2016). 따라서, 교육기대의 실현을 위해서 학업 과정에서 이러한 역량을 배양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앞서 본 연구들은 교육기대 형성과 변화 양상을 정량적으로 파악하는 데 큰 기여를 했지만, 기대 형성과 변화 과정에서 나타나는 심리적 맥락, 가족과 또래의 의미, 정책이나 제도와의 상호작용 등을 포착하는 데 한계가 있다. 따라서 이번 심층면담은 KCYPs 중1패널 데이터를 보완하며, 고등학교 시점의 교육기대가 어떻게 형성되었고, 이후 어떤 과정을 거쳐 진학 혹은 취업으로 이행되었는지에 대한 주관적 경험의 층위를 분석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교육기대와 실제 진로 이행 간의 간극을 개인의 삶의 변화 속에서 조명함으로써 고교 단계 및 대학 진학 후 교육지원 체계, 고졸자의 사회 진출, 대학원 진학 촉진, 그리고 수도권-비수도권 간 지역 균형 차원에서의 정책적 시사점을 얻고자 한다.

3. 면담 방법

1) 면담참여자

본 연구 수행을 위한 면담참여자는 KCYPS 2010 중1패널 응답자에서 고3 시점의 교육기대를 고졸과 대학·대학원 진학(혹은 졸업)으로 각각 응답한 자를 성별, 수도권과 비수도권, 취업 여부 등을 고려하여 목적적으로 구분하였다. 또한 면담참여자는 교육수준 별로 구분하여 고졸자 6명, 대학 졸업자 8명, 대학원 진학 및 졸업자를 7명의 총 21명을 선정하였다. 면담참여자를 이와 같이 선정한 이유는 본 연구가 김기현, 오병돈(2024)의 후속연구로써 위에서 언급한 다양한 요인들이 성인기 이행 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 요인으로 제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면담참여자를 대상으로 개별적인 심층면담을 실시하여 개인이 당초 계획한 교육기대부터 실제 교육기대 이행 과정까지의 풍성한 진술을 획득하여 보다 연구목적에 부합한 의미 있는 자료를 얻고자 하였다. 면담참여자에게 연구목적을 밝히고 면담참여 동의를 받은 후 반구조화된 면담지를 통해 면담을 실시하고 소정의 사례비를 지급하였다. 면담참여자의 일반적인 특성은 다음의 <표 III-1>에 기술하였다.

표 III-1. 면담참여자 현황

No.	구분	이름*	성별	현 거주지	출신고교 형태	교육기대**	교육수준***	취업상태
1	1 그룹	A	여	수도권	일반고	대학 졸업	대학 중퇴	취업
2		B	남	수도권	특성화고	전문대학 졸업	대학 중퇴	취업
3		C	여	비수도권	특성화고	고교 졸업	고교 졸업	취업
4		D	남	비수도권	특성화고	고교 졸업	고교 졸업	미취업
5		E	남	비수도권	일반고	고교 졸업	고교 졸업	미취업
6		F	남	비수도권	특성화고	미결정	고교 졸업	취업
7	2 그룹	A	여	비수도권	일반고	대학 졸업	대학 졸업	미취업
8		B	여	수도권	자율형 공립고	대학 졸업	대학 졸업	취업
9		C	남	수도권	일반고	전문대학 졸업	전문대학 졸업	취업
10		D	남	수도권	자율형 공립고	대학원 졸업	대학 졸업	취업
11		E	남	비수도권	일반고	대학 졸업	대학 졸업	미취업
12		F	여	수도권	일반고	대학원 졸업	대학 졸업	취업
13		G	여	비수도권	일반고	미결정	대학 졸업	취업
14		H	남	비수도권	일반고	대학 졸업	대학 졸업	미취업
15	3 그룹	A	여	수도권	특수목적고 (예술고)	대학원 졸업	대학원 졸업	취업
16		B	남	수도권	특수목적고 (과학고)	대학원 졸업	대학원 재학	취업
17		C	여	수도권	일반고	대학원 졸업	대학원 졸업	미취업
18		D	남	비수도권	일반고	대학원 졸업	대학원 졸업	취업
19		E	남	비수도권	일반고	대학원 졸업	대학원 졸업	취업
20		F	여	비수도권	자율형 사립고	대학원 졸업	대학원 재학	취업
21		G	여	비수도권	자율형사립고 → 일반고(교재학)	대학 졸업	대학원 재학	미취업

* 주: * 면담참여자의 이름은 모두 익명 처리함

** 고3 시점에 응답했던 교육기대 수준(고교 졸업, 대학 및 대학원 진학·졸업)

*** 2025년 현재 실제 고졸 여부 혹은 대학 및 대학원 진학 상태(고교 졸업, 대학 재학, 대학 휴학, 대학 중퇴, 대학 졸업, 대학원 재학, 대학원 휴학, 대학원 중퇴, 대학원 졸업)

2) 면담질문지

면담질문지는 교육기대와 성인이 이행 과정에 대한 이론적 내용을 바탕으로 연구진 간의 논의 과정을 거쳐 개발한 반구조화된 질문지를 사용하였다. 질문지는 교육기대 응답에 따른 고졸 및 대학·대학원 진학(혹은 졸업)으로 각각 구분하여 개발하였고, 주요 내용으로는 (1) 고3 당시의 교육기대, (2) 실제 교육기대 이행(진학 또는 취업) 과정, (3) 교육기대

이행 과정에 대한 자기 성찰 및 정책 제언의 영역으로 구분하였다. 이때 교육기대에 대한 응답 차이를 교육 수준별로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 고졸자와 대학·대학원 진학(혹은 졸업)자에 따라 각각 질문을 구성하였다. 아울러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지역적 차이를 발견하기 위한 내용을 포함하였다. 질문지에 대한 주요 내용은 다음의 <표 III-2>와 같고, 실제 사용된 질문지는 부록으로 첨부하였다.

표 III-2. 주요 면담질문

영역	주요 면담질문
고3 당시의 교육기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3 당시 본인의 진학 경로 • 진학(또는 취업) 목표를 세우게 된 배경과 영향요인 • 진학(또는 취업) 목표에 대한 자신감 • 진학(또는 취업) 준비 과정에서 경험한 어려움
실제 교육기대 이행 (진학 또는 취업) 과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인의 최종 학력 ※ 고졸자: 대학 미진학 이유와 졸업 후 경로 • 재수나 진학 유예 경험 유무와 그 이유 ※ 고졸자: 재수 경험 유무와 중단 이유 • 진로 결정 시 대학 소재지의 영향 • 본인의 대학 유형 선택 이유 • 대학 입학시 선택한 모집 방법 및 전형 유형과 그 이유 • 대학 만족도 ※ 고졸자: 졸업 후 사회 진출에서 경험한 어려움 • 대학 중퇴 혹은 휴학 경험과 그 이유 • 졸업 유예 경험과 그 이유 • 대학원 진학(비진학) 이유 • 대학원 진학(비진학)에 작용한 영향 요인
교육기대 이행 과정에 대한 자기 성찰 및 정책 제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진학(또는 취업) 결정에 대한 성찰 • 교육정책 및 진학 지원시스템에 대한 개선방안 • 대학 진학을 증가, 장기 휴학, 졸업 유예에 대한 문제해결 방안 • 국가경쟁력 확보 차원에서 본 대학원 진학을 제고 방안 • 진학(또는 취업) 과정에서 나타난 본인의 특성(협동심, 창의성, 끈기)

3) 자료 수집 및 분석 방법

자료 수집은 2025년 8월 1주부터 2주까지 총 2주간 시행되었다. 면담방식은 대면과 Zoom을 활용한 비대면 방식을 혼용하고 면담은 심층면담 형태를 취하였다. 면담질문지는 사전에 면담안내문과 함께 면담참여자에게 발송하였고, 주요 면담질문에 대해서는 사전응답을 받은 후 실제 면담은 1회당 약 1시간 동안 진행하였다. 모든 면담내용은 참여자의 동의 하에 녹음 후 전사하는 방식으로 수집하였다. 전사자료는 면담참여자들에게 보내어 문제가 없는지 확인하고 수정·보완하여, 연구자 간 상호 검토를 통해 자료의 신뢰성을 높이고자 하였다(기노시타 야스히토, 2017).

수집된 질적 자료는 실용적 사례연구방법을 토대로 ‘성인기 이행 과정에서 교육기대가 어떻게 실현되는가?’라는 관심현상에 대해 보다 맥락에 집중하여 분석하고자 최근 교육행정학 연구에서 대두되고 있는 수정근거이론적 방법(M-GTA)을 활용하였다. 수정근거이론적 방법(M-GTA)은 맥락에 따른 의미를 놓치지 않도록 단어별, 줄별 코딩을 하지 않고, 문단 단위나 사건과 행동 단위로 코딩을 하는 것이 특징이다. 자료의 해석 과정에서는 기노시타(2017)의 ‘분석초점자’ 관점을 적용하였다. 분석초점자 관점이란 면담참여자를 한 개인으로 보지 않고 연구목적에 따른 ‘추상화한 가상적 집단’으로 설정하여 연구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체적·집합적 의미가 담긴 답을 발견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분석초점자’ 개념은 조직의 장(場)이나 프로그램 운영자의 관점을 토대로 주어진 맥락에서 잠정적으로 가장 타당한 대안 도출을 해야 하는 경우가 많은 교육행정학 분야의 연구에서 유용성이 크다(변기용, 2020). 전사된 자료는 녹음 또는 필사된 원자료와 비교 분석 후 정제함으로써 정확성을 높이고자 하였다. 정리된 자료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도출된 개념과 개념 간, 상위 범주(영역)와 비교·검증하고, 그 결과를 분석워크시트 양식을 통해 정리한 후 개념 간 정합성을 높이고자 지속적으로 성찰하는 과정을 거쳤다. 최종적으로 도출된 개념 간 관계를 분석할 때 Strauss & Corbin(1990; 1998)의 패러다임 모형⁴⁾을 본 연구의

4) 패러다임 모형은 Strauss & Corbin(1990; 1998)이 제안한 질적연구 분석틀이다. 첫째, 중심현상(focal phenomena)은 무엇이 진행되고 있는가에 대한 답이다. 둘째, 인과적 조건(causal conditions)은 특정 현상에 영향을 주는 사건 또는 일을 의미하며, 셋째, 맥락적 속성(contextual condition)은 특정 현상에서 나타나는 상황적 특성을 말한다. 넷째, 중재적 조건(intervening conditions)이란 인과적 조건에 작용하여 현상에 미치는 영향을 경감시키거나 변화시키는 것이며, 다섯째, 작용-상호작용 전략(action and interactional strategies)은 문제해결 과정에서 선택하는 의도적·의식적 행위를 뜻한다. 마지막으로 결과(consequences)란 행위와 상호작용으로 나타난 결과를 말한다. 질적연구 과정이나 결과를 체계적이고

맥락에 맞게 변용하여 활용하였다. 여기에서는 사회환경적, 정책적, 지역적 맥락(맥락적 속성)을 토대로 성인기 이행 과정에서 당초 설정한 교육기대 형성과 이행에 영향을 미치는 직접적 요인(인과적 조건)과 간접적 요인(중재적 요인)이 무엇인지 구조화함으로써 복합적인 연구결과를 입체적으로 제시하였다.

질적연구에서 연구자의 주관적 입장을 완전히 소거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오히려 연구자 자신의 정체성을 명확히 드러내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기도 한다(기노시타, 2017). 본 연구자는 현재 4년제 사립대학에 25년 이상 재직 경험을 가지고 있어 대학 재학생의 특성에 대한 민감성이 높고 질적연구자로서 방법론적 전문성을 확보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본 연구에서는 질적연구 수행 결과의 타당성을 확보하고자 논문 초안을 완성한 후, 교육학 박사로 구성된 전문가 3명에게 외부 자문을 통해 분석의 타당성을 높이고자 하였다.

4. 면담 결과

본 연구의 목적은 고3 시기의 교육기대 형성과 이행 과정에서 나타나는 특징을 포착하고 그 과정에 미치는 영향 요인이 무엇인지 탐색하는 것이다. 질적자료 분석 결과, 교육기대의 형성과 이행은 경계가 뚜렷하게 구분되기보다는 연속적으로 얽혀 있는 과정이라는 사실을 발견하였다. 이 절에서는 질적자료에서 발견한 면담참여자들의 특성을 유형별로 살펴보고, 면담참여자들이 경험한 고3 시기 교육기대의 형성과 이행 과정(중심현상)에 미치는 영향 요인을 개인적 특성(인과적 조건), 제도적 요인(중재적 조건), 문화적·환경적 요인(맥락적 속성)으로 구분하고 그 연계성을 드러내고자 한다. 영향 요인들은 그룹별로 구분하지 않고 포괄적으로 제시하였는데, 그 이유는 그룹별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절적으로 보기보다 요인의 중복성과 차이점을 통해 요인 간에 나타난 연계성을 전체적으로 조망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에 보다 타당하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가시적으로 보여줄 수 있다는 이점이 있으나 개념을 역지로 끼워맞추는 오류를 범할 가능성이 있어 본 연구에서는 최근 교육행정학 연구에서 시도하고 있는 변형된 패러다임 모형을 활용하고자 한다(변기용, 2020).

1) 고3 시기 교육기대 형성 및 이행 과정의 유형별 특성

이 연구에서 면담참여자의 특성은 고 3시기 교육기대의 형성과 이행과정 분석에 중요한 단초를 제공한다. 특히 출신고교의 유형은 교육기대 형성과 이행에 중대한 분기점(critical point)이 된다. 여기서는 그룹별로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 사교육 경험, 학업성취, 진로 교육, 수도권 지향, 취업 등과 관련하여 발견된 특성을 분석하고자 한다.

면담참여자 중 '1그룹'의 특성을 분석한 결과, 대다수 특성화고 출신으로 학업포기, 조기 취업, 대학 중퇴 등의 경험을 한 사례가 많았다. 물론 '고졸 후 취업'이 당초 고졸로 형성된 교육기대가 그대로 이행된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부모의 기대와 지원 가운데, 학업 의지는 매우 빈약했고, 경제적 부담, 학교의 진로지도 부족 등은 그들의 교육기대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많은 문제점을 노정하는 것으로 보인다.

무언가를 배워 보고 싶다는 흥미가 전혀 없었기 때문에 그냥 인문계 아닌 특성화고를 가서 취업을 하게 되었죠... (중학교 때 대부분) 10명 중에 한 6명은 인문계 가고 4명은 특성화고 가는 정도?... (진로교육은) 없어요... 기억 남는 게 없어요.(1그룹, C)

등록금도 부담이었지만 학교 기숙사 시설도 협소하여 지방에서 혼자 서울에 올라와 거주지 및 생활비를 온전히 부담해야 하는 것이 가장 힘들었습니다. 1년 휴학 후 다시 복학을 했지만 역시나 현실적인 부분이 지치게 했고 결국 다시 복학은 하지 못하고 바로 취업을 했습니다. (1그룹, A)

대학교를 나와야 잘 된다 그런 게 있어서... 그냥 붙으면 되는 거고 아니면 마는 거고요... (중략)... 수업방식이 흥미를 못 끌었다고 해야 하나? ... 제대로 된 제 길이 맞나 싶어서 처음에는 고민을 좀 하다가 다른 길을 찾아봐야겠다 해서 자퇴를 하게 된 거죠. (1그룹, B)

대학은 “가야 한다”라는 사회적 압력이 있었지만, 실제 진학 후에는 대학교육에 의미를 갖지 못한 채 중퇴를 하거나 전공과 무관한 분야의 취업으로 이어진 경우가 많은 것으로 보인다. 또한 사교육 경험이 거의 없거나 제한적이어서 교육적 자본이 부족했음을 보여준다. 이처럼 '1그룹'은 「특성화고 출신-학업 포기형-조기 취업형」(1유형)이라는 특성을 갖는 집단이라고 할 수 있다.

다음으로 '2그룹'을 증점적으로 분석해 본 결과, 대체로 일반계 고등학교 출신으로

모두 대학 졸업을 했고 전문대학 졸업부터 지방대, 수도권 중위권대, 수도권 명문대 졸업까지 학력이 다양하다. 교육기대 형성에서는 또래와 교사의 영향이 컸고, “수도권 지향을 내면화했지만, 현실적 제약 속에서 재수·편입 등 다양한 전략을 사용하며, 최종적으로는 취업 중심으로 교육기대를 조정하는 집단”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대학 프리미엄은 여전히 있으나 이전과는 다르다”라는 양가적 태도를 보이고 있었다. 이와 같이 ‘2그룹’은 「일반고 출신-실용적 취업형-타협적 이행형」(2유형)이라는 집단적 특성을 내포하고 있었다.

인서울을 하려면 친구들 중에 몇 명은 성적이 안 되니까 1년 더 해서 가고 싶은 대학을 간 친구들도 있습니다. 아무래도 서울 쪽이 직업적인 면에서도 그렇고, 직장이나 대우나 월급도 더 많다 보니까 서울로 진학하는 경우가 많은 거 같습니다. (2그룹, G)

재수를 했던 친구는 자기 수능성적이 마음에 안 들어서. 진짜 재수를 해서 원하는 대학을 가고 싶었다고 직접 얘기를 한 친구가 있고요...(중략)... 대학 진학을 목표로 한 것은 보통 대학까지는 나와야 취업하기 편해진다고 많이 들으면서 자랐기에 진학을 생각했던 거 같습니다. (2그룹, C)

고등학교 때는 딱히 대학교를 갈 생각이 없었는데 부모님이나 주변에서 대학을 나오다 보니까 대학은 가야겠다 생각을 했어요. 그냥 딱히 뭘 해야겠다는 꿈은 없었어요. 그냥 다 같이 가니까 따라간 거예요. 저는 아무래도 과가 다르다 보니까 사서 직종은 아예 생각을 없애 버렸어요. 사무직 쪽으로 취업하고 있습니다. (2그룹, A)

마지막으로 ‘3그룹’의 분석 결과, 상위권 지향과 대학원 진학 지향이 강한 집단의 특성을 보이고 있었다. 이들 가운데 일부는 과학고, 예술고, 자율형 사립고 등 특수한 고교 배경을 가지고 있어 고교 단계부터 상향 지향이 강화되었음을 보여준다. 다수는 의학·이공계 등 전문직 진출을 목표로 했고, 실제로 대학원 진학·연구 경로로 이어져 있었다. 부모의 사회경제적 위치가 높을수록 안정적으로 교육기대를 유지했으나, 일부는 경제적 제약과 성적 한계로 타협을 경험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아버지는) 서울 치대를 졸업하셔서 치과의사 하고 계시고요... 저도 아버님이 일하시는 거를 치과도 자주 놀러가면서 접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 같습니다...(중략)... 고등학교를 ‘과고’를 가서 수원에서 다니다 대학 때 다시 서울로 왔어요... 공학계열에 1년 정도 공부를 하면서 재수 준비를 하면서... 저도 처음에는 당연히 상위 50% 안에 들어서 서울대를 간다

혹은 그중에서도 최상위권인 치·의대를 지원하다가 제 목표였어요. (3그룹, B)

어릴 때부터 초등학교 때부터 영재교육원을 다녔고 중학교 때도 다녔고 과학고를 준비했습니다. 저는 사교육을 굉장히 많이 받았던... 원래는 박사를 하려고 했다가 창업에 관심이 생겨서 지금 과기원 안에서 회사를 설립해서 창업을 한 상태고요.. (3그룹, D)

저희 부모님은 OO대학교를 나오셨고 박사까지 꼭 하셨고 아버지는 식품영양학 쪽 교수를 하고 계시고 어머니도 연구원 쪽으로 공무원 계열로 일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제가 여전 고등학교 때 그런 배경으로 멋모르고 박사를 적은 게 아닐까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가구의 사회경제적 위치는 7~8 정도 되지 않을까 싶고 사교육의 경우는 많이... (3그룹, F)

이들은 교육을 통한 사회적 상승 이동을 여전히 신뢰하면서도, 대학원 과정의 경제적 부담·성과 불확실성으로 회의적인 인식도 병존하는 특징을 보인다. 이상을 종합해 본 결과, '3그룹'은 「특수목적고 출신-조건부 성취형-상향 지향 지속형」(3유형)으로 요약될 수 있다.

2) 고3 시기 교육기대 형성 및 이행 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1) 개인적 특성

가. 적성과 흥미가 아닌 성적 중심의 대학 선택

면담참여자들은 모든 유형에서 나타난 공통된 현상으로 고등학교 시절 얻은 성적을 기준으로 대학과 전공을 선택하고 있었다. 이는 적성과 흥미보다는 성적 중심의 지원이 일반화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교사의 상담과 주변의 분위기는 성적에 맞춘 대학 선택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여도록 만들고 있었다. 이는 교육기대를 획일화하는 경향을 강화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즉 교육기대가 성적이라는 단일 잣대에 의해 제한된다고 볼 수 있다.

대학도 사실 제가 원하는 대학이 아닌 성적에 맞춰서 대전에서 가까운 OO대로 다니게 되었습니다. 남들 나와야 되니까 억지로 학교를 다닌 거고... (2그룹, E)

사실 친구들을 보면 명확히 뭘 하고 싶어서 대학을 가는 것보다는 성적 맞춰서 가는 친구들이

많았어요. 그리고 저도 당연히 성적으로 입시 상담을 하기 때문에 담임 선생님도 “너는 이 정도 성적이면 여기 대학에 무슨 과를 갈 수 있어.” 사실 제가 원하는 게 아니라 성적에 맞춰 과를 골라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1그룹, A)

아무래도 부모님께서 거주지와 가까운 대학을 갔으면 좋겠다 해서 OO대, △△대 이렇게 두 학교를 목표로 공부를 했는데 성적에 따라서 △△대를 진학하게 되었습니다. (3그룹, E)

면담참여자들은 성적에 따라 대학선택을 제한하고 있었다. 성적은 학업성취를 나타내는 것 이상으로 삶의 방향을 결정하는 기준으로 작동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성적은 개인적 노력만이 아닌 가정 배경과 교육 자원에 영향을 받는 복합적 산물이라고 볼 수 있다. 결국 면담참여자들의 교육기대는 성적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고 있었고, 그로 인해 대학 진학 경로가 획일화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었다.

나.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SES)가 형성한 기대 지형

면담참여자들이 교육기대를 형성하는 과정에서 부모의 학력, 직업, 경제적 자원은 핵심적인 영향을 미친다. 특히 부모의 고학력, 직업적 안정은 면담참여자들에게 높은 기대를 심어주거나 전문직을 지향하도록 이끌고 있었다.

저희 부모님은 OO대학교를 나오셨고 박사까지 쪽 하셨고 아버지는 식품영양학 쪽 교수를 하고 계시고 어머니도 연구원 쪽으로 공무원 계열로 일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제가 예전 고등학교 때 그런 배경으로 멋모르고 박사를 적은 게 아닐까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가구의 사회경제적 위치는 7~8 정도 되지 않을까 싶고... 사교육의 경우는 많이... 교사의 조언은 아무래도 성적이 좋은 편이다 보니까 의학 계열 정도나 서울권 대학으로 진학하는 것으로 해 주셨고 (의사에 대한 꿈은) 부모님에게 많이 받았던 거 같고 저희 사촌 중에 의사가 있는데 사촌 때문에 이쪽으로 선택을 했던 거 같습니다. (3그룹, F)

반대로 부모의 학력과 직업적 자원이 낮거나 경제적 제약이 큰 경우, 학생들은 사교육을 통해 어려움을 경험하거나 조기 취업을 고려하고 있었다. 결국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는 자녀가 설정하는 교육 목표의 상한선과 하한선을 규정짓는 중요한 조건으로 드러남을 볼 수 있었다.

일단 부모님 둘 다 중학교 졸업이고 그때 당시에 직업은 아빠는 선박 기관장이고 엄마는 주부셨을 거예요...(중략)... 대학교를 안 가고 싶어한 것 중 가장 큰 게 더 이상 공부하고 싶지 않은 것도 있고 대학교에 대한 로망도 없었고 기대도 없었고 진짜 가고 싶은, 하고 싶은 그런 게 없었어요. (1그룹, C)

여기서 발견한 사실은 부모의 사회경제적 배경이 단순히 출발점의 차이를 넘어 교육기대의 지형을 결정하는 힘으로 작용한다는 것이다. 곧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는 교육기대의 수준을 결정지며, 교육 불평등의 양상이 세대를 거쳐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보여준다.

다. 사교육 경험이 형성한 상위 지향

면담참여자들의 사교육 경험은 그들의 교육기대 수준을 직접적으로 높이는 데 매우 큰 역할을 차지하고 있었다. 이러한 현상은 주로 ‘1, 2유형’에서 중점적으로 나타났다. 그들은 사교육을 영재교육원, 기숙학원 등을 통해 또래보다 더 많이, 더 높은 수준으로 받고, 영재교육원, 기숙학원 등을 통해 길러지고 있었다.

일반적인 또래들보다는 좀 더 사교육을 많이 받았던 거 같아요. 특히 영어 같은 거는 어릴 때부터... 또래보다는 10이 평균이라 치면 1.5배 정도를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2그룹, F)

(사교육은) 거의 상위 5%로 받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중략)... 고등학교 때도 수원에 있는 기숙학교였는데 주말에는 나오자마자 토, 일 내내 과외, 학원으로 짹짹 채워서 아침부터 저녁 8~9시까지 학원에 있었던 거 같습니다. (3그룹, B)

초4 때부터 과학교를 준비하고 시 영재교육원이 있어서 그런 데 가면서 초등학교 때부터 과학교를 준비하는 친구들을 주위에서 많이 접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사교육을 굉장히 많이 받았던... (3그룹, D)

면담참여자들의 진술은 사교육 경험의 격차가 교육기대 형성에 미치는 영향이 단순한 “보충학습” 차원을 넘어선다는 점을 보여준다. 사교육은 교육기대의 방향과 수준을 결정짓는 핵심 요인이며, 교육 불평등을 가장 가시적으로 드러내는 영역이라고 할 수 있다.

라. 결여된 학습자 주도성

일부 면담참여자들은 학업을 지속적으로 이어갈 수 있는 끈기나 자기주도적 학습 역량이 부족했다고 진술하고 있었다. 스스로 계획을 세우고 끝까지 밀어붙이는 힘이 약하거나, 자기 학습 수준을 평가할 기준이 없어 자신감이 부족한 경우가 많았다.

생각은 많이 했는데 자신감이 있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학원이라도 다녔으면 다른 친구들과의 나의 수준이 어느 정도겠다는 스스로의 평가가 있었을 텐데... (중략) 사실 인문계열의 고등학교에서 예체능 학과 진학에 대한 정보는 많이 부족하고 예고같은 특수 학교의 학생들보다 많이 뒤쳐진 느낌이 있었습니다. (1그룹, A)

이러한 경험은 결국 대학 진학을 포기하거나 교육기대를 낮추는 선택으로 이어졌다. 즉, 학업 지속 동기의 부족은 개인적 차원에서 교육기대 축소를 설명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함을 볼 수 있었다.

개인적으로 공부를 꾸준히 이어가는 끈기는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무언가를 끝까지 밀어붙이는 성향은 저한테는 좀 약했던 것 같고요. 지금 생각해 보면, 대학교를 가기 위해서 끈기라는 게 없었으니까 저는 중간에 포기를 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2그룹, A)

주로 '1, 2유형'의 학업과정에서 나타난 끈기와 도전정신의 부족은 결국 진학 포기라는 결과로 이어지는 것으로 보인다. 이 과정에서 학교와 제도는 학생의 자기주도성을 함양하는데 적절한 기회를 제공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학업동기의 부족은 개인적 차원을 넘어 조직적·제도적 한계에서 교육기대를 축소시키는 요인으로 작동하고 있었다.

마. 경제적 부담으로 인한 중도탈락과 조기 취업

면담참여자들은 대학에 진학했음에도 불구하고 등록금과 생활비 부담 때문에 학업을 이어가기 어려웠다고 진술하고 있었다. 이러한 현상은 '2, 3유형'보다는 특히 '1유형'에서 발견할 수 있었다. 일부는 휴학을 반복하다 결국 복학하지 못했고, 또 다른 일부는 가정형편을 이유로 조기 취업을 선택하기도 하였다.

가정형편이 안 좋아서 그런 것도 있고... 학교보다는 취업을 먼저 해서 돈을 벌자는 생각을

많이 한 거 같고요... (중략)... 부모님이 대학이라도 가서 졸업을 해야.. 이렇게 얘기를 하셔서 대학 진학을 하고... 그 다음은 대학교 자체가 저랑 안 맞는 거 같아서 중퇴를 했습니다. (1그룹, D)

이러한 경험은 경제적 요인이 단순한 배경 조건이 아니라, 교육기대의 지속 여부를 결정하는 직접적 요인임을 보여준다. 결국 경제적 부담은 교육기대를 축소시키거나 중단시키는 결과로 이어졌다.

대학을 졸업하면 좋기는 하지만... 더 다닐 필요가 없잖아요.. (중략)... 빨리 취업을 해야겠다는 생각 때문에... 그런데 서울에 방을 얻고 그렇게 하잖아요. 방세를 내는 게 어렵기는 했죠. 월급의 거의 1/4 이렇게 되는 건데 금전적인 게 좀 어려웠던 거 같아요... (1그룹, B)

1유형에게 경제적 자원은 대학 생활을 지속할 수 있는 핵심 조건으로 작동했다. 그러나 등록금과 생활비 부담 등은 교육기대를 이행할 수 없는 제약 조건으로 작동한다. 1유형의 경우, “교육”의 기능이 사회적 이동의 통로가 아닌 경제적 불평등을 재생산하는 경로로 기능할 가능성이 크다.

(2) 제도적 요인

가. 취업 및 진학 경로를 제약하는 학교 풍토

면담참여자들에게 고등학교 유형은 교육기대 이행에 매우 중요한 제도적 환경으로 보인다. 특성화고, 일반고, 특수목적고(과학고, 예술고 등)의 학업분위기, 정보 접근성, 진학 성과 등은 면담참여자들의 진학 및 진로 결정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었다.

중학교 때 성적이 안 좋아서 특성화고가 성적이 낮아도 받아 줄 수 있다고 해서 거기를 갔습니다... (중략)... 제가 중1까지만 공부를 하고 그 다음부터는 공부를 아예 안 했거든요. 대학교 가서 공부를 해야 되는데 눈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냥 시간 낭비인 거 같다. 휴학을 하다가 결국에는 중퇴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1그룹, D)

일반고라 제가 목표로 하는 대학을 합격한 선배들이 1년에 한두 명 정도밖에 없었고요. 지방 일반고에 다니다 보니 목표 대학에 진학한 가까운 선배가 거의 없었고, 입시 전문 학원도 주변에 없어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정보를 찾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2그룹, F)

특정 고교 풍토는 학생들에게 “갈 수 있는 길”을 구조화하여, 개인의 적성과 흥미보다 학교의 전반적 분위기와 환경에 의해 진학 및 취업의 경로가 제한되는 현상임을 볼 수 있었다. 특히 ‘3유형’의 경우 ‘1, 2유형’에 비해 상대적으로 그 특징이 분명하게 구분된 것을 발견할 수가 있었다.

초등학교 때는 부천 쪽에 살다가 서울 쪽으로 이사를 왔고 고등학교를 과(학)고를 가서 수원에서 다니다 대학 때 다시 서울로 왔어요... 상위 50% 정도가 서울대 진학을 하고 나머지 카이스트, 연고대, 지스트 이런 공학 중심의 대학을 많이 가서 저도 처음에는 당연히 상위50% 안에 들어서 서울대를 간다 혹은 그 중에서도 최상위권인 치의대를 지원한다가 제 목표였어요. (3그룹, B)

학교 풍토는 학생의 선택지를 구조화하는 보이지 않는 제도적 힘으로 기능한다. 특성화 고의 경우 낮은 성적대 학생들이 몰리며 “취업 준비형” 경로를 당연하게 받아들여지게 되었고, 일반고에서는 선배·학원 네트워크 부재가 상위 대학 진학을 가로막는 요인으로 작용하기도 하였다. 반대로 과학고와 같은 특수 목적고는 상위권 진학을 당연한 경로로 만들어, 학생들에게 상향 지향을 제도적으로 내면화시키는 것으로 보인다. 즉, 학교 풍토는 교육기대의 상·하한을 규정하는 제도적 배경 장치로 작동하며, 이를 통해 개인의 적성보다는 구조적 환경이 교육경로를 좌우한다는 점을 발견할 수 있었다.

나. 형식적 진로지도로 인한 수동적 대학 선택

면담참여자들은 고등학교 시절 진로지도는 형식적이었다고 진술하고 있었다. 진학 및 진로지도는 적성과 흥미가 고려되지 못한 채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입시 준비 과정에서 교사는 성적에 맞춘 대학과 전공을 추천할 수 밖에 없는 구조적 한계가 존재하고 있었다.

환경적으로 좀 더 자유로운 분위기였으면, 입시제도 밖에서 좀 더 다양한 선택지를 알려 주고... 계속 영어, 수학, 국어 해야 하고 그거 제외하고 다른 것도 많이 알려 주고 삶의 경험 같은 거를 도와줬으면 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었어요. (3그룹, A)

진로지도는 딱히 없었어요. 고3 때 원서 쓸 때 짧게 이 성적에는 이게 맞다, 여기 가라, 이거는 상향 지원이니까 여기 가라 이런 식으로 하셨고요. (2그룹, G)

한편 지방 소재 일반고 학생의 경우 학교 차원의 진로지도나 제도적 자원이 부재한 것으로 보인다. 지방고교의 공교육의 진로지도는 실상 성적에 따른 진학 가능한 대학을 추천받는 것으로 고착화되었고 교육기대의 형성과 이행을 방치하고 있었다.

사실 학교나 선생님한테 큰 도움은 받은 게 없었던 거 같아서, 지방이고 일반고다 보니까 학교나 제도적인 도움을 받기 어렵지 않았나 싶어요. (2그룹, F)

진로지도의 부재는 학교의 제도적 한계와 구조적 방치의 결과라고 할 수 있다. 한국 교육체제에서 진로지도는 매우 중요한 요소이나(교육부, 2023b), 실제 현장에서는 성적 맞춤형 상담에 머무르고 있는 경향이 크다. 결국 이와 같은 사실은 학생들의 교육기대가 개인적 요인에 따라 크게 달라지는 구조적 불평등을 야기시킨다. 또한 지방 일반고 사례와 같이 지역적 자원의 불균형은 제도적 격차를 더욱 심화시킨다고 볼 수 있다. 이처럼 무늬만 있는 진로지도는 학생 개인의 선택 실패라기보다는 제도적 부재와 구조적 방치의 결과로 이해될 필요가 있다.

다. 획일적 입시제도가 만든 교육기대의 축소

면담참여자들은 수능능력시험이 성적 외에는 학생 개개인의 적성과 흥미를 평가할 수 없음을 지적하고 있었다. 이러한 제도적 제약은 교육기대 수준을 성적에 따라 조정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수능이라는 제도가 개인이 가지고 있는 재능이나 흥미의 여부와 상관없이 판단되는 점이 크기 때문에 아쉽다고 생각합니다... (중략)... 성적에서 성실함을 따질 수 있겠지만, 제도 때문에 선택이 제한되는 느낌이 있었습니다. (3그룹, A)

또한 어느 지방 소재 일반고의 경우 수능형 인재를 키운다는 목적에 따라 정시전형만을 강조하면서 결과적으로는 사교육 의존을 조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면담참여자들은 공교육만으로도 충분히 희망하는 대학에 진학하기를 열망하고 있었다.

저는 수시보다는 지방이다 보니까 저희 학교가 수능형 인재를 키우려는 학교였고 정시를 메인으로 해서 많이 공부를 했는데 수능 때 삐끗했죠. (2그룹, B)

학생들을 평가해서 모집을 해야 하니까 평가시스템이 없어지지는 않겠지만 수능이라는 너무 큰 리스크가 있는 시험에 몰입하게 되면 사교육을 받는 학생들이 점차 많아질 거고 그렇게 바람직한 방향은 아니라 생각해서요. 공교육만으로도 충분히 학생들이 가고 싶은 대학을 갈 수 있도록 수시전형이 늘어나면 좋을 거 같아요. (2그룹, D)

수능 중심 체제는 면담참여자들의 교육기대를 제약하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지방 소재 면담참여자들에게 대학 선택지는 협소했고, 수능 실패시 교육기대의 좌절로 이어지고 있었다. 한편 수능의 영향력은 사교육 정도와 비례하여 계층 격차를 심화시키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결국 수능은 교육기대의 형성과 이행을 구조적으로 제약한다고 볼 수 있다.

라. 또래 압력에 따른 진학 선택

면담참여자들은 대학 진학시 자신이 설정한 목표보다 친구들에 의해 더 많은 영향을 받고 있었다. 즉 자신의 교육기대가 합리적으로 이루어진 선택이 아닌 또래집단과 집단 규범에 의해 구조화되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었다.

대학교를 가야겠다는 생각은 자의적으로 하지는 않고 주변의 타의적으로 친구들도 다 가고 부모님도 대학교는 나와서 졸업장이라도 따야 취업이 편하지 않겠느냐... 충고 아닌 충고를 계속 들어와서 나도 가야겠다 마음을 먹고... (2그룹, E)

타 대학을 다니는 친구들도 마찬가지고요. 이거를 가야지 해서 간다기보다는 대학을 갈 때 주변 이야기를 많이 듣고 들어간 친구들이 많이 그랬던 거 같아요. 휴학을 하거나 다시... (2그룹, G)

이러한 과정에서 대학(원) 진학은 개인의 선택이 아닌 집단적 압력과 분위기에 따라 자동화된 경로로 수용되었고, 대학원 진학조차 학문적 열망보다는 “다 같이 가는 분위기”에 휩쓸려 선택되는 경우가 많았다.

제가 석사를 특별히 하고 싶어서 한다기보다는 저희 과 내에서 석사가 어느 정도 같이 따라가는 게 있어서 같이 등록을 해서 하게 된 거 같습니다. (3그룹, F)

이 요인은 교육 선택에 있어서 동료집단의 규범적 압력이 존재한다는 점을 보여준다. 이러한 영향은 개인의 선택이 사회적 자율성이 아닌 주변 환경의 관습적 결정에 의해 제약되는 과정을 잘 보여준다. 특히 “대학은 가야 한다”라는 담론은 부모와 친구, 학교 분위기를 통해 강화되며, 이는 교육기대를 획일적이고 맹목적인 방향으로 강화하는 기능을 하며, 교육 불평등과 경로 제약이 지속되는 이유를 설명해준다.

마. 대학 전공과 불일치한 진로 선택

면담참여자들은 대체로 실제 취업과 대학 전공이 일치하지 않았고 진술하였다. 전공과 관계없이 공무원 시험, 자격증 취득, 특정 전문직 준비로 방향을 바꾸거나, 졸업을 미루고 새로운 진로를 찾는 사례가 대표적이었다. 이는 전공선택이 학업 성적에 맞춘 결과로 이뤄진 탓에 애초에 전공 적성과의 불일치가 있었거나, 사회적 현실에서 전공보다 취업에 대한 가능성과 안정성이 더 중요한 기준으로 작용했기 때문이다. 결국 대학 전공은 진로와 직접적으로 연결되지 못한 채, 학생들은 제도적 한계 속에서 전공과 불일치한 취업진로를 일반화된 경로로 경험하고 있었다.

재수를 했던 친구는... (중략) ...졸업유예를 2~3년 가까이 하고 있는 친구가 있는데 회계사를 준비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회계사를 하려면 자격증이 필요한데 어려움이 봐요. 그거를 따고 졸업을 하겠다고 얘기를 해서 계속해서 유예를 하고 있는 친구가 있고요. (2그룹, C)

(대학교에서 고시 준비를 하는 친구들이) 많습니다... (중략).. 여학생 같은 경우는 공무원 시험을 준비해서 대부분 공무원 시험 준비를 하고 공무원 된 친구들이 많습니다. (3그룹, E)

주변 사람들은 전공과 다른 직업을 갖고 계세요. 그래서 굳이 대학을 가야 되나... (1그룹, B)

모든 유형에서 나타난 ‘진로와 전공의 불일치 현상’은 대학 교육과 노동시장 간의 괴리를 보여주고 있다. 대학의 전공 자체가 교육적 의미를 갖기보다는 ‘취업을 위한 통로’로 기능하고 있음을 보여주며, 졸업 이후에는 취업 안정성이 더 큰 우선순위가 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전공의 내적 가치보다는 외적 시장 수요에 의해 진로가 결정되는 구조적 모순을 드러낸다. 따라서 전공과 진로의 괴리는 단순한 개인 선택의 결과가 아니라, ‘대학-노동시장 연계의 실패’ 혹은 ‘제도적 불일치’라는 결과로 이해할 수 있다.

(3) 문화적·환경적 요인

가. “대학은 필수”라는 규범적 압력

면담참여자들은 대학 진학이 뚜렷한 진로 목표의 결과라기보다 주변의 압력과 사회적 통념 속에서 당연한 선택으로 자리 잡았다고 진술하였다. 부모의 권유, 또래와 교사의 분위기, 사회적으로 “대학은 가야 한다”라는 담론이 결합하면서, 대학 진학은 선택지가 아니라 규범적 경로로 내면화되는 것으로 보인다.

대학 진학을 목표로 한 것은 보통 대학까지는 나와야 취업하기 편해진다고 많이 들으면서 자랐기에 당연히 대학을 가야한다고 생각했었습니다. 고등학교를 일반고를 나왔기에 일할 기술이 없다 생각하여 대학에서 뭔가 배울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으로 진학을 생각했던 거 같습니다. (2그룹, C)

부모님이 걱정하신 것도 그 부분(고졸)이었고 그래도 4년제 대학이라도 나와야 취업이라도 할 수 있다. 그게 아니면 자격증이라도 따라. (1그룹, A)

대학 진학은 개별 학생의 적성과 흥미보다 사회적 기대와 구조적 압력에 의해 ‘기본 경로’로 자리잡는 것으로 보인다. 이 과정에서 일부는 자율적 선택을 시도했으나, 결국 제도적·문화적 압력에 의해 방향이 제한되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다.

과연 진심으로 공부하기 위해 대학을 가는 사람은 과연 얼마나 될까?...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월하든 대학은 가야된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실제로 저도 많이 들어봤습니다. 그러니 무턱대고 대학부터 가고 ‘아 내가 대학을 갈 필요가 없구나’ 하고 장기 휴학을 하거나 제적을 당하는 경우도 간간히 봤습니다. (2그룹, H)

이러한 규범적 압력은 교육의 제도화와 사회적 규범 간의 작동원리를 보여준다. 결국 면담참여자들의 대학선택은 사회적 규범의 산물이다. 더 나아가 “대학에 가야 안정된 미래가 보장된다”라는 인식은 사회 전반에 걸쳐 뿌리내린 학벌주의의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나. 대학 서열이 좌우하는 진학과 취업 경로

면담참여자들이 인식하는 대학 서열은 대학 진학에서 중요한 기준이 되고 있었다. 이는

학문적 수준보다 취업 가능성, 사회적 지위와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면담참여자들에게는 서열화된 대학 구조는 ‘명문대 진학=성공’이라는 공식을 내면화하고, 자신의 교육기대를 특정 대학에 집중시키고 있었다.

중·고등학교 때부터 보이잖아요. 인터넷 검색을 해도 대학 서열 이런 게 나오잖아요. 서연고, 성서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사람들끼리 대화를 나누는 것 속에서 자연스럽게 서열화가 되고 머릿속에 인식이 되면서 여기를 가이켰다는 게 친구들끼리 형성이 되는 거 같아요. (2그룹, B)

(입시과정에서 고려한 기준) 단 한 가지의 이유가 아닌, 복합적인 요소들을 고려하였습니다. 대학 서열 역시 추후 취업률과 이어졌기 때문에 기존에 생각한 대학 서열 내에서 OOOO과를 활발하게 지원해 주는 대학을 선택하였습니다. (3그룹, G)

동시에 지방대나 서열이 낮은 대학은 사회적 평가가 낮아, 교육적 가치보다 ‘낮은 서열’이라는 낙인이 진학 기피 요인으로 작동했다. 특히 이러한 현상은 ‘2그룹’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었다.

친구들 같은 경우에도 지방도 합격하고 수도권도 합격하면 거의 다 수도권으로 진학을 했던 거 같고 예를 들면 지방대지만 좀 더 취업이 잘될 거 같은 전공이라도 가급적이면 다 수도권 대학을 선택했던 거 같아요. (2그룹, F)

이 요인은 한국 사회의 학력주의와 학벌주의를 드러내는 전형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다. 대학 서열은 대학 간 차이를 넘어 노동시장 진입, 인간관계, 개인적 자존감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결국 서열화된 대학은 불평등을 재생산하는 원천이며, 사회적 계층을 나누고 이동시키는 거점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제 대학 서열은 개인적 차원의 문제를 넘어 사회구조적인 요인으로 바라봐야 한다.

다. 서울 지향과 지방 기피

면담참여자들에게 나타나는 ‘인서울’ 현상은 취업 가능성, 사회적 위치, 개인의 자존감과 연결되어 있었다. 성적 등의 이유로 지방대학을 불가피하게 진학하는 경우에도 서울에 대해 막연한 지향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아무래도 서울 쪽이 직업적인 면에서도 그렇고 직장이나 대우나 월급도 더 많다 보니까 서울로 진학하는 경우가 많은 거 같습니다. 제 주변 친구들도 다 서울로 가려고 했고, 지방대학을 선택하는 건 거의 없었던 거 같아요. 저도 결국은 성적이 안 돼서 지방으로 갔지만, 마음은 항상 서울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2그룹, A)

서울에 온 게 잘한 결정 같아요. 자신감도 많이 떨어지고 벽을 느꼈는데 견문이 넓어진 느낌이라서... 세상이 넓구나, 서울에 간 게 잘한 결정 같네요. (1그룹, E)

반면 지방대학은 정보 접근성과 지원 환경의 부족, ‘지방대’라는 사회적 낙인 때문에 부정적으로 여겨질 수밖에 없었다. 이 요인은 지역 격차와 수도권 집중이 교육기대 형성과 이행을 결정적으로 제약하는 양상을 드러낸다고 하겠다.

대구에서는 정말 할 수 있는 게 한정적이고 진짜 다양한 경험, 할 수 있는 활동 영역 범위가 매초에 달라서 서울권이어야만 했던 거 같습니다. (3그룹, C)

서울 지향과 지방 회피는 한국 교육체제의 ‘공간적 불평등’을 보여주는 전형적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모두가 아는 것처럼 수도권 대학은 여전히 교육적·경제적 프리미엄을 제공하는 반면, 지방대학은 취업 전망과 사회적 인정에서 열세에 놓여 있다. 면담참여자들은 이러한 구조를 내면화해 ‘서울 진학 = 성공 경로, 지방 진학 = 차선 혹은 실패’라는 이분법 속에서 선택을 하고 있었다. 서울 지향은 단순한 개인의 선호가 아니라, 구조화된 문화적 규범이자 한국 사회의 지역 격차 재생산 메커니즘임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

5. 요약 및 시사점

본 연구의 목적은 고3 시기의 교육기대 형성과 이행 과정에서 나타나는 특징과 그 과정에 미치는 영향 요인이 무엇인지 탐색하는 데 있다. 먼저 그룹별로 출신고교 유형과 함께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 사교육 경험, 학업성취, 진로교육, 수도권 지향, 취업 등을 분석한 결과, <표 III-3>과 같이 특성에 따라 세 가지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었다. 1유형은 「특성화고 출신-학업 포기형-조기 취업형」, 2유형은 「일반고 출신-실용적 취업형-타협적 이행형」, 3유형은 「특수목적고 출신-조건부 성취형-상향 지향 지속형」의 특성을 나타내고 있었다.

표 III-3. 고3 시기 교육기대 형성 및 이행 과정의 유형별 특성

유형	특성
[1유형] 특성화고 출신- 학업 포기형- 조기 취업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다수 특성화고 출신임 • 학업포기 및 조기 취업, 대학 중퇴 등의 경험을 함 • 부모의 기대와 지원은 다양하나 학업 의지가 매우 적고, 경제적 부담이 많음 • 학교의 진로지도 부족이 교육기대 이행을 제약하고 있음
[2유형] 일반고 출신- 실용적 취업형- 타협적 이행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체로 일반계 고등학교 출신임 • 모두 대학 졸업을 했고 전문대학부터 지방대, 수도권 중위권대, 수도권 명문대까지 학력이 다양함 • 교육기대 형성시 또래와 교사의 영향이 큼 • 수도권 지향을 내면화했지만, 현실적 제약 속에서 재수·편입 등 다양한 전략을 사용하며, 최종적으로는 취업 중심으로 교육기대를 조정하는 집단임 • 대학 프리미엄은 여전히 있으나 이전과는 다르다라는 양가적 태도를 나타냄
[3유형] 특수목적고 출신- 조건부 성취형- 상향 지향 지속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부는 과학고, 예술고, 자율형 사립고 등 특수한 고교 배경을 가지고 있어 고교 단계부터 상향 지향이 강화됨 • 다수는 의학·이공계 등 전문직 진출을 목표로 하고, 실제로 대학원 진학·연구 경로로 이어짐 • 부모의 사회경제적 위치가 높을수록 안정적으로 교육기대를 유지함 • 일부는 경제적 제약과 성적 한계로 타협을 경험하는 경우도 있음

질적자료 분석 결과, 교육기대의 형성과 이행은 면담참여자들 삶의 궤적 가운데 놓인 연속선상에서 서로 영향을 미치며, 성적, 부모의 사회경제적 배경, 사교육 경험, 학교 풍토, 또래 문화, 그리고 지역·사회적 규범이 복합적으로 얽혀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교육기대에 관한 선행연구(김기현, 방하남, 2005; 박수역, 2010; 이해란 외, 2024; 장윤선 외, 2023)와 유사하나, 이 연구에서는 분절적으로 구분되어 있는 개별 요인 간 관계를 근거이론적 방법에 따라 밝혀냈다는 것에 차별점을 둘 수 있다.

맹목적 대학 진학과 서열화된 대학, 인서울 현상이라는 환경에 놓인 청소년들은 개인적 특성에서 비롯된 성적 중심 대학 선택,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SES), 사교육 경험, 학습자 주도성의 결여, 경제적 부담을 원인으로 하여 교육기대에 형성과 이행에 있어서 학교제도와 정책의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 가운데 학교제도나 정책이 이러한 인과적 조건을

더욱 강화하는 역할을 한다. 예컨대 형식적인 진로지도, 획일적 입시제도, 또래 압력, 전공과 진로의 불일치 등은 세 유형 간의 경계를 더욱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었다. 이는 앞서 분석한 선행연구(박수억, 2010; Alexander et al., 2008; Morgan, 1998)와 그 궤를 같이 하지만, 이 연구에서는 최종 학교 졸업 단계별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의 종류와 정도가 다르다는 것을 추가로 발견할 수가 있었다.

한마디로 교육기대는 단순한 개인적 특성을 벗어나 구조적 조건 및 문화적 규범을 토대로 재구성되는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이렇게 복잡하게 얽혀 있는 요인 간 관계를 교육행정학적 맥락에 맞게 수정한 Strauss & Corbin(1990; 1998)의 패러다임 모형을 활용하여 분석하면 [그림 III-1]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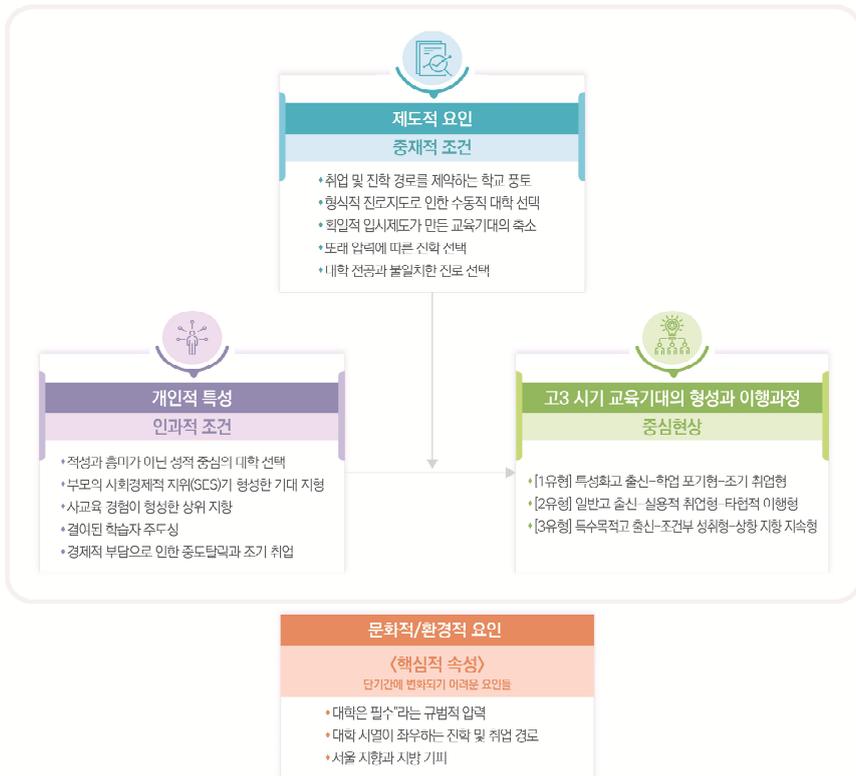


그림 III-1. 고3 시기 교육기대 형성과 이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간의 관계

이번 연구는 고3 시기 학생들의 교육기대가 성적, 부모 배경, 사교육 경험, 학교 풍토, 사회 규범 등에 의해 제약되었음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한가지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은 현재 시행 중인 다양한 교육 및 취업진로 정책들이 면담참여자들의 고등학교 재학 시기(2015년~2017년)에는 아직 도입되지 않았거나 충분한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첫째, 실제적인 진로지도와 자기주도적 학습 지원이 필요하다. 이번 연구 결과, 적성과 흥미를 도외시한 진로지도 문제와 자기주도적 학습의 어려움을 발견할 수 있었다. 현재 진로교육 계획 및 활성화 방안(자유학기제, 진로진학상담교사 배치, 고교학점제 등)이 지속적으로 추진되고 있고, 자기주도학습센터 추진은 올해부터 본격 시행되고 있다. 이러한 정책 추진과정에서 학생 개개인이 자신의 적성과 흥미에 맞는 전공과 대학을 찾을 수 있도록 초·중등교육 뿐 아니라 대학에서도 진로결정 수준에 따른 맞춤형 진로교육이 운영될 필요가 있다.

둘째, 공교육 격차를 해소하고 사교육 의존을 낮추는 노력이 필요하다. 지역소득 수준 간 교육격차 해소를 모색하는 것은 정책적으로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사항이다. 지역 수준의 격차가 학습 격차로 이어지지 않을 수 있도록 지역별 여건에 맞는 학습환경 조성 등이 필요하다. 최근 방과후학교, EBS 강의콘텐츠, 온라인 플랫폼 등 공교육 인프라가 확충되었지만 좀처럼 지역과 계층 간 불평등은 여전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번 연구에서 '등록금과 생활비 부담'이 교육기대 이행을 제약하는 요인으로 나타난 것을 주목해야 한다. 현재 시행 중인 청년 성장 지원을 위한 국가장학금, 근로장학금 지원대상 확대를 통한 학자금 부담 경감, 저소득층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주거안정장학금 신설, 연합 기숙사 신축 등 대학생의 재정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정책들이 추진 중이다. 이러한 정책 추진에 있어서 공교육 강화를 위한 교사 전문성 강화 지원, 지역 인프라의 균형적 투자 등이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셋째, 대입제도는 교육과정 및 결과에 대해 모두 아우를 수 있도록 재설계될 필요가 있다. 이번 연구에서 수능은 대학 선택을 강력하게 제약하고 있었다. 현재 수시 대 정시 비율을 정책적으로 조정하고 있고, 학생부종합전형이 실시되고 있지만 본래의 취지와는 거리가 멀기만 한 것 같다. 향후 대입제도에서 수시 전형은 학교 교육과정의 전반적 교육경험을 충실히 평가할 수 있는 과정 중심의 평가체제가 되어야 한다. 아울러 정시 전형은 결과 중심의 평가로써 학생의 수학능력에 대한 종합적, 객관적 평가체제로 재설계될 필요

가 있다.

넷째, 대학 서열화 및 수도권 집중화라는 문제해결을 위해 지방대학 경쟁력 제고, 대학과 지역사회 간 연계·협력 강화가 요구된다. 이번 연구 결과, 수도권 지향과 지방 기피는 문화적·환경적 요인으로 단기간에 변화되기 어려운 난제이다. 그러나 최근 시행 중인 교육발전특구 정책(교육부, 2023a)은 지역의 공교육 발전, 지역 우수인재 양성, 지역 정주 생태계 활성화를 통해 ‘지역 교육 경쟁력 확보’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여기에 글로벌 사업을 통한 지방대 경쟁력 강화 및 육성, 국가혁신 클러스터 조성 등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다섯째, 대학 졸업이 곧 안정적 미래를 보장한다는 사회 규범적 인식이 바뀌어야 한다. 이번 연구 결과, 취업을 위해 “대학은 가야 한다”라는 사회적 담론을 발견할 수 있었다. 이는 대학 진학이 취업과 사회적 인정의 기본조건임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현재 블라인드 채용과 NCS(국가직무능력표준) 기반 채용 등이 확대되고 있지만, 여전히 고용시장에서는 학벌 중심 문화가 팽배해 있는 것은 주지할 만한 사실이다. 특히 수도권 상위대학 중심의 ‘채용선발 프리미엄’은 지방대 혹은 고졸 청년들에게 구조적 불평등을 재생산하는 기제로 작동하고 있다. 따라서 정부 정책뿐만 아니라 기업과 사회가 함께 참여하는 역량 중심 채용 문화의 확산이 필요하다.

○ — 제4장 학교-일자리 이행의 유형과 특성

-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2. 연구 방법
- 3. 분석 결과
- 4. 결론 및 제언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청년의 ‘학교-일자리 이행(school-to-work transition; STW)’은 성인기로 진입하는 핵심 과업 중 하나로(Ryan, 2001), 청년들이 교육을 마치고 안정적인 노동시장에 진입하기까지의 과정을 의미한다(OECD, 1996, 1998). 이 시기 청년은 교육, 진로 탐색, 직업 경험, 노동시장 진입 등을 통해 본격적인 경력개발을 시작하며, 이를 기반으로 독립적인 경제활동과 사회적 책임을 수행하게 된다. 학교-일자리 이행 과정은 곧 성인 이행이라는 과도기적 단계와 맞물리는데, 이는 청소년에서 성인으로 전환되는 시기로서 학업, 직업, 가족 형성과 같은 중요한 삶의 전환이 집중적으로 일어나는 시기를 의미한다.

그러나 유사한 학업과 진로 경험을 공유했던 중등교육 시기와 달리, 청년에서 성인으로의 이행은 표준화된 경로를 따르지 않으며 개인의 선택과 배경에 따라 다양한 궤적을 형성한다. 예컨대, 진학과 취업의 반복, 중도 탈락, 일학습병행, 비경제활동 상태 등은 전형적인 경력 경로에서 벗어나 나타나는 다양한 이행 양상을 보여준다. 이는 청년의 STW 과정이 단일한 방향으로 전개되는 것이 아니라, 복잡한 상태 전환과 반복으로 구성되어 있음을 시사한다.

국내에서도, 학교에서 노동시장으로의 이행 과정을 이해하기 위한 시도가 상당히 많았으며, 각 연구에서는 개인의 특성에 따라 이행 패턴과 이행 결과를 고려하여 탐색한 것을 알 수 있었다. 선행연구에서는 청년층 학교-일자리 이행과정을 성별 혹은 학력에 따라 분석하거나(권혁진, 유호선, 2011; 오유진, 김교성, 2019), 고용 특성에 따라(박미희, 홍백의, 2014; 변금선, 2018), 그리고 직업계고 혹은 대졸 청년층만을 대상으로 분석하는 등(김성남, 최수정, 2012; 김진모, 전영욱, 류지은, 김영홍, 정지용, 2018; 정민철, 민현주,

5) 본 장은 유현주 연구교수(인하대학교)와 김윤희 부연구위원(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집필하였음.

2024) 특정 집단의 이행궤적을 밝히는 시도가 있었다. 이러한 선행연구들은 청년 STW 이행의 불안정성과 다변화를 확인하고, 이행과정에서 청년들이 마주하는 구조적 어려움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데 기여했다.

다만, 기존의 학교-일자리 이행 결과 활용에는 몇 가지 제한점이 있었다. 첫 번째로, 다수의 연구는 성공적인 일자리 진입에 관심이 크다는 점에서 이행 과정 분석에서도 고용 특성에 더 집중하였다. 고용진입 여부, 고용안정성이나 고용성과 등을 기준으로 이행궤적을 분석하며 이행 과정에 대한 다양성은 크지 않았다. 두 번째로는, 학업 및 직장의 병행과 같은 새로운 형태의 이행이 분석에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 학교-일자리 이행의 과정에서 일학습병행 또한 중요하게 고려되는 경험 중 하나라는 점에서 실제 청년들이 겪게 되는 경로를 포착하기 위해 이를 이행 과정의 하나로 반영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학교-일자리 이행 과정의 장기적 경로를 다시 한번 확인할 필요가 있다. 선행연구에서, 학교-일자리 이행의 장기 이행과정을 밝힌 연구들은 조사 자료의 확보를 위해 과거의 패널자료를 활용하고 있는 것이 대부분이다. 물론, 이와 같은 이행 유형 결과를 그대로 활용할 수도 있겠으나, 최근에 청년층과 관련하여 대두되고 있는 ‘그냥 쉬었음’ 인구 증가, 일-학습병행 확산 등의 이슈를 고려하여 세대적 특수성을 반영한 분석이 필요하다.

이에 따라, 이 연구에서는 KCYPS 2010 자료의 최신 유지조사 결과를 활용하여 고등학교 졸업 이후 청년들이 경험하는 학교-일자리 이행 궤적을 시계열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유형화함에 따라 청년의 성인이행기 경로를 구조적으로 파악하고자 하였다. 특히 학업과 고용, 경력 형성의 변화를 시간 흐름에 따라 추적하여, 청년 이행의 복합적 경로와 공통적 특성을 밝히는 데 집중하였다. 이와 같은 분석은 청년 진로지원 및 고용정책 설계에 실질적인 시사점을 제공할 것이라 기대한다.

이 연구의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청년의 학교-일자리 이행 궤적은 어떠한 양상을 보이는가?

둘째, 청년의 학교-일자리 이행 궤적은 어떠한 유형으로 구조화될 수 있는가?

셋째, 청년의 학교-일자리 이행 궤적 유형은 개인 및 가정 배경 특성에 따라 어떤 차이를 보이는가?

2. 연구 방법

1) 분석자료

이 연구에서는 한국아동·청소년패널 조사(Korean Children and Youth Panel Survey, 이하 KCYPS)를 활용하였다. KCYPS는 3개 코호트(2003~2008년, 2010~2016년, 2018~2024년)에 걸쳐 진행되었으며 각 초1, 초4, 중1을 대상으로 패널 조사가 구축되었다. 이 연구에서는 KCYPS 2010 패널조사 중 중1패널을 활용하였으며 조사대상자들이 성인이 된 이후 시행된 KCYPS 2010 유지조사까지 함께 활용하였다. KCYPS 2010 중1패널은 2010년 당시에는 중학교 1학년에 해당하는 연령(14세)이었고, KCYPS 2010 본조사가 종료된 2016년에는 고등학교를 졸업한 성인이행기 연령이었다. KCYPS 2010 유지조사는 KCYPS 2010 본조사가 종료된 다음해인 2017년부터 유지조사 1차가 실시되었으며 현재 8차 조사까지 시행되었다.

청년의 학교-일자리 이행의 유형을 분석하기 위해 KCYPS 2010 유지조사 8차년도 자료를 모두 활용하였다. 다만, 유지조사의 특성상 응답차수가 길어질수록 응답자의 응답률이 낮아지며 실제로 패널조사를 이탈하거나 응답한 연도가 랜덤한 경우가 많았다. 이와 같은 패널조사의 특성을 고려하여 연구대상을 추출하고, 각 응답값 중 결측치 값을 처리할 필요가 있었다. 이 연구에서는 유사 선행연구를 참고하여(김성남, 최수정, 2012; 김진모 외, 2018; 유현주, 박자경, 민지식, 2021) 결측치가 많은 응답자를 삭제하고, 결측치 값의 일부는 '무응답'으로 코딩하거나 일부는 전년도 데이터를 활용하는 방식으로 조치하였다. 이와 같은 연구 대상 선정 및 자료 보안을 수행한 것은 최대한 많은 응답수를 보장하여 청년의 학교-일자리 이행의 경로를 다양하게 보여주기 위함이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과정은 다음과 같다. 먼저, KCYPS 2010 유지조사 데이터의 1차년도부터 8차년도를 하나의 데이터로 결합하였으며 전체 응답자는 2,351명이었다. 이후, 응답자들이 매년 현재 자신의 이행 현황에 대해 응답한 status 변수를 활용하여, 응답 여부를 확인하였다. 응답 여부에 따라, 8차년도 중 6회 이상 무응답한 경우 id를 삭제하였으며, 6회 이상 응답하였더라도 3~8차년도 중 연속 4회 이상 무응답하였다면 id를 삭제하였다. 만약, 3~8차년도 중 연속 3회 이상 무응답하였다면 id를 삭제하지는 않고, 전년도 응답값을 활용하여 3회 중 첫 1회연도의 응답값을 복제하여 채웠다. 여기까지 처리한 후 남은 응답

값을 연구 대상으로 최종 확정하되, 여전히 무응답값이 다소 남아있는 경우는 전년도 응답값을 복제하여 무응답값을 처리하였다. 다만, 1, 2차년도에 무응답값이 있는 경우, 전년도 응답값을 활용할 수 없기에 “무응답”으로 유지하였다. 최종 분석에 포함된 청년은 총 1,441명이었다.

연구에서 활용된 변인 및 문항에 대한 정보는 다음과 같다. 아래 변수들은 조사 문항을 실제 분석에서 재코딩하여 활용한 결과이다. 개인특성에서는 성별, 고교유형, 대학소재지, 청소년기 만족도, 가정생활 만족도, 삶의 만족도 변수를 활용하였다. 만족도 관련 변수들은 전체 조사 자료의 평균값을 활용하였는데 이는 매년 청년들의 청소년기, 가정생활, 삶에 대한 평가가 차이를 보였기에 평균 만족도 값을 활용하여 전체 조사 기간 동안의 전반적인 태도를 반영하기 위함이었다. 일자리 특성에서는 숙련도와 종사상지위, 일자리 만족도 변수를 사용하였다. 일자리 특성 변수들은 첫 일자리와 8차년도 시점의 현재 일자리로 나누어 숙련도와 종사상지위, 일자리 만족도를 보았으며, 처음으로 일자리 정보에 응답한 시점을 기준으로 첫 일자리 진입연도 변수를 별도로 생성하였다. 다만, 응답자마다 첫 일자리 진입 시점이 상이하며 8차년도 시점의 최신 일자리 시점도 상이하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었으며, 이직 횟수 등은 중요하게 고려하지 않았다. 마지막으로, 가정배경 특성으로는 부모의 최종학력, 교육기대수준, 가구소득, 양육태도, 부모 진로 대화빈도, 성적 및 진로정체감 등의 변수가 있었다. 가정배경 특성은 KCYPS 2010 본조사 마지막 차수 자료를 활용하여 고등학교 3학년 시점의 가정배경을 의미하였다.

표 IV-1. 활용 변수 및 문항

변수명		측정내용
현재신분	status1~ status8	① 학교에 다니고 있고 일은 하지 않고 있다. ② 학교에 다니면서 일도 하고 있다(주된 신분은 학생). ③ 일을 하면서, 학교에도 다니고 있다(주된 신분은 직장인). ④ 일을 하고 있고, 학교는 다니지 않고 있다. ⑤ 학교에 다니지 않고, 일도 하지 않고 있다.
학교정보	schtypek1 ~ schtypek8	① 2년제 전문대학 / ② 3년제 전문대학 / ③ 4년제 대학교 / ④ 5~6년제 대학교 / ⑤ 대학원
개인 특성	성별 gender	① 남성 / ② 여성
	고교유형 sctype	① 일반고 / ② 직업계고
	대학 소재지 xb1aw7	① 서울 / ② 수도권(경기, 인천) / ③ 비수도권
	청소년기 만족도 adosatk1~ adosatk8	과거 청소년기에 대한 만족 수준 ① 전혀 만족스럽지 않았다 ~ ⑤ 매우 만족스러웠다
	가정생활 만족도 famsatk2~ famsatk8	현재 자신의 가정생활에 대한 만족 수준 ① 전혀 만족하지 않는다 ~ ⑤매우 만족한다
	삶의 만족도 satsk1~ satsk8	현재 전반적인 생활에 대한 만족 수준 ① 전혀 만족하지 않는다 ~ ⑤매우 만족한다
일자리 특성	숙련도 occk1~ occk8	① 고숙련 / ② 중숙련 / ③ 저숙련
	종사상 지위 jobposk1~ jobposk8	① 상용직 / ② 임시일용직 / ③ 자영업 / ④ 기타
	일자리 만족도 jobsatk2~ jobsatk8	현재 직장(직업)생활에 대한 만족 수준 ① 전혀 만족하지 않는다 ~ ⑤매우 만족한다
가정 배경 특성	아버지 최종학력 hak2aw6	① 고졸이하 / ② 전문대졸 / ③ 대졸이상
	어머니 최종학력 hak2bw6	① 고졸이하 / ② 전문대졸 / ③ 대졸이상
	교육기대 수준차이 fur1a01w6, fur1a02w6	① 자녀의 기대가 높음 / ② 기대 수준이 같음 / ③ 부모기대가 높음
	과거가구 소득 incomew6	가구 연간 소득(단위: 만원)
	양육태도 (애정) fam2b01w6~ fam2b04w6	자녀 의견 존중, 칭찬 등의 양육 태도 ① 전혀 그렇지 않다 ~ ④ 매우 그렇다
	양육태도 (감독) fam2a01w6~ fam2a03w6	자녀의 위치, 시간, 외출 후 복귀 시점 등에 대한 관리 ① 전혀 그렇지 않다 ~ ④ 매우 그렇다
	주관적 성적평가 int1c01w6~ int1c12w6	과목별 주관적 성적 평가(국어, 수학, 영어 등) ① 매우 못했다 ~ ⑤매우 잘 했다
	부모진로 대화빈도 fur2c01w6, fur2c02w6	(아버지와와의 진로 대화빈도 + 어머니와의 진로 대화빈도)/2
	진로 정체감 psy2d01w6~ psy2d08w6	진로정체감 8개 문항의 평균값

2) 분석 방법

청년의 학교-일자리 이행 유형은 KCYPS 2010 유지조사자료 중 status변수와 schtypek 변수를 결합하여 청년 경력 이행을 의미하는 seq 변수를 생성하여 활용하였다. status변수는 매년 청년의 신분에 대한 응답 결과로, <표 IV-2>와 같이 측정되었으나 seq 변수 생성을 위해 다음과 같이 ① 학생, ② 일학습병행(주:학생신분), ③ 일학습병행(주:재직자신분), ④ 재직자, ⑤ 그냥 쉽 으로 구분하였다. schtypek는 현재 재학중이라면 학교 정보에 대한 응답 결과로, ① 2년제 전문대, ② 3년제 전문대, ③ 4년제 대학, ④ 5~6년제 대학, ⑤ 대학원 등으로 응답하였다. 청년의 학교-일자리 이행은 두 개 변수의 결합을 통해 청년 경력 이행 유형 변수를 생성하였으며, seq 변수는 ① 전문대 학생, ② 대학생, ③ 대학원생, ④ 일학습병행(주:학생신분), ⑤ 일학습병행(주:재직자신분), ⑥ 재직자, ⑦ 그냥 쉽, ⑧ 무응답으로 구분하였다. seq 변수를 구성하는 과정에서, schtypek는 각 학교 유형을 전문대학과 대학, 대학원으로 통합하였다. 또한, 일학습병행의 경우 학교에 대한 정보를 세부적으로 구성하지 않았는데 이는 일학습병행의 응답자가 많지 않아 통합한 것이었다.

표 IV-2. 청년 경력 이행 변수 생성

status	schtypek	seq(청년 경력 이행)	
① 학생	① 2년제 전문대		
② 일학습병행 (주:학생신분)	② 3년제 전문대	① 전문대 학생	⑤ 일학습병행 (주:재직자신분)
③ 일학습병행 (주:재직자신분)	③ 4년제 대학	② 대학생	⑥ 재직자
④ 재직자	④ 5~6년제 대학	③ 대학원생	⑦ 그냥 쉽
⑤ 그냥 쉽	⑤ 대학원	④ 일학습병행 (주:학생신분)	⑧ 무응답

청년 경력 이행 변수 생성 이후, 경력 배열별 유사성 분석을 위해 시퀀스 분석(sequence analysis)을 활용하였다. 시퀀스 분석은 생물학자들이 두 NDA 서열 간의 거리를 분석하여 DNA간의 유사성을 확인하기 위해 고안되었으나(Kruskal, 1983), 최근에는 사회과학 분야에서도 활발하게 활용되고 있다. 시퀀스는 요소들의 순서가 있는 목록

으로 정의될 수 있으며, 각 요소의 위치는 고정되어 시간의 경과나 순서에 따라 정렬된다 (Brzinsky-Fay, Kohler, & Luniak, 2006; Brzinsky-Fay & Kohler, 2010). 이 방법은 각 요소의 배열을 활용하여 연쇄구조를 형성하고 이 연쇄구조에 대해 최적화된 축소를 통해 배열의 특징적 유형을 추출하는 것이다(노법래, 2013). 시퀀스 분석의 단계별 과정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먼저, 시퀀스 배열을 계산하여 시퀀스 플롯의 시각화를 수행하고, 최적일치법(optimal matching)을 통해 얻은 거리 측정값을 이용하여 비교한다. 이는 두 시퀀스 간의 거리를 하나의 시퀀스로 변환하는 데 필요한 연산횟수를 계산하는 방식으로 시퀀스 분석에서 가장 자주 사용된다(Brzinsky-Fay & Kohler, 2010). 이후, 비교 단계 결과를 기반으로 군집분석이나 다차원 척도법과 같은 기법을 사용하여 유사 시퀀스를 그룹화하는 작업을 수행한다(Brzinsky-Fay et al., 2006).

이 연구에서도 청년의 학교-일자리 이행 흐름을 하나의 시퀀스(sequence)로 가정하고 최적일치법을 적용하였으며, 군집분석을 활용하여 학교-일자리 이행 유형화를 실시하였다. 이후, 각 유형의 대표 경로 유형과 상태분포 변화, 전이확률 등을 시각화하여 각 유형에 대한 세부적인 설명을 제시하였다. 이는 개인의 이동 및 이행 상태를 단면적인 상태가 아닌 시계열적인 경로를 정량적으로 분석하여 청년층의 다양한 경력 이행경로를 몇 개의 궤적으로 유형화하여 이해하기 위함이었다. 또한, 다양한 경로의 군집화를 통해 시퀀스의 흐름과 구조를 직관적으로 이해하고 시각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큰 강점이 있었다. 분석을 위해서는 R 4.4.3의 TraMineR Package를 활용하였다. 다음으로는 각 궤적별 청년의 개인특성, 일자리특성, 가정배경 특성에 대해 차이분석을 수행하였으며 STATA 18.0을 활용하였다.

3. 분석 결과

1) 청년의 학교-일자리 이행 경로

8차년도 청년의 학교-일자리 경로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다([그림 IV-1] 참조). 전반적인 경향을 본다면, 청년들은 성인이행기 초기 학업에 집중하는 비율이 높으나 학업종료 및 일학습병행 등의 과정을 통해 자연스럽게 직장으로 이동하고 있다. 초기에는 전문대학 및 대학의 재학 비율이 높으며 2차년도에 들어서면서 일학습병행의 비율이 다소 증가한 것이다. 재직자 또한 2차년도 이후 비율이 급격하게 높아지는 것을 알 수 있으며 그냥

쉽이라고 응답한 청년층의 비율은 2차년도부터 등장하여 8차년도까지 일정 비율이 계속 유지되는 상황임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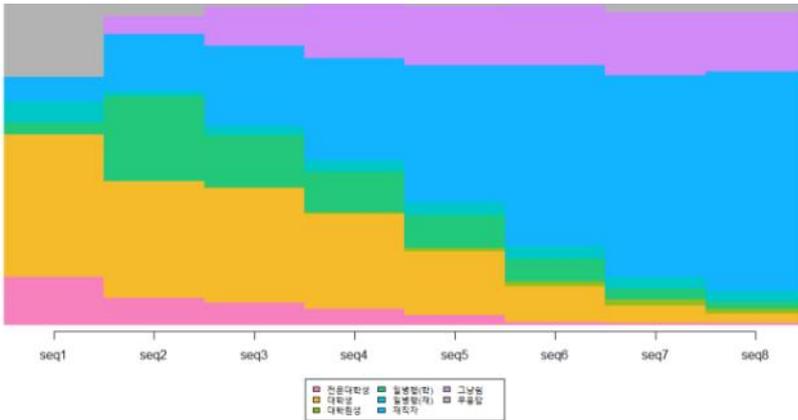


그림 IV-1. 청년의 학교-일자리 이행 상태 변화

청년의 학교-일자리 이행 현황은 <표 IV-3>의 연도별 기술통계를 통해서도 동일하게 확인할 수 있다. 1, 2차년도에는 대학생의 비율이 높았으며 2차년도에 일학습병행의 비율이 상당히 높아진다. 특히 2차년도 일학습병행은 일과 학습을 동시에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주된 신분을 학생으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여전히 학습에 더 집중되어 있는 상태라 추측할 수 있다. 대학생의 비율은 3차년도 이후에도 높지만, 3차년도부터는 재직자의 비중도 점차 높아지는 것을 통해 많은 청년들이 성인 초기부터 일자리로 이행하고 있는 현황을 확인할 수 있다. 재직자의 비중은 8차년도로 갈수록 과반 이상을 차지하며 청년들은 20대 후반 시기 대부분 학업보다는 일에 집중하고 있었다. 다만, 그냥 쉽이라고 응답한 청년들은 4차년도 이후부터 계속 일정 비율을 유지하고 있으며 상당히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이들의 삶에 대한 추가 탐색이 필요하였다.

표 IV-3. 청년의 학교-일자리 이행 현황

(단위: 명(%))

seq	1	2	3	4	5	6	7	8	Total
전문대학생	218 (15.13)	123 (8.54)	102 (7.08)	73 (5.07)	44 (3.05)	15 (1.04)	11 (0.76)	12 (0.83)	598 (5.19)
대학생	635 (44.07)	521 (36.16)	510 (35.39)	426 (29.56)	287 (19.92)	161 (11.17)	78 (5.41)	41 (2.85)	2,659 (23.07)
대학원생	-	-	4 (0.28)	7 (0.49)	15 (1.04)	21 (1.46)	26 (1.8)	20 (1.39)	93 (0.81)
일병행(학)	52 (3.61)	381 (26.44)	236 (16.38)	179 (12.42)	146 (10.13)	98 (6.8)	50 (3.47)	31 (2.15)	1,173 (10.18)
일병행(재)	99 (6.87)	23 (1.6)	41 (2.85)	55 (3.82)	58 (4.02)	61 (4.23)	53 (3.68)	48 (3.33)	438 (3.8)
재직자	109 (7.56)	255 (17.7)	357 (24.77)	456 (31.64)	613 (42.54)	809 (56.14)	902 (62.6)	985 (68.36)	4,486 (38.91)
그냥 씬	-	79 (5.48)	176 (12.21)	240 (16.66)	267 (18.53)	268 (18.6)	280 (19.43)	263 (18.25)	1,573 (13.65)
무응답	328 (22.76)	59 (4.09)	15 (1.04)	5 (0.35)	11 (0.76)	8 (0.56)	41 (2.85)	41 (2.85)	508 (4.41)
Total	1,441 (100)	-							

2) 청년의 학교-일자리 이행 경로 유형

청년의 학교-일자리 이행 상태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군집분석을 실시한 결과, 유사한 이행 경로를 4개의 유형으로 분류하였다. 먼저, 덴드로그램 그래프를 통해 군집 수의 적정성을 확인한 결과 4개의 집단으로 구분하는 것이 가장 타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유형별 분포를 고려했을 때 특정 집단의 비중이 5% 미만으로 떨어지는 소수 집단이 포함되지 않았다는 점에서도 4개 군집으로 유형화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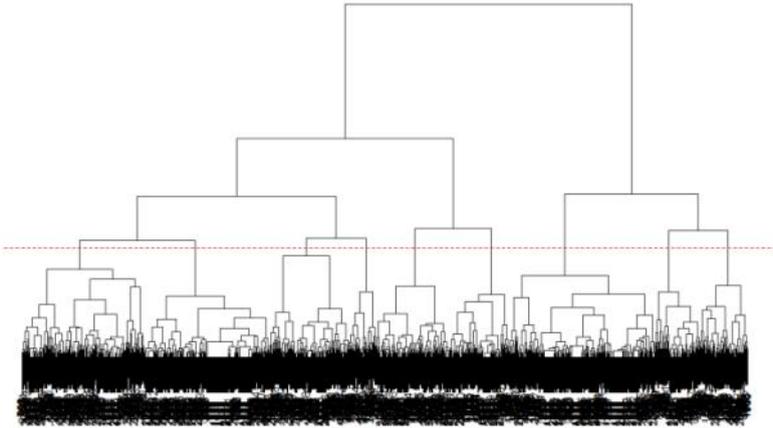


그림 IV-2. 청년의 학교-일자리 이행 경로 유형의 멘드로그램 그래프

군집분석을 통해 청년의 학교-일자리 이행 경로를 유형화 한 결과, 총 4개의 유형으로 구분되었다(그림 IV-3) 참조). 각 유형의 패턴을 고려하여 유형집단의 명칭을 명명한다면 다음과 같다. 첫 번째 집단은 ‘대졸-재직 이행형’으로 전체 유형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유형이었다(48.7%, 703명). ‘대졸-재직 이행형’은 고등학교 졸업 이후 4년제 대학에 진학하여 대학에서 학업에만 집중하거나 혹은 학생 신분으로 일학습병행을 통해 학업을 마치고 자연스럽게 취업을 하는 이행 경로를 보였다. 두 번째 집단은 ‘조기 재직 진입형’으로 20.1%(290명)의 비중을 차지하였다. ‘조기 재직 진입형’은 대부분 전문대학으로 진학하거나 일학습병행을 통해 집약적 학습을 하고 바로 취업하는 유형이다. 세 번째 집단은 ‘학업 지속 후 중단형’으로 18.3%(263명)에 해당하였다. ‘학업 지속 후 중단형’은 1번 집단과 유사하게 대부분 4년제 대학에 진학하였으나, 학업 지속 기간이 상당히 길고 그냥 쉬었다고 응답한 비중이 점차 높아지는 집단이다. 마지막으로, 4번 집단은 ‘전문대 진학 후 일-쉼 반복형’으로 전체 유형 중 가장 비중이 낮았다(12.8%, 185명). ‘전문대 진학 후 일-쉼 반복형’은 전문대학에 진학하였으나 2번집단보다 전문대학에서 학업을 지속하는 기간이 긴 편이며, 이후 취업하는 비중과 그냥 쉬었다고 응답하는 비중이 유사하게 나타나는 특성을 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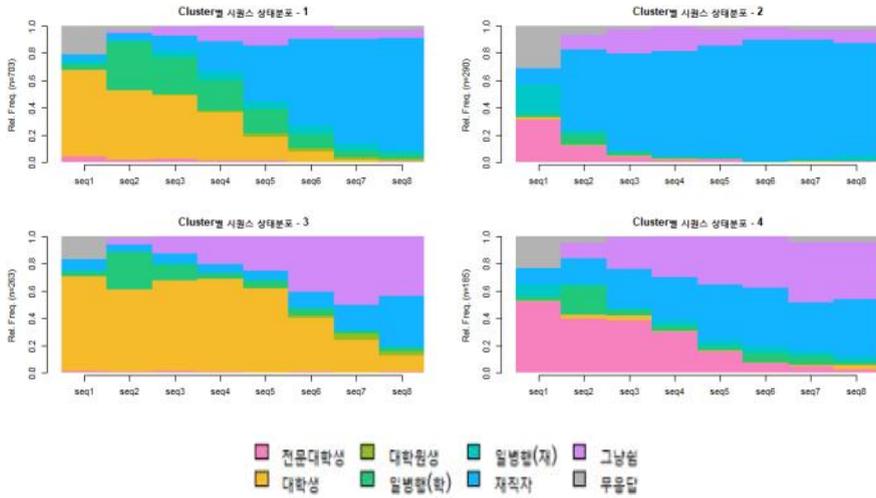


그림 IV-3. 청년의 학교-일자리 이행 유형 결과

각 집단의 특성에 대해 유형별 대표 시퀀스 분석, 상태 분포 변화, 전이 확률 등으로 나누어 본다면 다음과 같다.

(1) Cluster 1_대졸-재직 이행형

유형 1인 대졸-재직 이행형의 대표 시퀀스를 본다면, 청년들은 4년제 대학 재학 후 3, 4차년도를 기점으로 취업하고 재직자가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과 재직 사이에 그냥 쉬 기간을 일부 포함하는 유형도 있으나, 이는 취업을 준비하는 기간이라 해석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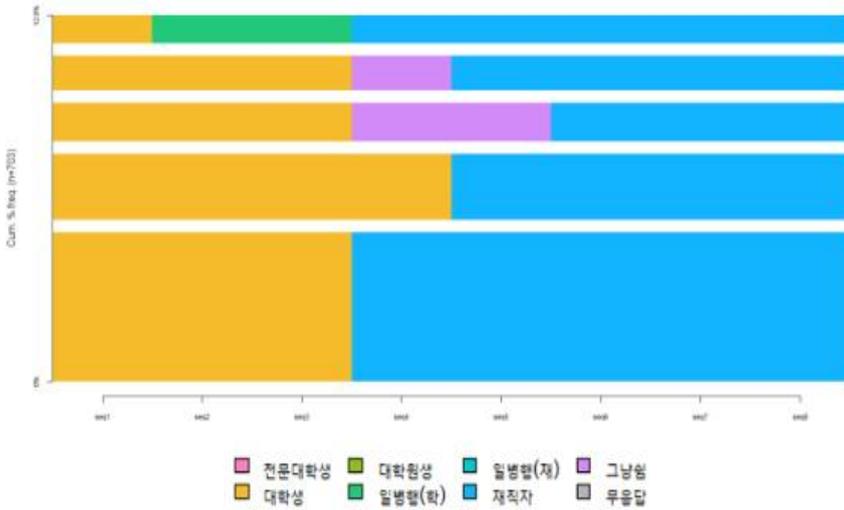


그림 IV-4. 유형 1(대졸-재직 이행형) 대표 시퀀스

유형 1 청년들의 상태분포변화를 본다면, 1차년도에는 대부분이 대학생(63.6%)이며, 전반적인 변화 흐름을 볼 때 ‘대학생→일병행(학)→재직자’, ‘대학생→재직자’ 흐름이 전형적이다. 재직자 비율은 급격히 증가하여 seq1(4.3%)→seq8(81.5%)과 같이 큰 변화를 보인다. 또한, 일학습병행도 중요한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데 seq2(35.3%)로 꽤나 비중이 높으며 이후 점차 감소하며 재직자로 이동하는 것이라 추측할 수 있다. 그냥 쉬었다는 응답자들은 seq4~seq6에서 10~14%이지만, 이후 소폭 감소하는 것을 통해 일시적인 현상이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대학원생 비율은 전반적으로 매우 낮아, 이 유형이 학문적 진로보다는 조기 일자리 진입 경로의 특성을 가진다고 볼 수 있다. 엔트로피 값은 해당 시점에서의 상태 다양성, 즉 경로 혼합도를 의미한다. 값이 높을수록 응답자들의 상태가 다양함을 뜻하는데, 유형 1의 경우 seq1에서 seq5까지는 최대 0.76으로 점차 높아지다가 이후 감소하며 대부분이 재직자로 수렴한다. 이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경로가 안정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표 IV-4. 유형 1(대졸-재직 이행형)의 상태분포변화

state	seq1	seq2	seq3	seq4	seq5	seq6	seq7	seq8
전문대학생	0.040	0.018	0.023	0.016	0.011	0.001	0.001	0.006
대학생	0.636	0.505	0.465	0.349	0.176	0.080	0.019	0.006
대학원생	-	-	0.006	0.010	0.020	0.021	0.019	0.016
일병행(학)	0.043	0.353	0.272	0.223	0.181	0.104	0.048	0.027
일병행(재)	0.027	0.016	0.046	0.064	0.057	0.064	0.054	0.038
재직자	0.043	0.051	0.114	0.225	0.410	0.633	0.762	0.815
그냥 쉽	-	0.020	0.067	0.111	0.141	0.094	0.064	0.060
무응답	0.212	0.037	0.009	0.003	0.004	0.003	0.033	0.033
Entropy Index	0.53	0.58	0.69	0.76	0.76	0.59	0.46	0.38

다음으로, 유형 1의 전이확률을 분석하였다. 전이확률은 시간 변화에 따른 누적 시간 효과, 시간 순서는 고려하지 않지만 시점 간 상태 전이의 확률을 보여주기 때문에, 상태 변화 패턴을 요약적으로 파악하는 데 의미가 있다. 유형 1에서 전이확률이 높은 대표 경로를 몇 가지 본다면, '대학생→일병행'이 0.204, '일병행(학)→재직자'가 0.232로 청년들은 재학 중 학업과 일을 함께 하는 확률이 높으며 그 결과가 취업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재직자→재직자'의 전이확률은 0.842로 상당히 높았는데, 물론 동일한 이행상태를 유지할 확률은 높을 수밖에 없으나, 재직자의 경우 다른 경로보다도 동일한 신분 유지 확률이 상당히 높다는 데 의미가 있었다. 다음으로, '그냥 쉽→재직자'의 전이확률은 0.584로 유형 1의 청년들에게 그냥 쉽의 기간이 단기적인 구직 또는 이직 준비의 성격이 강함을 시사한다. 마지막으로, '일병행(재)→재직자'로의 전이확률이 39.7% 라는 것은 경력 유지를 위해 재직 중 학습을 병행하고 이를 통해 안정적인 직장에 남는 현상을 반영한다. 종합하면, 유형 1의 전이확률 분석은 이 집단이 취업 성공과 재직 유지를 중심으로 경로가 수렴하고 있음을 보여주며, 따라서 '대졸-재직 이행형'은 안정적인 경력 안착형 유형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러한 이동 패턴은 [그림 IV-5]를 통해 다시 확인할 수 있다.

표 IV-5. 유형 1(대졸-재직 이행형)의 전이확률

	1	2	3	4	5	6	7	8
1. 전문대학생	0.205	0.103	0.013	0.41	0.064	0.128	0.077	-
2. 대학생	0.002	0.503	0.008	0.204	0.019	0.178	0.086	0.004
3. 대학원생	0.019	-	0.577	0.077	0.058	0.173	0.096	0.019
4. 일병행(학)	0.013	0.204	0.021	0.412	0.044	0.232	0.074	0.007
5. 일병행(재)	0.022	0.022	-	0.057	0.459	0.397	0.044	0.004
6. 재직자	0.008	0.036	0.001	0.027	0.027	0.842	0.059	0.006
7. 그냥 쉬	0.009	0.098	0.003	0.052	0.043	0.584	0.211	0.009
8. 무응답	0.013	0.412	-	0.451	0.007	0.072	0.046	0.37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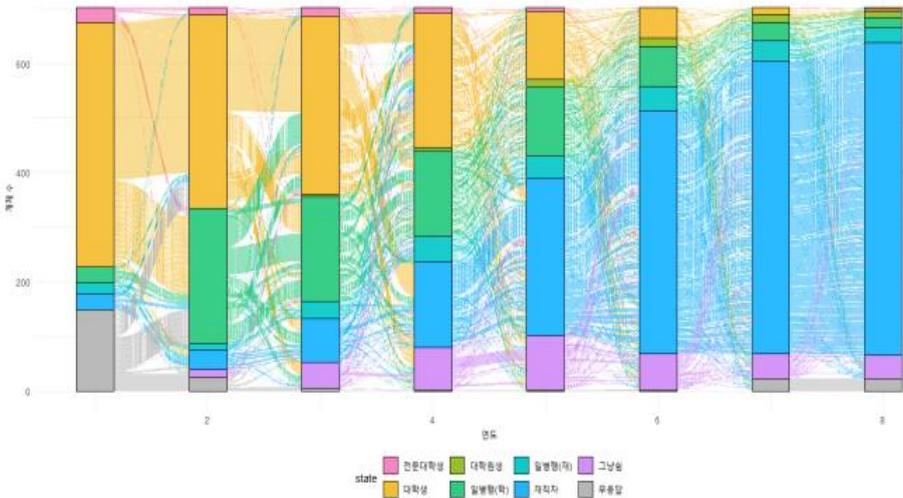


그림 IV-5. 유형 1(대졸-재직 이행형)의 sankey graph

(2) Cluster 2_조기 재직 진입형

유형 2인 조기 재직 진입형의 대표 시퀀스와 연도별 상태 분포 변화는 다음과 같다. 유형 2의 대표 시퀀스를 5개를 본다면, 청년들은 전문대학 졸업 후 재직자가 되거나 일하 습병행을 통해 재직자로 전환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1차년도부터 재직자 신분으로서 일과 학습을 병행하거나 2차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재직자가 되는 것을 통해 유형 1과는 다르게 일자리로의 진입이 성인 이행기 초기에 이뤄지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림 IV-6. 유형 2(조기 재직 진입형) 대표 시퀀스

유형 2 청년들의 상태 분포 변화를 보면, 1차년도에는 전문대학생의 비중이 31%로 가장 높았으며, 2차년도부터는 재직자가 59%로 다수를 차지하였다. 이후 8차년도까지도 재직자의 비중이 안정적으로 유지되어, 대표 시퀀스에서 확인된 것처럼 ‘전문대학생→재직자’ 혹은 ‘일병행(재)→재직자’가 전형적인 흐름임을 알 수 있다. 눈에 띄는 특징은 ‘그냥됨’ 상태가 2차년도부터 등장해 5차년도까지 10~18% 수준을 유지했다는 점이다. 다만 6차년도 이후부터는 해당 비중이 감소하여, 일시적 현상에 그쳤을 가능성이 크다. 유형 2는 유형 1과 마찬가지로 조기 일자리 진입형 경로라는 점에서 유사하지만, 전문대 재학을 기반으로 더 빠르게 노동시장에 진입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엔트로피 값은 1~2차년도에는 다소 높았으나, 3차년도부터 급격히 낮아지며 경로 다양성이 줄고 조기 재직자 신분이 고착화됨을 보여준다. 이는 대부분의 청년들이 빠르게 재직 상태에 안착하면서 이행 경로의 안정화가 비교적 일찍 나타난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

표 IV-6. 유형 2(조기 재직 진입형)의 상태분포변화

state	seq1	seq2	seq3	seq4	seq5	seq6	seq7	seq8
전문대학생	0.310	0.121	0.041	0.021	0.024	-	0.003	0.007
대학생	0.017	0.007	0.0070	0.003	-	-	0.003	-
대학원생	-	-	-	-	-	0.003	-	-
일병행(학)	0.028	0.076	0.024	0.014	-	-	0.003	0.007
일병행(재)	0.214	0.031	0.014	0.007	0.028	0.010	0.014	0.035
재직자	0.117	0.590	0.710	0.766	0.800	0.879	0.872	0.824
그냥 쉬	-	0.107	0.179	0.183	0.124	0.090	0.069	0.093
무응답	0.314	0.069	0.024	0.007	0.024	0.017	0.035	0.035
Entropy Index	0.71	0.64	0.46	0.36	0.34	0.22	0.26	0.33

유형 2의 전이확률 분석 결과, 주요 경로는 모두 재직자로 향하는 흐름을 보였다. ‘전문대학생→재직자’는 53.3%, ‘대학생→재직자’ 경로는 72.7%였으며, ‘일병행(학)→재직자’ 경로는 64.3%, ‘일병행(재)→재직자’ 경로는 73.9%의 전이확률을 보였다. 이는 유형 2 청년들이 학생 또는 일·학습 병행 기간을 비교적 짧게 거친 뒤, 조기에 재직자로 진입하고 그 신분을 안정적으로 유지한다는 특성을 잘 보여준다. 또한, ‘그냥 쉬→재직자’ 경로의 전이확률도 64.8%로 나타나 그냥 쉬를 지속할 확률(0.333)보다 높은 것을 통해 유형 2 청년들의 쉬 상태가 대체로 일시적이라는 점을 시사한다. 즉, 이들은 잠시 휴식기를 거친 후 다시 노동시장에 재진입하는 경향이 강하다. 종합하면, 전이확률 분석은 유형 2가 짧은 학업 이후 장기간 재직 유지라는 특징을 갖고 있음을 다시 확인시켜준다. 특히, 노동시장 진입 이후 재직자 신분이 장기적으로 유지된다는 점에서, 이 유형은 ‘조기 진입 후 안정적 재직 지속형’ 경로로 규정할 수 있다. 유형 2의 이동 패턴은 [그림 IV-7]을 통해 다시 확인할 수 있다.

표 IV-7. 유형 2(조기 재직 진입형)의 전이확률

	1	2	3	4	5	6	7	8
1. 전문대학생	0.220	0.013	-	0.093	-	0.533	0.140	0.007
2. 대학생	-	-	-	-	0.091	0.727	0.182	-
3. 대학원생	-	-	-	-	-	1	-	-
4. 일병행(학)	0.190	-	-	0.024	0.024	0.643	0.119	-
5. 일병행(재)	0.011	-	-	-	0.130	0.739	0.120	-
6. 재직자	0.004	0.001	0.001	0.004	0.017	0.883	0.091	0.010
7. 그냥 쉽	0.009	-	-	0.005	0.005	0.648	0.333	0.009
8. 무응답	0.143	0.020	-	0.153	0.020	0.551	0.112	0.44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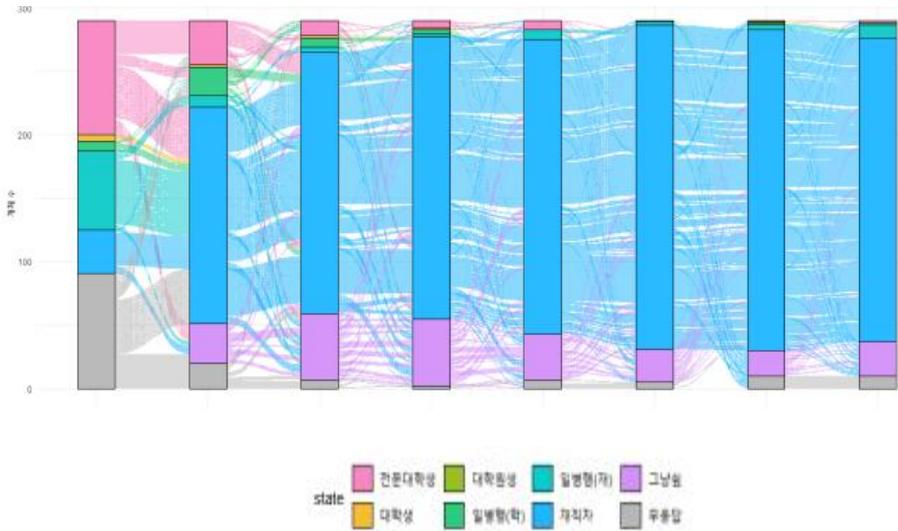


그림 IV-7. 유형 2(조기 재직 진입형)의 sankey graph

(3) Cluster 3_학업 지속 후 중단형

유형 3의 대표 시퀀스에서, 청년들은 4년제 대학 재학 후 약 5차년에 취업하는 경우가 가장 많았다. 다만, 대학 재학 및 일학습 병행을 반복하다가 그냥 쉬었다고 응답하는 유형의 비중이 상당히 높은 것을 통해 학업 과정에서의 문제가 있거나 혹은 학업-일자리 이행의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었던 것을 추측할 수 있었다. 또한, 유형 ③은 전체 청년 집단의 18.3%를 차지하여, 유형 ②(20.1%)와 유사한 비중을 보였다. 이는 학업지속 후 중단경험이 단순히 일부 청년만의 특수한 경험이 아니라, 적지 않은 청년들이 공통적으로 겪을 수 있는 전환기 현상이라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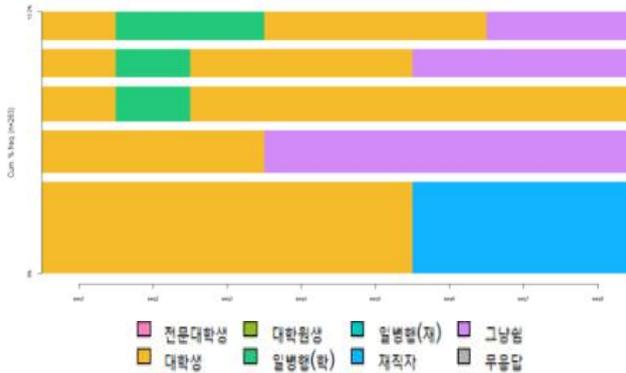


그림 IV-8. 유형 3(학업 지속 후 중단형) 대표 시퀀스

상태분포변화를 본다면, 1차년도에는 대부분이 대학생(69.2%)이며 5차년도까지 60% 이상을 유지하다가 8차년도에는 12% 정도로 감소한다. 1차년도에 대학생의 비중이 높았던 유형 1과 비교해 볼 때, 유형 3의 청년들은 대학생의 신분을 유지하는 기간이 훨씬 더 긴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2·3차년도에는 각각 27.4%, 11.4%가 일학습병행 상태에 있어, 대학 재학 중 일 경험을 시도하는 경우가 많았음을 확인할 수 있다. 반면, 대학 재학 비중이 감소하는 seq6~seq8에서 재직자의 비중은 11%에서 37% 수준으로만 유지되어 유형 1 및 유형 2와 비교해 볼 때 일자리로의 이행 속도와 규모가 현저히 낮았다. 특히, ‘그냥 쉬’ 상태는 4차년도에 20.5%로 급증하였고, 7차년도에는 과반을 넘어서며 중요한 특징으로 나타났다. 이는 단순히 학업-일자리 이행에 어려움을 겪은 결과일 수

있으나, 동시에 현 자료에 포함되지 않은 다른 삶의 형태(예: 돌봄, 비공식 활동, 개인적 사정 등)를 경험하고 있었을 가능성도 추정된다. 종합하면, 유형 3은 ‘대학생→재직자’ 유형도 있지만, ‘대학생→일병행(학)→그냥 쉽’, ‘대학생→그냥 쉽’의 비중이 높은 것이 특징적이다. 엔트로피 값 역시 1차년도에서 8차년도에 갈수록 증가하여, 청년들이 유사한 패턴으로 수렴하기보다는 학업·재직·쉽 등 다양한 상태를 개별적으로 경험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따라서 유형 ③은 학업과 일자리만의 이분법적 틀로는 설명하기 어려운 경로를 보이며, 이들의 경력 형성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보다 세밀한 후속 분석이 필요하다.

표 IV-8. 유형 3(학업 지속 후 중단형)의 상태분포변화

state	seq1	seq2	seq3	seq4	seq5	seq6	seq7	seq8
전문대학생	0.015	0.008	0.011	0.004	-	0.004	-	0.004
대학생	0.692	0.605	0.665	0.681	0.616	0.399	0.240	0.122
대학원생	-	-	-	-	0.004	0.015	0.046	0.030
일병행(학)	0.030	0.274	0.114	0.042	0.053	0.046	0.015	0.023
일병행(재)	0.008	-	0.011	-	0.008	0.011	0.015	0.015
재직자	0.088	0.049	0.068	0.068	0.065	0.118	0.179	0.365
그냥 쉽	-	0.049	0.129	0.205	0.255	0.407	0.506	0.441
무응답	0.167	0.015	-	-	-	-	-	-
Entropy Index	0.47	0.51	0.51	0.44	0.50	0.61	0.61	0.61

유형 3의 전이확률 분석 결과, 학업 및 일자리로의 이동 경로가 다양하게 나타났다. 먼저, ‘일병행(학)→대학생’ 경로는 0.503으로 나타나 대학 재학 중 일과 학습을 병행할 가능성이 높은 것을 확인하였다. ‘일병행(학)→재직자’ 경로는 상대적으로 전이확률이 낮은 것을 통해 유형 3의 청년층은 일학습 병행이 일자리 이동으로 이어지기 어려웠다는 점을 보여주었다. 다음으로, ‘전문대학생→재직자’, ‘일병행(재)→재직자’ 경로의 전이확률도 각각 0.273, 0.571로 나타나, 학업을 마친 뒤 혹은 재직 상태에서 학업을 병행한 후 직장으로 이동하는 경우가 적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유형 3 청년들이 다른 유형에 비해 일자리 진입 과정에서 다양한 경로를 구성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그러나 ‘그냥 쉽→그냥 쉽’ 전이확률은 0.669로 상당히 높게 나타나, 한 번 쉽 상태에 들어가면 장기간 그 상태가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실제로 ‘그냥 쉽→재직자’

전이확률은 0.275에 불과하여, 쉽 기간이 단순한 구직 준비나 이직 대기라기보다 구직 단념이나 심리적 위축과 같은 취약성을 반영했을 가능성이 있다. 이는 유형 1 및 2와 뚜렷한 대조를 이룬다. 유형 1과 2의 경우 '그냥 쉽'은 학업과 일자리 사이에서 일시적으로 나타나는 과도기적 현상이었으나, 유형 3에서는 '그냥 쉽'의 비중과 지속성이 높아 청년들의 불안정성이 구조적으로 드러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유형 3 청년들의 경력 경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이행 패턴만이 아니라 '쉽' 상태의 맥락을 심층적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다.

표 IV-9. 유형 3(학업 지속 후 중단형)의 전이확률

	1	2	3	4	5	6	7	8
1. 전문대학생	0.091	0.273	-	0.182	-	0.273	0.182	-
2. 대학생	0.002	0.665	0.011	0.078	0.005	0.074	0.165	-
3. 대학원생	-	-	0.471	0.235	-	0.176	0.118	-
4. 일병행(학)	0.013	0.503	0.02	0.225	0.007	0.040	0.192	-
5. 일병행(재)	0	0.143	-	-	0.143	0.571	0.143	-
6. 재직자	-	0.186	-	0.066	0.03	0.443	0.275	-
7. 그냥 쉽	0.005	0.123	0.007	0.025	0.005	0.167	0.669	-
8. 무응답	0.023	0.705	-	0.182	0.023	0.045	0.023	0.09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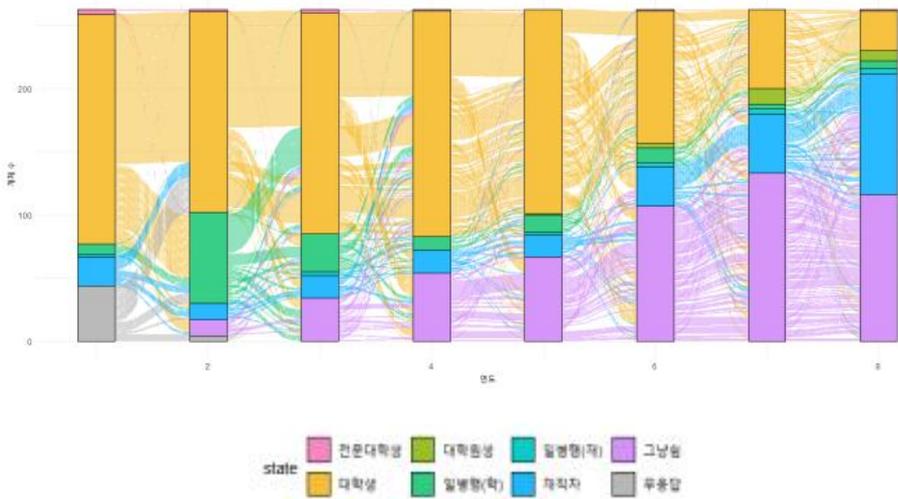


그림 IV-9. 유형 3(학업 지속 후 중단형)의 sankey graph

(4) Cluster 4_전문대 진학 후 일-쉼 반복형

유형 4인 전문대 진학 후 일-쉼 반복형의 대표 시퀀스를 5개를 본다면, 청년들은 전문대 학 졸업 후 재직자가 되거나 그냥 쉬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대학 재직 시기는 3, 4차 시기까지 유지되고 그 이후로 일자리로 이동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일부는 전문대학 졸업 이후 그냥 쉬었거나 혹은 성인기 초기부터 그냥 쉬었다고 응답하기도 하였다.



그림 IV-10. 유형 4(전문대 진학 후 일-쉼 반복형) 대표 시퀀스

상태 분포 변화를 살펴보면, 1차년도에는 전문대학생의 비중이 가장 높았으며(51.9%), 동시에 이미 재직자라고 응답한 비율도 11.9%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유형 4에는 전문대 재학생뿐 아니라 고등학교 졸업 직후 취업한 청년들도 함께 포함되어 있음을 추측할 수 있다. 전문대학생의 비중은 1차년도부터 4차년도까지 지속적으로 높은 수준을 유지했으며, 재직자의 비중은 이후 꾸준히 증가하였다. 그러나 유형 1이나 2처럼 8차년도에 재직자 비중이 과반을 넘은 것과 달리, 유형 4는 8차년도 재직자 비중이 41.6%로 과반에 이르지 못했다. 또한, 유형 4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 중 하나는 ‘그냥 쉬’ 응답자의 비중이 점차 확대된다는 점이다. 2차년도에는 11.4%에 불과했으나, 이후 꾸준히 증가하여 8차년도에는 42.2%에 달했다. 특히 7차년도부터는 재직자보다 ‘그냥 쉬’ 상태 청년의 비중이 더 높아지면서, 이 유형이 안정적인 경력 유지보다는 불안정하고 반복적인 전환을 경험하는 집단임을 보여준다. 이러한 양상은 유형 3과 유사하게, 청년들이 실제로 어떤 삶의 맥락 속에 놓여 있는지에 대한 추가적 탐색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엔트로피 값을 살펴보면, 유형 4는 1차년도부터 8차년도까지 전반적으로 높은 수준을 유지하였다. 이는 청년들의 삶의 패턴이 특정 경로로 수렴하기보다는, 재직·학업·쉼 사이에서 지속적으로 변화와 분화를 반복하는 형태임을 의미한다.

표 IV-10. 유형4(전문대 진학 후 일-습 반복형)의 상태분포변화

state	seq1	seq2	seq3	seq4	seq5	seq6	seq7	seq8
전문대학생	0.519	0.395	0.384	0.297	0.157	0.070	0.049	0.027
대학생	0.005	0.027	0.032	0.005	0.005	-	0.005	0.027
대학원생	-	-	-	-	-	0.005	0.005	0.005
일병행(학)	0.032	0.211	0.043	0.038	0.027	0.070	0.060	0.022
일병행(재)	0.087	0.016	0.011	0.043	0.043	0.054	0.038	0.038
재직자	0.119	0.189	0.286	0.314	0.411	0.422	0.357	0.416
그냥 쉽	-	0.114	0.232	0.297	0.351	0.373	0.443	0.422
무응답	0.238	0.049	0.011	0.005	0.005	0.005	0.043	0.043
Entropy Index	0.62	0.75	0.68	0.67	0.63	0.63	0.65	0.62

전이확률 분석 결과, 높은 확률을 보이는 대표 경로는 상당히 다양하게 나타났다. 먼저, '일병행(학)→전문대학생', '일병행(학)→재직자', '전문대학생→재직자'의 전이확률은 각각 0.315, 0.236, 0.211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유형 4의 청년들은 전문대 재학 중 일학습 병행을 통해 학업으로 복귀하거나 직장으로 이동하는 등 경로가 다채롭게 전개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재직자 신분으로 일학습병행을 경험한 경우에도 재직자로 남을 확률이 0.463으로 비교적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일과 학습을 병행하는 과정이 직장 내 경력 유지로 이어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다음으로, '그냥 쉽'과 관련된 전이확률을 살펴보면, '그냥 쉽→재직자'는 0.227, '그냥 쉽→그냥 쉽'은 0.609, '재직자→그냥 쉽'은 0.285로 나타났다. 즉, 단순히 쉽 상태를 장기간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과 동시에, 재직과 쉽 사이를 반복적으로 오가는 경향이 존재함을 알 수 있다. 실제로 [그림 IV-11]에서도 '그냥 쉽→재직자', '재직자→그냥 쉽' 패턴이 서로 교차하며 반복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이는 유형 4 청년들이 일과 쉽을 병행하는 특성을 잘 보여준다. 종합하면, 유형 4는 전반적으로 경로의 불안정성이 두드러지지만, 동시에 다양한 경력 흐름을 보여주는 집단으로 해석할 수 있다. 다만, 전문대 재학 기간이 상대적으로 길어지는 현상과 '그냥 쉽' 상태의 확대에 대해서는 보다 정밀한 추가 분석이 필요하다.

표 IV-11. 유형 4(전문대 진학 후 일-습 반복형)의 전이확률

	1	2	3	4	5	6	7	8
1. 전문대학생	0.535	0.003	-	0.091	0.032	0.211	0.129	0.012
2. 대학생	0.067	0.200	-	0.200	0.067	0.333	0.133	-
3. 대학원생	-	-	-	0.500	-	-	0.500	-
4. 일병행(학)	0.315	0.034	0.011	0.236	0.022	0.236	0.146	-
5. 일병행(재)	-	0.037	0.019	0.074	0.296	0.463	0.111	-
6. 재직자	0.044	0.008	0.003	0.026	0.026	0.609	0.285	0.005
7. 그냥 쉽	0.045	0.003	-	0.018	0.015	0.227	0.692	0.012
8. 무응답	0.239	0.130	-	0.239	-	0.217	0.174	0.43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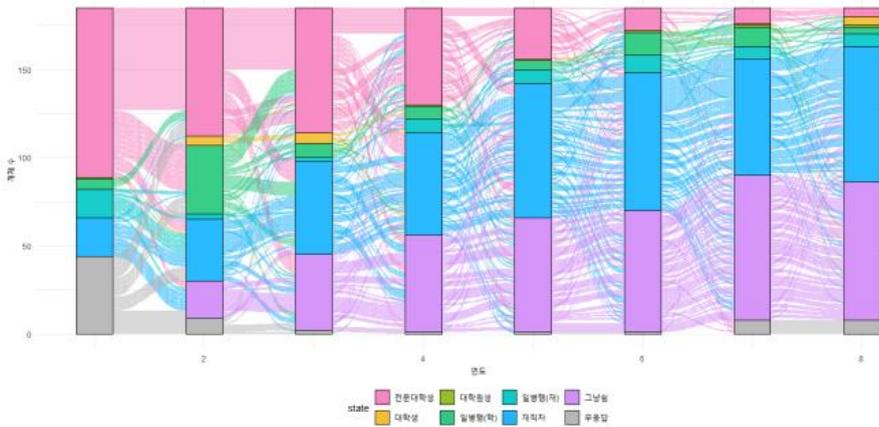


그림 IV-11. 유형 4(전문대 진학 후 일-습 반복형)의 sankey graph

3) 청년의 학교-일자리 이행 유형 특성 분석

청년의 학교-일자리 이행 유형에 대해 이해하기 위해 추가로 차이 분석을 수행하였다. 유형별로 개인적 특성, 일자리 특성, 가정배경 특성으로 나누어 분석을 수행하였다. 먼저, 개인적 특성 분석은 성별, 고교유형, 만족도 등의 요인에 대해 각 유형별 차이 분석을 수행하였다. 대부분의 유형에서 남녀 비율은 비슷한 수준이었으나 유형1은 여성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고 유형 4는 남성 비율이 가장 높았다. 고교 유형의 경우 유형 1과 유형 3은 거의 모든 청년층이 일반고 졸업자였으며 유형 2와 유형 4는 상대적으로 직업계고 졸업자의 비중이 높았다. 최종학력에서는 유형 1과 유형 3의 대다수가 대졸자였으며 유형

2는 고졸자와 전문대졸자의 비중이 비슷하였고, 유형 4는 전문대졸자의 비중이 가장 높았다. 최종 졸업 대학의 소재지를 비교해 본 결과, 서울 소재 대학 졸업자의 비중은 유형 3에서 가장 높았다. 위 결과를 종합해보면, 각 유형의 특성은 교육 이수 관련 배경이 충분히 반영된 결과라 볼 수 있다. 유형 2와 유형 4의 청년층은 직업교육을 이수한 후 바로 취업을 하거나 혹은 고등직업교육을 선택하며 전문대학 졸업 후 일자리 이행을 선택한 것이다. 유형 1과 유형 3은 교육 이수 배경이 거의 유사하였으나, 유형 1에 해당하는 청년층의 비중이 가장 높다는 점에서 대부분은 대학 졸업 후 일자리로 자연스럽게 이동하지만 유형 3과 같이 일부 청년층은 대학 졸업 후 일자리 이행이 중단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교육 배경만으로는 유형 간 차이를 설명하기 어렵다는 점을 시사하며, 특히 유형 3은 대졸자 비율이 높고 수도권 소재 대학 출신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경력 형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보여준다. 다음으로, 청년층의 청소년기 만족도, 가정생활 만족도 평가 결과 유형 1과 3의 만족도가 가장 높았으며, 유형 2와 유형 4의 만족도는 상대적으로 낮았다. 삶의 만족도 평가 결과에서는 유형 1의 만족도가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유형 3, 2, 4의 순서였다. 특히 유형 3의 경우, 가정생활 만족도 평균은 높은 편이지만 상대적으로 삶의 만족도는 낮아, 가정환경이 아닌 다른 요인들로 인해 삶의 기대가 충족되지 못했음을 추측할 수 있었다.

표 IV-12. 유형별 개인 특성 차이 분석 결과

		유형1 대졸-재직 이행형	유형2 조기 재직 진입형	유형3 학업지속 후 중단형	유형4 전문대진학 후 일-습 반복형	총계	χ^2
성별	남성	320(46.65)	146(52.71)	136(52.51)	106(58.06)	708(50.46)	9.739*
	여성	366(53.35)	131(47.29)	123(47.49)	75(41.44)	695(49.54)	
고등학교 유형	일반고	602(91.35)	152(57.14)	235(95.14)	115(66.09)	1,104(82.02)	209.311***
	직업계고	58(8.65)	114(42.86)	12(4.86)	59(33.91)	242(17.98)	
최종 학력	고등학교	-	133(45.86)	-	27(14.59)	160(11.10)	1.1e+03***
	전문대	64(9.10)	133(45.86)	4(1.52)	126(68.11)	327(22.69)	
	대학	568(80.80)	22(7.59)	239(90.87)	26(14.05)	855(59.33)	
	대학원	71(10.10)	2(0.69)	20(7.60)	6(3.24)	99(6.87)	
대학 소재지	서울	83(14.82)	24(17.78)	38(20.21)	16(13.79)	161(16.12)	32.995***
	수도권	76(13.57)	40(29.63)	21(11.17)	27(23.28)	164(16.42)	
	비수도권	401(71.61)	71(52.59)	129(68.62)	73(62.93)	674(67.47)	

		유형1	유형2	유형3	유형4	F	사후검정
청소년기 만족도	Mean	3.61	3.42	3.63	3.45	5.91***	a > d. c > b
	SD	.775	.809	.823	.806		
가정생활 만족도	Mean	4.01	3.86	4.03	3.87	4.76**	a > b
	SD	.666	.705	.706	.728		
삶의 만족도	Mean	3.60	3.46	3.47	3.38	7.21***	a > b, d
	SD	.615	.683	.718	.694		

일자리 특성 차이 분석 결과는 다음 <표 IV-13>과 같다. 일자리 특성은 첫 일자리의 특성과 현재 일자리 즉, 가장 마지막으로 가졌던 일자리의 특성으로 숙련도, 종사상 지위, 진입연도, 만족도 등을 비교 분석하였다. 먼저, 첫 일자리를 본다면 유형 3은 고숙련 직종 진입 비중이 가장 높았고(38.75%), 유형 1 또한 고숙련 일자리 비중이 높은 편이었다(32.07%). 반면, 유형 2와 4는 저숙련 직종에서 첫 경력을 시작한 경우가 많았다(각 16.34%, 25.55%). 이는 각 유형의 최종학력 배경과 밀접하게 연결된 결과라 해석할 수 있다. 첫 일자리 종사상 지위는 모든 유형에서 상용직 진입 비중이 가장 높았으며, 유형 4는 상용직 진입 비중이 가장 높고(67.25%) 유형 1은 가장 낮았다(57.04%). 첫 일자리 구직기간을 본다면 각 유형마다 진입 시점이 상이한 것을 알 수 있다. 첫 일자리 구직기간은 고등학교 졸업 시점을 기준으로 첫 일자리 입직까지 몇 년이 소요되었는지를 의미하는데, 고졸 및 전문대졸 학생의 비중이 높았던 유형 2는 2.3년으로 가장 짧았으며 대학 재학 기간이 긴 유형 3은 4.25년으로 가장 길었다. 또한, 유형 1은 대졸자 위주의 특성을 갖고 있으며, 유형 4는 전문대졸 졸업자의 비중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두 개 유형의 첫 일자리 구직기간 평균 연한은 3.26년으로 동일하였다. 이는 유형 1의 경우 대학 재학 중 일학습병행 등을 통해 졸업 전 초기 경력을 쌓은 반면, 유형 4는 전문대 졸업 이후 '그냥 쉽' 기간이 길어졌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첫 일자리 만족도 분석 결과에서는 유형 1의 일자리 만족도가 가장 높았으며(3.53), 유형 4의 만족도가 가장 낮았다(3.22).

현재 일자리를 기준으로 본다면, 유형 1과 유형 3은 고숙련 직종 종사 비중이 가장 높으며 첫 일자리보다 비중이 더 증가하였다(각 47.08%, 45.83%). 유형 2와 유형 4도 첫 일자리와 비교해볼 때 고숙련 직종 재직 비중이 높아졌으나 여전히 저숙련 직종의 종사 비중이 가장 높았다(각 46.15%, 40.54%). 종사상 지위의 경우 모든 유형에서 상용직 재직 비중이 가장 높았으며, 특히 유형 1의 상용직 재직 비중이 가장 높았다(81.47%).

표 IV-13. 유형별 일자리 특성 차이 분석 결과

		유형1 대졸-재직 이행형	유형2 조기 재직 진입형	유형3 학업지속 후 중단형	유형4 전문대진학 후 일-습 반복형	총계	χ^2
첫일자리 숙련도	고숙련	178(32.07)	42(16.34)	62(38.75)	35(25.55)	317(28.58)	34.985***
	중숙련	120(21.62)	81(31.52)	41(25.62)	36(26.28)	278(25.07)	
	저숙련	257(46.31)	134(52.14)	57(35.62)	66(48.18)	514(46.35)	
현재 숙련도	고숙련	218(47.08)	45(24.73)	44(45.83)	27(36.49)	334(40.98)	61.482***
	중숙련	157(33.91)	53(29.12)	32(33.33)	17(22.97)	258(31.78)	
	저숙련	88(19.01)	84(46.15)	20(20.83)	30(40.54)	222(27.24)	
첫일자리 종사상 지위	상용직	397(57.04)	178(61.38)	134(62.62)	115(67.25)	824(60.10)	10.539
	임시일용직	271(38.94)	99(34.14)	72(33.64)	49(28.65)	491(35.81)	
	자영업 기타	17(2.44) 11(1.58)	11(3.79) 2(0.69)	6(2.80) 2(2.92)	5(2.92) 2(1.17)	39(2.84) 17(1.24)	
현재 종사상 지위	상용직	387(81.47)	145(77.96)	74(76.29)	57(77.03)	663(79.69)	19.047*
	임시일용직	59(12.42)	17(9.14)	18(18.56)	10(13.51)	104(12.50)	
	자영업 기타	22(4.63) 7(1.47)	22(11.83) 2(1.08)	5(5.15) -	7(9.46) -	56(6.73) 9(1.08)	

		유형1	유형2	유형3	유형4	F	사후검정
첫일자리 진입연도	Mean	3.26	2.30	4.25	3.26	56.41***	c > a, d > b
	SD	1.577	1.166	2.360	1.764		
첫일자리 만족도	Mean	3.53	3.43	3.42	3.22	5.29**	a > d
	SD	.929	.936	.935	.874		
현일자리 만족도	Mean	3.43	3.25	3.34	3.35	1.07	-
	SD	.925	.913	.934	.858		

반면, 유형 2는 타 유형 대비 자영업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았고(11.83%), 유형 3은 임시일용직의 비중이 높았다(18.56%). 일자리 만족도에서는 대부분의 유형이 첫 일자리 만족도 대비 낮아지는 경향을 보였는데, 유형 4에서만 일자리 만족도가 소폭 상승하였다(3.22→3.35). 유형 1은 첫 일자리보다는 만족도는 다소 낮아졌지만 여전히 가장 높은 수준(3.43점)을 유지하였다.

마지막으로, 가정배경 특성의 차이 분석 결과는 <표 IV-14>와 같다. 가정배경에 대한

정보는 대부분 청년층들이 고등학교 3학년 시점에 응답한 결과이며 성인 이후 응답 결과가 없기에 과거의 정보를 활용하였다. 부모님의 교육배경을 본다면, 유형 1과 3은 아버지가 대졸자인 경우가 가장 많았던 반면, 유형 2와 4는 아버지가 고졸이하의 교육배경을 갖는 경우가 과반을 차지하였다. 어머니의 최종학력은 유형 1, 2, 4 모두 고졸이하라는 응답이 절반 이상이었으나, 유형 3은 대졸이상이라는 응답이 과반 이상으로 가장 높았다. 교육기대 수준을 비교해본다면, 유형 1과 3은 부모와 자녀 모두 기대 수준이 동일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과반 이상이었으며(각 51.92%, 55.13%), 자녀가 부모보다 더 높은 기대를 갖는 경우도 많았다. 반면, 유형 2와 4는 부모의 기대가 더 높다는 응답이 많았다(각 42.76%, 40.00%). 이 결과를 각 유형의 최종학력과 연결해 본다면, 대부분의 부모가 자녀의 대학 진학을 기대했음에도 유형 2와 4 청년들의 최종학력이 고졸 또는 전문대졸에 머문 것은 이미 고교 시절부터 부모 기대 수준과 실제 진학 성과 간의 괴리가 있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가구소득 분석 결과에서는 유형 3의 가구소득이 평균 5,500만원으로 가장 높았으며 유형 2가 가장 낮았다. 부모님의 양육태도의 경우, 유형 1과 3은 애정과 감독이 공존하는 양육태도가 두드러졌으나, 유형 2와 유형 4는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을 보였다. 자신의 고교 성적에 대한 평가는 유형 3이 3.36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유형 2와 유형 4는 낮았다. 부모님과의 진로 관련 대화 빈도는 유형 1에서 가장 높았고, 진로정체감은 유형 3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유형 ③ 청년들은 부모의 학력·소득 지원과 함께 진로 대화, 진로정체감 측면에서도 상대적으로 유리한 환경에 있었으며, 이는 이들의 진로 목표와 의사결정 자신감이 크다는 점을 보여준다.

표 IV-14. 유형별 가정배경 특성 차이 분석 결과(고3 시점)

		유형1 대출-재직 이행형	유형2 조기 재직 진입형	유형3 학업지속 후 중단형	유형4 전문대진학 후 일-습 반복형	총계	χ^2
아버지 최종학력	고졸이하	238(37.66)	136(58.62)	70(29.91)	81(51.92)	525(41.87)	61.728***
	전문대졸	60(9.49)	28(12.07)	32(13.68)	19(12.18)	139(11.08)	
	대졸이상	334(52.85)	68(29.31)	132(56.41)	56(35.90)	590(47.05)	
어머니 최종학력	고졸이하	302(47.34)	167(70.17)	103(42.39)	106(65.84)	678(52.97)	66.667***
	전문대졸	90(14.11)	31(13.03)	31(12.76)	16(9.94)	168(13.12)	
	대졸이상	246(38.56)	40(16.81)	109(44.86)	39(24.22)	434(33.91)	
교육기대 수준차이	자녀기대 ↑	213(30.30)	94(32.41)	76(28.90)	38(20.54)	421(29.22)	121.975***
	기대 동일	365(51.92)	72(24.83)	145(55.13)	73(39.46)	655(45.45)	
	부모기대 ↑	125(17.78)	124(42.76)	42(15.97)	74(40.00)	635(25.33)	

		유형1	유형2	유형3	유형4	F	사후검정
과거가구 소득	Mean	5096.24	3974.84	5500.82	4638.93	19.63***	a, c > b, d
	SD	2352.102	2429.577	2590.905	2288.583		
양육태도 -애정	Mean	3.08	2.95	3.12	3.01	5.70***	a, c > b, d
	SD	.512	.546	.592	.513		
양육태도 -감독	Mean	3.15	3.03	3.19	2.99	7.51***	a, c > b, d
	SD	.555	.582	.560	.573		
주관적 성적평가	Mean	3.24	2.99	3.36	2.95	24.18***	c > a > b, d
	SD	.644	.610	.622	.571		
부모진로 대화빈도	Mean	3.27	3.08	3.19	3.17	5.57***	a > b, c, d
	SD	.643	.728	.675	.746		
진로 정체감	Mean	3.08	2.95	3.11	2.97	5.09**	a > b, c > b
	SD	.574	.598	.595	.581		

각 유형별 일자리 이행 특징과 개인, 일자리, 가정배경 특성을 요약해본다면 다음과 같다.

표 IV-15. 유형별 특성 종합

	유형1 대졸-재직 이행형	유형2 조기 재직 진입형	유형3 학업지속 후 중단형	유형4 전문대 진학 후 일-습 반복형
비중	48.7%(703명)	20.1%(290명)	18.3%(263명)	12.8%(185명)
일자리 이 행 특징	일반고 → 대졸 → 안정적 재직	직업계고 → 고졸/전문대 → 빠른 취업	일반고 → 대학 → 학업 지속 후 쉽	직업계고+일반고 혼합 → 전문대졸 多 → 일과 습 반복
개인	일반고 비중 높음, 대졸자/대학원 진학 多	직업계고 비중 매우 높음, 고졸·전문대졸 多	일반고 비중 높음, 대졸자 多	직업계고 비중 다소 높음, 전문대졸 多
일자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첫·현재 모두 고속련·중속련 직종 비율 높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첫·현재 직업 모두 저속련· 상용직 비율 높음 • 현재 직업의 자영업 비율도 비교적 높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첫직업은 고속련/중속련 • ‘그냥 쉽’ 전환 비율 높음 • 첫일자리 진입 연도 늦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첫직업·현재 직업 모두 저속련/중속련 비율 비슷 • 상용직 비율 보통
가정배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모 학력·소득 높음 • 양육태도 애정·감독 높음 • 진로정체감, 부모진로대화빈 도, 삶의만족도 전반적으로 높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모 학력·소득 낮음 • 부모의 교육기대 수준 높은편 • 청소년만족도, 삶의 만족도, 부모진로대화빈 도 낮음 • 진로정체감 가장 낮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모 학력·소득 높음 • 양육태도 애정·감독 높음 • 주관적 성적평가, 진로정체감 높음 • 삶의 만족도는 1유형보다 낮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모 학력·소득 중간 • 청소년기 만족도, 진로정체감 보통 • 삶의만족도 낮음

4. 결론 및 제언

1) 결론

이 연구는 고등학교 졸업 이후 청년들이 경험하는 학교-일자리 이행 궤적을 시계열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유형화함으로써 청년의 경력이행 경로를 밝히는 데 목적이 있다. 분석에는 KCYPS2010 패널의 8차년도 유지조사 자료를 활용하였으며,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청년의 학교-일자리 이행 경로 분석 결과, 성인 초기에는 대부분 대학에 진학하며, 3차년도 이후부터 일자리로의 이행 비중이 점차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다. 고등학교 졸업 직후 바로 일자리에 진입하거나 전문대학에 진학하는 비중은 상대적으로 낮아, 청년층의 대학 진학이 여전히 보편적인 선택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일부 청년들은 대학 재학 중 일-학습병행 제도나 인턴십을 통해 직무 경험을 쌓으며, 교육과 직업 세계를 연결하였고, 이는 조기 일자리 진입의 준비 단계로 작용하며 이후 재직으로의 전환을 원활히 하는데 기여한 것으로 보인다. 20대 후반으로 갈수록 재직 상태를 유지하는 비중이 절반을 넘어서면서, 청년들이 대부분 이 시기에 교육을 마치고 일자리로 성공적으로 이행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일정 비율의 청년들은 ‘그냥 쉬’ 상태를 지속하고 있었는데, 이들은 교육도 일도 수행하지 않는 상태로 병역·건강·가정 사정 등으로 인한 일시적 중단일 가능성이 있었다. 다만, 이들이 어떤 상태에 있는지 현 자료만으로는 명확히 파악하기 어려워 보다 면밀한 탐색이 필요하였다.

둘째, 이행 경로를 기준으로 청년들을 유형화한 결과 총 4개의 집단이 도출되었으며, ① 대졸-재직 이행형, ② 조기 재직 진입형, ③ 학업 지속 후 중단형, ④ 전문대 진학 후 일-쉬 반복형으로 명명하였다.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①유형은 고교 졸업, 4년제 대학 진학 후 안정적으로 일자리로 이행한 청년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체의 약 절반(48.7%)에 해당하였다. 이는 한국 사회에서 여전히 ‘고등학교→ 대학 진학→취업’이라는 전형적 경로가 가장 보편적인 이행 방식임을 보여준다. ③유형은 대학에 진학하였지만 졸업 이후 일자리 진입이 지연되거나 단절된 경우가 많았으며, 이는 졸업 이후 경력개발의 어려움과 구조적 제약을 반영하는 결과로 해석된다. ②유형은 고등학교 또는 전문대 졸업 후 빠르게 노동시장에 진입하여 일정 기간 재직 상태를 유지한 청년들로, 중등 및 고등 직업교육을 기반으로 한 실용적인 경력 경로를 보여준다. 마지막으로 ④유형은 전문대

졸업 이후 재직과 쉬를 반복하며 경력경로의 연속성이 다소 불안정한 모습을 보였다. 이들은 일정 기간 재직 후 휴식을 가지거나 이직·전직 등을 고려하며 경력 궤적의 유연성을 확보하려는 것이라 해석할 수 있다. 이처럼, 각 유형은 유사한 교육 배경을 공유함에도 불구하고 상이한 경력이행 경로를 보이고 있었다. 이는 청년의 이행 경로가 단순히 교육 수준이나 일자리 진입여부만으로는 설명될 수 없으며, 그 안에 다양한 개인적, 구조적 요인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셋째, 각 유형별 특성을 개인, 일자리, 가정 배경 특성으로 나누어 분석한 결과, 청년의 이행 경로는 다양한 사회적·심리적 요인에 따라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선 개인적 특성 측면에서는 고교 유형, 최종 학력, 성별, 만족도 등이 유형 간 차이를 보였다. 유형 ①과 ③은 일반고-4년제 대학 경로가 공통적으로 나타났으나, 유형 ①은 안정적인 경력을 형성한 반면, ③은 일자리 진입이 지연되는 양상이었다. 유형 ②와 ④는 직업계고 또는 전문대학 졸업자의 비중이 높았다. 성별의 경우, 병역으로 인해 남성 비중이 높을 것이라 예상된 유형 ③과 ④에서도 남녀 비율이 유사하게 나타나, 장기 재학이나 경력 중단의 원인이 병역 외의 다른 요인일 가능성을 추측할 수 있었다. 만족도 항목에서는 유형 ③이 청소년기 및 가정생활 만족도가 높았음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인 삶의 만족도는 상대적으로 낮아, 불만족스러운 삶의 배경이 존재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유형 ②는 재직 지속성이 높았음에도 삶의 만족도가 낮았다는 점에서, 경력의 안정성과 주관적 만족도가 반드시 비례하지 않음을 보여준다. 종합하면, 교육 수준이 높을수록 이행 경로가 안정적인 가능성이 크지만, 동일한 교육 배경을 지녔더라도 이후 경력의 연속성과 만족도는 상당한 차이를 보였으며, 이는 교육 외 요인의 중요성을 부각시킨다.

일자리 특성 분석에서는 첫 일자리와 현재 일자리를 기준으로 숙련도, 종사상 지위, 일자리 진입연도, 만족도 등을 살펴보았다. 유형 ①과 ③은 첫 일자리에서 고숙련 직종 진입 비율이 높았고, 현재 일자리에서도 그 비중이 더 증가하였다. 두 유형의 차이점은 진입 시점에 있었다. 유형 ①은 첫 일자리 진입 시점이 평균 3.26년으로 짧았는데, 이는 재학 중 일학습병행 등을 통해 조기 일자리 경험을 축적한 결과로 해석된다. 유형 ③은 학업을 지속했지만 졸업 이후 일자리 진입이 지연되었거나, 진입 후에도 연속적인 경력형성에 어려움을 겪었을 가능성이 있다. 대졸 유형들과는 달리, 유형 ②는 첫 일자리부터 저숙련 비중이 높고 현재 일자리에서도 그 비중이 크게 줄지 않았다. 특히, 일자리 만족도도 첫 일자리 보다 낮아져, 빠른 일자리 진입에도 불구하고

성장 정체, 경력 발전의 한계, 직무 적합성 부족 등이 작용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유형 ④는 유형 ②와 마찬가지로 직업교육 트랙을 이수하였지만, 전문대 졸업 후 재직과 비재직을 반복하며 전반적으로 경력 연속성이 낮은 특성을 보였다. 일부 응답자에서 쉽 이후 재진입한 일자리의 만족도가 상승하기도 했으나, 이를 곧바로 ‘더 나은 일자리로의 이동’으로 단정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 집단은 불안정성을 지니면서도 일정 부분 변화 가능성이 열려 있는 집단으로 해석할 수 있으며, 이들의 긍정적 이행을 촉진할 필요가 있었다.

가정 배경 특성에서는 부모의 교육 수준, 교육 기대, 가구 소득, 양육 태도, 진로 대화 빈도, 진로 정체감 등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유형 ①과 ③은 부모의 교육수준과 가구 소득이 상대적으로 높았고, 애정과 감독이 공존하는 양육 태도를 보였으며, 부모와의 진로 관련 대화도 활발하였다. 특히 유형 ①은 진로정체감과 삶의 만족도 모두 높은 경향을 보여, 가정으로부터의 정서적·심리적 지원이 경력 이행의 안정성과도 연결되어 있음을 보여주었다. 반면, 유형 ②와 ④의 청년들은 유형①과 ③에 비해 부모의 학력과 가구 소득 수준이 낮은 경우가 많았으며, 부모의 교육 기대가 자녀보다 높은 경향을 보였다. 이러한 가정 배경은 진학 선택에도 영향을 미쳐, 이들이 일반계고보다 직업계고에 진학하거나, 4년제 대학보다 전문대학을 선택하는 경향으로 이어졌을 가능성이 있다. 즉, 상대적으로 짧은 교육 기간과 낮은 유보임금은 자연스럽게 조기 노동시장 진입으로 연결되었으며, 이는 유형①, ③과 같은 4년제 대학 기반의 경로와는 구조적으로 다른 이행 맥락으로 이해할 수 있다. 따라서 유형②와 ④의 조기 노동시장 진입을 단순히 개인의 의지나 가정의 경제적 부담 때문으로만 해석하기보다는, 가정 배경이 교육 경로 선택에 영향을 주었고, 그 결과로 노동시장 진입 시점이 앞당겨졌다는 구조적 맥락에서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는 동일한 시점에 노동시장에 진입했다더라도, 교육수준이나 경로 등에 따라 초기 일자리 질과 만족도, 경력 안정성에서 차이가 나타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종합적으로 유형별 특이점과 해석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유형 ①(대졸-재직 이행형)의 경우, 견고한 사회·경제적 자본의 이점을 잘 활용한 유형으로 볼 수 있다. 즉, 단순히 개인의 능력만으로 안정적인 경력 경로를 구축했다고 볼 수는 없다. 높은 부모 학력 및 소득, 그리고 애정과 감독의 양육 태도는 이들에게 단순한 경제적 지원을 넘어, ‘진로 정체성’을 형성하고 ‘진로 대화’를 통해 불확실성을 해소하는 데 도움을 주는 사회적·심리적 자본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미 갖춰진 안정적인 환경 속에서 학업과 진로

탐색을 병행하며, 첫 일자리 진입 시점이 빠르다는 점에서 인턴십이나 일-학습병행과 같은 실용적인 경험을 대학 재학 시기부터 적극적으로 활용했을 가능성을 확인하였다. 결과적으로 유형 ①의 안정적인 경력은 개인의 노력과 더불어 탄탄한 가정 배경이라는 ‘구조적 혜택’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

유형 ②(조기 재직 진입형)는 ‘일단 취업’의 양면성과 정체된 성장으로 해석된다. 이 유형의 경우, 빠른 일자리 진입은 자발적인 선택이라기보다 다양한 환경적 특성이 작용한 결과일 수 있다. 비록 조기에 노동시장에 진입하여 재직을 지속했지만, 낮은 삶의 만족도는 직면한 일자리의 질적 문제와 직결될 수 있다. 특히, 첫 일자리와 현재 일자리 모두 저숙련 직종의 비중이 높고 만족도가 하락했다는 점은, 이들의 경력 경로가 수평적 이동이나 정체된 상태에 머물러 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즉, ‘빠른 취업’이라는 성과 뒤에 경력 정체, 낮은 직무 만족도, 제한된 발전 가능성이 존재함을 보여준다.

유형 ③(학업 지속 후 중단형)의 경우, ‘그냥 쉬’와 심리적 취약의 위험성을 추론해볼 수 있다. 이는 유형 ①과 유사한 높은 가정 배경과 교육 수준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안정적인 일자리로 이행하지 못하고 ‘그냥 쉬’ 상태에 진입하는 경우가 특징적이다. 이러한 현상은 개인의 역량 부족만으로 설명하기보다는, 구직 시장의 경직성, 장기화되는 채용 절차 등 구조적 요인과 개인의 역량·준비 수준 차이가 복합적으로 작용했을 가능성이 있다. 특히 높은 학력과 가정의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했다는 심리적 부담 또한 이들에게 작용했을 수 있으며(Belle, Antwi, Ntim, Affum-Osei, & Ren, 2022), 이는 유형 ①보다 낮은 삶의 만족도로 이어졌을 가능성이 있다. 즉, 유형 ③ 청년들은 높은 사회적 지위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경력 초기 전환기에서 구조적 제약·개인적 불확실성·심리적 부담이 함께 작용하면서 경력 형성이 지연되거나 중단되는 복합적 취약성을 경험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유형 ④(전문대 진학 후 일-쉬 반복형)의 불안정한 경력 경로는 단순히 ‘부정적인 이행’으로만 해석되지 않는다. 이들은 중간 수준의 부모 학력 및 소득, 그리고 청소년기의 만족도, 진로정체감이 보통 수준을 보였다. 이는 다소 비슷한 양상을 보였던 유형 ②에 비해 사회적·심리적 자본이 부족하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경험한 일자리 만족도의 소폭 상승은 단순히 더 나은 일자리를 획득한 결과라기보다, 불안정한 상황 속에서 기대 수준을 조정하고 현재 조건에 적응한 결과일 가능성이 크다. 실제로 이들의 삶의 만족도는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어, 불안정성이 여전히 핵심적 특징임을

보여준다. 다만, 일과 쉼을 반복하는 경로를 단순한 실패로 보기보다는 청년들이 경력 전환기를 통해 재정비하며 새로운 가능성을 탐색하려는 과정일 수 있다는 점에서, 제한적 이나마 긍정적 해석의 여지도 남아있다. 이는 전통적인 ‘수직적 경력 사다리’ 대신, 개인의 만족도와 적합성을 우선시하는 ‘유연한 경력 네트워크’를 구축하려는 시도로도 이해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청년의 이행 경로는 개인의 학력과 학교 유형뿐 아니라, 초기 일자리의 질, 그리고 가정에서 제공되는 사회적·심리적 자원과 깊은 관련이 있으며, 이러한 복합적 요인의 상호작용이 청년의 경력형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동일한 교육 수준과 배경을 갖고 있음에도 이행 경로가 다르게 나타나는 현상은 단순한 학력이나 진입 시점보다는 전환기 과정 속 선택과 맥락의 차이에 주목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2) 제언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청년 진로지원 및 고용정책 설계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경력중단 및 진입 지연 청년 대상 통합적 지원 체계 강화가 필요하다. ‘학업 지속 후 중단’ 유형과 같이 고등교육을 이수했음에도 졸업 및 취업이 지연되며, 학교-일자리 이행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들은 경력 형성 단절과 더불어 삶의 만족도도 낮은 경향을 보였다. 고등교육을 이수했음에도 불구하고 졸업 및 취업이 지연되는 청년층은 학교에서 일자리로의 이행 과정에서 구조적 어려움에 직면한다. 이들은 경력 형성이 지체되면서 삶의 만족도가 낮아지고, 심리적 불안과 사회적 소외감을 경험하기 쉽다. 이들의 어려움이 개인의 진로 역량 부족에서만 기인한다고 보기보다는, 노동시장의 경직성·장기화되는 구직 준비·채용 구조의 불합리성 등 구조적 요인을 복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는 해당 청년들이 구조적·심리적으로 복합적인 취약 상황에 처해 있음을 시사한다. 이들을 위해 대학 졸업 이전부터 진로 설계와 경력 준비에 대한 체계적인 개입이 필요하며, 졸업 이후에도 경력 공백 청년을 위한 맞춤형 취업 지원, 진로 재설계 상담, 심리적 지원 등 다차원적인 지원이 제공되어야 한다. 특히, 이러한 문제는 개인의 진로 역량 부족에서만 기인하는 것이 아니라, 채용 시장의 경직성, 구직 준비 장기화 등 구조적 문제의 영향도 크다.

특히 국가데이터처(2025)에 따르면 대졸 청년층의 첫 취업까지 소요되는 기간은 지속

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비경제활동인구 내에서 취업시험 준비자의 비중 또한 확대되는 추세이다. 이는 학교-일자리 이행에서 개인적 배경이나 능력만을 기준으로 청년 고용 문제를 바라보기보다는, 노동시장 환경 전반과 제도적 구조를 함께 고려해야 함을 시사한다. 이러한 노력을 위해서는 가정과 사회적 차원의 인식변화가 동반되어야 할 것이다. 가정에서 부모는 자녀의 청소년기 진로 선택에 있어 대학 진학의 결과 중심적 기대보다는 진로 및 적성 탐색 과정을 격려해야 할 것이며, 대학 진학 및 취업에 대한 심리적 압박을 경감시키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사회적 차원에서도 고졸 및 전문대학 졸업에 대한 인식 개선과 함께 다양한 경력 경로를 가지있게 인정하는 문화가 필요할 것이다. 이러한 인식 변화를 기반으로, 학교-일자리 이행의 공백기에 대한 사회적 이해와 수용성 확대, 심리적 부담 완화를 위한 정책적 배려가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청년층의 학교-일자리 이행 지연은 개인적 문제가 아니라 구조적·사회적 요인과 복합적으로 맞물린 현상이다. 따라서 정책은 진로 설계 지원, 심리적 돌봄, 노동시장 제도 개선, 사회 인식 변화 등 다층적 접근을 기반으로 설계되어야 한다. 특히, 가정-학교-사회-국가의 역할 분담을 통해 청년들이 안정적으로 첫 경력을 쌓고, 삶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

둘째, 직업교육 이수 청년들의 질적 성장 경로를 확보하기 위한 맞춤형 전략이 필요하다. ‘조기 재직 진입형’ 청년들은 일자리 이행을 성공적으로 완료한 듯 보이지만, 이들의 일자리 질 및 주관적 만족도는 낮은 수준이었다. 이는 단순히 일자리에 진입했다는 사실만으로 해당 청년의 경력 경로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기 어렵다는 점을 보여준다. 또한, 빠른 취업 후 저숙련 직종에 머무르지 않고, 청년들이 더 나은 일자리로 이행할 수 있는 체계적 성장 지원이 함께 제공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한편, 현재 직업교육을 이수한 청년들을 위해 선취업 후진학, 일학습병행제 등 후속 정책 및 지원이 제도적으로 마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유형의 청년들은 제도를 충분히 활용하지 않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정보 접근성 부족, 제도에 대한 인식 미흡, 혹은 개인적인 상황 등 개인 차원의 제약 뿐 아니라, 중소기업 중심의 구조적 한계와 경력개발 기회의 부족 등 노동시장 구조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일 수 있다. 따라서 해당 유형 청년들의 경력개발 방법으로 학업 외의 다른 전략을 추가로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즉, 제도 자체의 존재보다, 이를 실제로 청년이 활용할 수 있도록 정보 전달 경로 강화, 참여 동기 부여, 청년 친화적 플랫폼 구축이 우선되어야 한다.

이와 함께, 청년들의 경력개발은 개인의 자기주도적 노력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며, 기업 차원의 역할 강화가 병행되어야 한다. 구체적으로 기업은 내부 교육·훈련 인프라 확충, 직무 단계별 경력개발 로드맵 제시, 학습시간 보장 등을 통해 청년들이 조직 안에서 성장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야 한다. 또한, 일정 수준의 경력을 쌓은 이후에는 성인 대상 경력전환 지원 프로그램과 직무 인증 연계 학습 과정을 확대하여 산업 간 이동을 원활하게 하고, 이직·재교육 시 생활비를 보전하는 제도적 장치도 필요하다. 이와 함께, 청년들의 경력개발은 개인의 자기주도적 노력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며, 기업 차원의 역할 강화가 병행되어야 한다. 구체적으로 기업은 내부 교육·훈련 인프라 확충, 직무 단계별 경력개발 로드맵 제시, 학습시간 보장 등을 통해 청년들이 조직 안에서 성장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야 한다. 또한, 일정 수준의 경력을 쌓은 이후에는 성인 대상 경력전환 지원 프로그램과 직무 인증 연계 학습 과정을 확대하여 산업 간 이동을 원활하게 하고, 이직·재교육 시 생활비를 보전하는 제도적 장치도 필요하다.

특히, 일과 쉼을 반복하는 청년들을 위해 유연한 경력설계를 지원하는 방안이 요구된다. 예를 들어, 커리어 포트폴리오 지원 체계를 구축하여 플랫폼 노동자들에게 세무·법률 자문, 프로젝트 기반 일자리 매칭, 경력 포트폴리오 컨설팅 등을 제공한다면 불안정성을 줄일 수 있다. 동시에 워라밸 친화형 기업 인증제, 청년 근로자 정신건강 프로그램, 커리어 브레이크 후 복귀 프로그램 등을 통해 지속가능한 경력 유지와 삶의 질 제고를 도모할 수 있다.

궁극적으로는 직업교육 이수 청년이 ‘빠른 취업’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지속 가능하고 성장 가능한 경력 경로를 구축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정책의 핵심 목표가 되어야 한다. 이는 개인, 기업, 사회, 국가가 함께 책임을 분담해야 실현 가능한 과제이며, 청년이 노동시장 안에서 이동성·안정성·발전 가능성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데 초점이 맞추어져야 한다.

세 번째로, ‘그냥 쉬’ 청년을 위한 지원과 다층적 개입이 필요하다. 분석 결과, 일부 청년들은 경력 이행 과정에서 그냥 쉬거나, 혹은 휴직과 이직을 반복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중 일부는 일자리로 재진입 후 일자리 만족도가 증가하기도 하였으나 전반적으로 단기직, 이직 반복 등을 통해 불안정한 경력 경로를 형성할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었다. 실제로, 한국은행(2024)의 분석에 따르면, ‘비자발적 쉬었음’ 인구가 증가하고 있으며, ‘쉬었음’ 상태에서 재취업 성공 확률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추세이다. 이는 청년들

이 장기적으로 취약계층으로 전이될 위험성을 시사한다.

따라서, 단순한 재취업 지원을 넘어선 유연하고 단계적인 재진입 정책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리턴십 프로그램을 통한 일터 복귀 기회, 맞춤형 직업상담 및 심리 상담 서비스, 비자발적 실업 청년 대상 자활형 프로그램이 마련되어야 한다. 더 나아가, 기업 차원에서도 경력 공백 인식 개선 캠페인, 재취업자 친화적 채용 제도, 탄력적 근무제 도입 등을 통해 청년들이 불안정한 상태에서 다시 안정적인 일자리로 진입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또한, 공백기 동안 역량이 퇴화하지 않도록 단기 학습 바우처, 온라인 재훈련 플랫폼을 제공하여 경력 지속성을 보장하는 것이 중요하다.

넷째, 청년들의 학교-일자리 이행 경로를 이해할 때 COVID-19의 맥락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자료의 조사 시점에는 팬데믹 시기(2020~ 2022년)가 포함되어 있으며, 이 시기 청년층은 대학 졸업과 첫 일자리 입직을 팬데믹과 동시에 경험하였다. 당시 팬데믹으로 인해 대학의 비대면 수업 전환, 대외활동 및 인턴십 기회 축소는 청년들의 취업 준비 경험 부족과 일자리 진입 지연으로 이어졌다. 또한, COVID-19로 인한 경기 침체 및 채용 축소는 신규 청년 채용을 직접적으로 위축시키기도 했다. 이미 노동시장에 진입했다 라도, 팬데믹 당시 격리 및 비대면 근무, 가정경제 악화, 생계 부담심화 등으로 청년층의 삶의 만족도가 저하되고, 경력 형성 및 유지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 팬데믹은 종료되었지만, 학교-일자리 전환이라는 중요한 시기에 심리적·사회적 성장 기회가 일시적으로 차단되었던 경험은 청년 세대의 경력 이행을 설명하는 데 중요한 변수이다. 따라서 이들의 경력 단절이나 낮은 삶의 만족도는 단순한 개인의 미비로 환원해서는 안되며, 사회·경제적 외생변수의 영향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 향후 정책 설계와 연구 분석에서는 팬데믹의 세대별 장기 영향을 체계적으로 규명하고, 청년들의 심리적 회복·경력 회복탄력성 강화를 위한 장기적 지원책을 병행할 필요가 있다. 예컨대, 팬데믹 세대 청년들을 위한 심리적 치유 프로그램, 회복탄력성 교육, 맞춤형 경력 재설계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단순한 일자리 제공을 넘어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연구의 제한점을 바탕으로 몇 가지 제언을 한다면 아래와 같다. 먼저, 이 연구는 청년들의 일자리 질을 충분히 평가하기 어려운 구조적 한계가 존재한다. 직장 이행과 관련하여 일자리를 기준으로 청년들의 현황과 성과를 파악하고자 하였으나, 숙련도 및 종사상 지위, 만족도 정보만이 제공되고 있어 일자리의 질에 대한 평가를 하기에 제한점이 있다. 더 나아가, 직장 내 경력개발 기회, 학습·훈련 제공 여부, 조직문화 등

청년의 장기적 성장 가능성을 평가하는 지표가 부재하다는 점도 중요한 한계로 지적될 수 있다. 특히 ‘괜찮은 일자리(Decent Work)’의 판단에 핵심이 되는 임금 수준, 고용 형태, 복지 혜택, 근무시간, 고용안정성 등의 객관적 지표가 부족하다는 점은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는 데 제약으로 작용할 수 있다. 향후 조사에서는 일자리와 관련된 보다 구체적인 항목이 수집되어야 한다. 이를 통해 청년들이 진입한 일자리가 단순한 고용 여부를 넘어 생계 유지, 경력 개발, 삶의 질 향상까지 아우를 수 있는 ‘지속가능한 일자리’인지 평가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수 있다.

두 번째로, 청년들의 학교-일자리 이행 경로를 장기 추적할 필요가 있다. 이 연구에서는 유지조사 데이터 전체를 활용하였으나, 분석에 사용된 8차년도 패널은 청년들의 20대 후반까지만의 경로를 반영하고 있어 20대 후반에 재직자가 된 청년들의 경력 형성을 충분히 파악하기 어렵다. 즉, 청년들의 경력 경로 이행에 대해 심층적으로 이해하고 해석하기 위해서는 조사 문항의 확대와 장기간의 패널 조사 자료 유지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경력 안정성, 이직 및 승진, 가족 형성 등을 추가 조사하고, 30대 이후의 경로까지 추적 가능한 조사체계 유지와 추가 패널원 확보 등의 전략을 고려할 수 있다. 또한, 동일 세대를 오랜 기간 추적하는 방식뿐만 아니라, 다른 세대와 비교 가능한 코호트 연구를 병행한다면 청년 세대별 경력 이행 특징과 시대적 차이를 더 명확히 규명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청년들의 가정 배경 분석 시 고등학교 3학년 시점의 정보만을 활용하였다는 한계가 있다. 해당 시기는 진로 결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시점이지만, 청년기의 진로 형성과 경력 이행은 장기간에 걸쳐 영향을 받는 과정이므로, 고등학교 재학 당시의 가정 상황과 학교-일자리 이행 과정을 연결하기에는 제한점이 있다. 성인이 된 이후 가정의 경제적 상황 변화, 가족 내 위기 발생, 부모의 지지와 통제의 변화 등 다양한 요소들이 새롭게 작용할 수 있으며, 이는 청년의 학업 및 경력 경로 전반에 걸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향후 분석에서는 성인기 이후의 가정 배경 변화까지 포착할 수 있는 조사 항목의 확대가 필요하다. 더 나아가, 가정 요인뿐 아니라 또래집단·멘토·지역사회 네트워크와 같은 ‘비가정적 사회 자본’의 영향을 포함한다면, 청년 경력 이행의 사회적 맥락을 더욱 입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은 데이터는 청년의 경력 이행을 보다 입체적으로 이해하고, 청년 개인이 처한 사회적 자본 및 지지망의 지속성을 평가하는 데 중요한 근거가 될 수 있다.

넷째, ‘그냥 쉬’ 상태에 대한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 현재 ‘그냥 쉬’ 상태로 분류된

청년들은 학업도, 직업도 수행하지 않는 상태에 있으나, 그 이면에는 다양한 맥락과 배경이 존재할 가능성이 높다. 단순히 이들을 하나의 범주로 분류하기보다는, 자발적인 쉬인지, 비자발적인 쉬인지를 구분할 필요가 있다. 또한 쉬게 된 배경과 기간, 그동안의 활동 내용과 쉬 기간 동안의 정서적 상태까지 파악되어야 한다. 현재 자료에서는 관련 정보가 충분히 수집되지 않고 있어, 이들을 ‘그냥 쉬’이라는 단일한 상태로만 해석하는 것은 정책 설계와 지원에 있어 큰 제약이 있다. 향후 연구에서는 양적 분석과 더불어, 심층 인터뷰·사례조사 등 정성적 연구를 병행하여 ‘쉬’ 상태의 동기와 맥락을 밝히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자발적 쉬와 비자발적 쉬를 구분하고, 각 경우가 이후 경력 경로와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명확히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분석은 ‘쉬’ 상태가 항상 취약성을 의미하는 것인지, 혹은 재정비의 기회가 될 수도 있는지를 구분하게 하며, 보다 정교한 청년 정책 설계를 가능하게 할 것이다. 특히, 쉬 이후 재진입 청년의 성공·실패 사례를 체계적으로 수집·분석한다면, 향후 정책은 ‘쉬를 통한 회복과 재도약’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진화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이 연구는 몇 가지 방법론적 한계를 가진다. 먼저, 결측치를 단순 대체 방식으로 처리한 점은 학교-일자리 이행의 불안정성을 과소 추정할 위험이 있다. 이 연구에서는 8차년도 데이터와 결합 및 코딩하는 과정에서 일부 응답이 누락된 시점을 전년도 데이터로 대체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몇 가지 기준을 적용하여 대체하였다. 이 과정에서 일정한 기준을 적용하였으나, 이러한 방식이 응답자의 실제 경력 현황을 온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한계가 존재한다. 예컨대, 특정 시점에서 실직이나 ‘쉬’ 상태로 전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연도에 응답하지 않은 경우, 전년도와 동일하게 ‘재직’ 상태로 분류되어 실제보다 안정적인 경로로 나타날 수 있다. 이는 데이터 처리 과정에서 불가피한 한계이지만, 향후 연구에서는 추가 패널 확보를 통해 동일 분석을 반복하거나, 8차년도 응답자만을 대상으로 분석 방법을 조정하는 등 보완적 접근이 필요하다.

또한, 청년의 성인기 관련 특성을 고려한 다채널 시퀀스 분석을 추가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 연구에서는 단일 채널 시퀀스 분석을 통해 학교-일자리 이행 경로를 파악하였으며, 학업 관련 경로는 비교적 세부적으로 포착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방식은 학업 경로를 상대적으로 더 강조하는 결과를 낳았으며, 동시에 성인기에 나타나는 다양한 변화(예: 일자리 이동, 지역 이동 등)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향후 연구에서는 학업뿐 아니라 일자리 등 성인기의 주요 변화 특성을 함께 고려하는 다채널

시퀀스 분석을 수행할 필요가 있다. 단순히 학업·고용 경로에 국한하지 않고, 청년기의 중요한 전환점으로 작용하는 지역 이동이나 직무 이동과 같은 요인까지 함께 분석한다면, 청년의 경력 형성을 보다 입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이번 연구는 제한된 자료 환경 속에서 단일 채널 분석을 적용한 기초적 시도이지만, 장기적으로는 다양한 정보가 축적될수록 청년 경력 경로를 보다 정밀하게 설명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이다.

○ ————— 제5장 초기 성인기 역할 이행이 청년의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

-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2. 이론적 배경
- 3. 연구 방법
- 4. 분석 결과
- 5. 논의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삶의 만족도(life satisfaction)는 ‘개인의 삶 전반에 대한 주관적인 안녕감(subjective well-being)’을 나타내는 인지적 평가 지표로, 국가 정책의 수립과 평가에 광범위하게 활용되는 주요 척도 중 하나이다(Diener, 1984; OECD, 2024). 국제 비교 연구에 따르면 한국 청년의 삶의 만족도는 주요 선진국에 비해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Helliwell et al., 2024; OECD, 2024). 특히 37개 OECD 국가 중 한국 청년의 삶의 만족도는 36위로 최하위를 기록하였다(OECD, 2024). 또한 2024년 세계행복보고서(World Happiness Report)에 따르면, 2021~2023년 30세 미만 평균을 기준으로 한국인의 삶의 만족도는 143개국 중 52위에 불과하였다(Helliwell et al., 2024). 이러한 통계는 한국 사회가 청년 세대로 하여금 삶의 기회를 충분히 누릴 수 있는 사회경제적 여건을 보장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주며, 청년의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경제적 요인에 대한 심층적인 분석을 통해 효과적인 청년 정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초기 성인기에 해당하는 10대 후반에서 20대 후반은 삶의 만족도에 장기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여러 사회적 역할 이행이 발생하는 시기이다(김기현, 오병돈, 2024; Arnett, 2000; Settersten, 2007). 많은 청년들이 이 시기에 교육을 마치고 첫 일자리를 구하며 부모로부터 분가하는 경험을 한다. 이 과정에서 청년들은 다양한 기회와 함께 도전적인 과제에 직면하게 된다(김기현 외, 2021; 유민상 외, 2022). 최근 들어 이러한 초기 성인기 이행 과정에서 불확실성, 지연, 그리고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다(김기현, 오병돈, 2024; Arnett, 2000). 특히 현재 한국 청년들이 경험하는 교육 기간의 장기화, 높은 미취업률, 장기간의 부모와의 동거 등은 전통적인 성인기 이행 과정과 차별화되는 특성으로, 삶의

6) 본 장은 오병돈 교수(뉴욕주립대 폴리테크닉 인스티튜트 교수)가 집필하였음.

만족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김기현 외, 2021).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청년들의 초기 성인기 역할 이행과 삶의 만족도의 관계를 실증적으로 분석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변금선, 김기현, 2019). 특히 각 역할 이행의 단순 여부 뿐만 아니라 이행의 조합, 그리고 성별, 가족 배경, 교육 수준에 따른 차이를 함께 고려한 복합적인 분석은 드물다. 이러한 공백은 청년의 삶의 만족도 유지 및 향상을 위한 효과적인 정책 수립을 어렵게 만드는 요인 중 하나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초기 성인기 역할 이행의 주요 지표인 최종학교 졸업, 취업, 분가 여부 및 그 조합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한국 청년들의 삶의 만족도 향상을 지원할 수 있는 효과적인 청년 정책 마련을 위한 과학적 근거를 제시하고자 한다.

2. 이론적 배경

1) 초기 성인기의 핵심 역할 이행

초기 성인기는 아동기와 청소년기를 지나 성인기로 향하는 문턱에 해당하는 삶의 과도기이다. 이 시기에 청년들은 법적 성인 연령인 만 19세에 도달하면서 사회경제적으로 성인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복잡다단한 과정을 시작한다(김기현 외, 2021; 유민상 외, 2022). 많은 사람들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여기는 사회적 역할 이행이 바로 이 초기 성인기에 집중적으로 이루어진다. 일반적으로 학업의 종료, 취업을 통한 경제적 독립, 부모로부터의 분가 등이 이 시기에 발생하며, 이러한 성인기 이행(transition to adulthood)을 통해 청년들은 법적 성인의 기준을 넘어 실질적인 자립의 단계로 나아가게 된다(김기현, 오병돈, 2024; Arnett, 2000; Settersten, 2007).

전통적인 사회에서는 졸업, 취업, 분가, 결혼, 출산으로 이어지는 일련의 다섯 가지 전환이 주요한 성인기 역할 이행으로 간주되었다(Furstenberg, Rumbaut, & Settersten, 2005; Hogan & Astone, 1986). 이 중에서도 결혼과 출산은 전통사회에서 성인이 되었음을 상징하는 핵심 사건이었다(김기현 외, 2021; Gilmore, 1990). 그러나 산업화 과정을 거치면서 현대 사회에서는 결혼과 출산이 차지하는 사회경제적 중요성이 크게 감소하였다(Settersten, 2007). Jones와 Wallace(1992)의 모래시계 모형에 따르면, 졸업·취업·분가와 결혼·출산 사이의 시간적 간격은 전근대 사회에서 근대 사회로 진입하면서 좁혀졌지만, 현대 사회에서는 다시 그 간격이 벌어지고 있다.

현대 산업화 사회에서 결혼과 출산이 성인기 이행의 필수 사항에서 선택 사항으로 변화하고 있는 반면, 졸업·취업·분가는 여전히 서로 밀접하게 연결된 초기 성인기의 핵심 역할 이행으로 남아 있다(김기현 외, 2021; Settersten, 2007). 학교-일자리 이행(school-to-work transition)에 대한 다양한 연구들은 졸업과 취업의 원활한 연계가 장기적인 사회경제적 지위 형성에 결정적 역할을 한다고 강조한다(Nilsson, 2019; Ryan, 2001). 또한 졸업과 취업은 청년들이 부모로부터 분가하여 실질적 자립을 이루는 데 필요한 경제적 기반을 제공한다(Blustein et al., 2000). 이러한 사회적 변화를 고려하여 본 연구는 다섯 가지 역할 이행 중 초기 성인기의 세 가지 핵심 역할 이행인 졸업, 취업, 분가에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

이와 함께 초기 성인기 이행 경로는 더 이상 연령에 따라 예측 가능한 단선적 과정이 아니라, 유동적이고 복잡하며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는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Arnett, 2000; Iacovou, 2002; Settersten, 2007). Arnett(2000)은 이러한 변화에 주목하며, 청소년기와 성인기 사이에 위치한 특수한 발달 단계를 설명하기 위해 '발현 성인기(emerging adulthood)'라는 개념을 제안하였다. 그는 이 시기를 일반적으로 만 18세에서 25세까지, 혹은 29세까지 확장 가능한 시기로 규정하며, 다음과 같은 다섯 가지 특징을 제시하였다: ① 정체성 탐색, ② 불안정성, ③ 자기 중심성, ④ 경계에 있는 느낌, ⑤ 다양한 가능성(Arnett, 2000, 2007). 이 개념은 고등교육의 대중화, 노동시장 진입의 불확실성, 결혼과 출산의 지연 등 사회구조 변화에 따른 현대 사회 성인기 이행의 사회문화적 특징을 반영한다. 이와 유사하게, Hogan & Astone(1986)과 Settersten(2007) 등도 전통적인 성인기 이행 모델이 무너지고, 개인마다 다른 이행 경로와 시기가 나타나며 그 양상은 사회경제적 조건에 따라 크게 달라진다고 지적하였다.

한국 청년의 성인기 이행 과정은 이러한 국제적 흐름을 공유하는 동시에, 가부장제적 가족 문화, 군복무 제도, 청년 실업, 높은 주거비용 등 고유한 사회문화적 요인의 복합적 영향을 받고 있다(김기현 외, 2021; 유민상 외, 2022). 결혼과 출산을 기피하는 현상이 급격히 확산되면서 한국 청년들의 초기 성인기 이행도 주로 졸업·취업·분가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행 경로 또한 다양한 순서와 조합으로 분화되고 있다(김기현 외, 2021; 김기현, 오병돈, 2024). 김기현, 오병돈(2024)의 연구에 따르면, 대표적으로 남성에게서는 '군복무 후 취업형', '군복무 후 교육형', '휴복학형', '교육 우선형', 여성에게서는 '조기 취업형', '단계적 이행형', '분가 지연형', '교육 연장형'과 같은 비표준화된 경로들이

나타났다. 이는 초기 성인기 이행 과정을 연령에 따른 획일적인 변화로 이해하기보다, 개인별 조건에 따라 다양한 방식으로 재편되는 시기로 이해해야 함을 시사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초기 성인기를 법적 성인 연령인 만 19세에서 20대 중후반 사이로 정의하고, 해당 시기에 이루어지는 졸업, 취업, 분가라는 세 가지 핵심 역할 이행과 그 조합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이는 연령에 따라 고정된 성인기 이행 경로를 전제하는 접근에서 벗어나, 성인기 이행 과정의 실질적인 다양성을 반영하여 그것이 청년의 삶에 미치는 사회심리적 영향을 포착하고자 하는 시도이다.

2) 생애 주기에 따른 삶의 만족도 변화

기존 연구에 따르면 삶의 만족도는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U자형 곡선을 그리며 변화한다(Blanchflower, 2021; Blanchflower & Oswald, 2008; Graham & Pozuelo, 2017). Blanchflower & Oswald(2008)는 한국을 포함한 여러 국가의 대규모 설문 자료를 종합 분석한 연구에서, 일반적으로 삶의 만족도가 20대 초반부터 성인기 전반에 걸쳐 점차 감소하여 40대 중반에 최저점에 도달한 뒤, 성인기 후반에 다시 상승하는 경향을 확인하였다. 초기 성인기에 많은 청년들은 이상과 현실 사이의 괴리, 사회적 역할 변화에 따른 부담, 경제적 불안정 등으로 인해 삶의 만족도가 하락하는 경험을 하며, 이후 중년기를 지나 사회경제적 안정을 확보하고 가치관을 재정립하면서 노년기에 삶의 만족도가 일정 부분 상승하는 경험을 한다(Blanchflower, 2021; Graham & Ruiz Pozuelo, 2017). Karwetzky, Michaelsen, Werdecker, and Esch(2022)은 삶의 만족도가 중년 이후 반등하긴 하지만, 그 상승폭이 감소폭보다 크지 않다는 점에 주목하며 이를 단순한 회복(recovery)으로 보기보다는 생애 후반의 생물학적·심리적 적응(adaptation)과 안정(stabilization)의 결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하였다.

이처럼 많은 국가에서 확인되는 삶의 만족도의 연령별 변화는 [그림 V-1]과 같이 전형적인 U자형 패턴을 보이지만, 구체적인 양상은 사회경제적 여건에 따라 국가별로 다소 상이하게 나타난다(Blanchflower, 2021; Graham & Pozuelo, 2017). 선진국에서는 구직 활동 및 직업 경력의 시작과 관련한 스트레스가 성인기 전반 삶의 만족도 저하의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며, 복지제도, 의료 접근성, 안정된 소득 기반 등으로 인해 성인기 후반의 삶의 만족도가 비교적 빠르게 상승한다. 반면 개발도상국에서는 생존과 관련된

현실적 어려움이 삶의 만족도 저하의 주된 요인으로 나타나며, 성인기 전반의 감소 폭이 크고 성인기 후반의 상승 시점은 선진국보다 늦은 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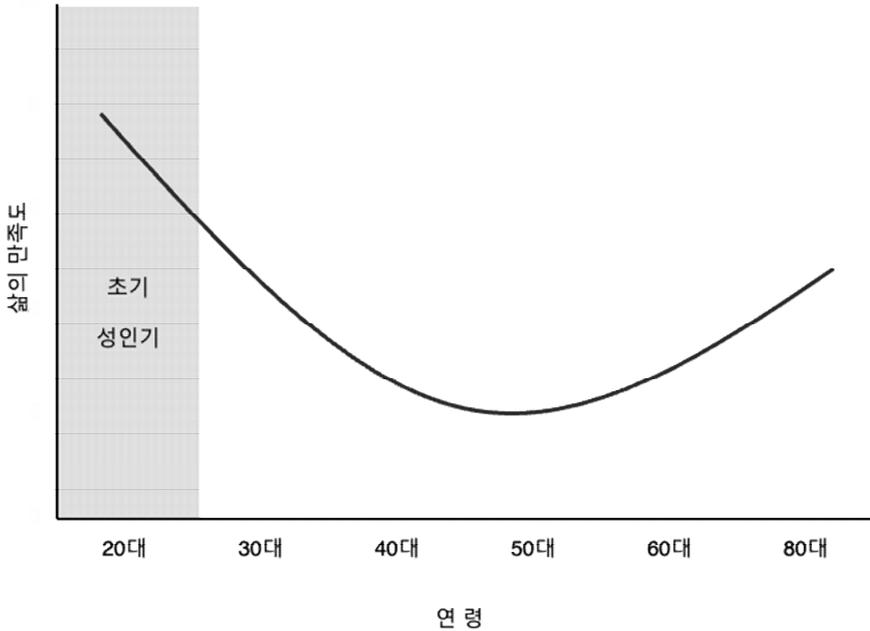


그림 V-1. 생애 주기에 따른 삶의 만족도의 변화

안타깝게도 한국은 OECD 상위권에 해당하는 사회경제적 발전을 이룩했음에도 불구하고 청년층의 삶의 만족도는 OECD 최하위권에 머물러 있다(Helliwell et al., 2024; OECD, 2024). 또한 한국인의 삶의 만족도는 다른 선진국과 달리 중년기의 최저점 이후에도 뚜렷한 회복세를 보이지 않거나, 증가 속도가 더딘 것으로 나타났다(Choi et al., 2023; Helliwell & Wang, 2014). 이러한 경향은 성인기 후반의 삶의 만족도 향상을 위한 정책과 더불어, 초기 성인기 청년들의 급격한 삶의 만족도 하락에 대응하는 정책 마련이 시급함을 시사한다. 특히 청년들의 낮은 삶의 만족도는 한국 사회의 저출산 문제를 심화시키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Mencarini, Vignoli, Zeydanli, & Kim, 2018).

따라서 본 연구는 삶의 만족도에 관한 기존 문헌과 초기 성인기 역할 이행에 관한 기존 문헌을 통합적으로 고찰함으로써 한국 청년의 낮은 삶의 만족도를 개선하기 위한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고자 한다. 기존 연구에 따르면 사회적 역할 변화에 수반되는 심리적 부담과 실질적 사회경제적 어려움은 한국과 같이 사회경제적 수준이 높은 국가에서 청년의 삶의 만족도를 저하하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한다(Graham & Pozuelo, 2017; Schoon & Bynner, 2019). 이는 초기 성인기 역할 이행과 삶의 만족도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음을 시사한다.

한편, 앞 절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성인기 이행에 관한 기존 문헌은 초기 성인기 역할 이행이 연령 증가에 따라 획일적으로 발생하기보다는 사회경제적 배경에 따라 시기와 방식이 개인마다 상이하게 나타난다고 지적한다(김기현, 오병돈, 2024; Iacovou, 2002). 따라서 연령을 중심으로 삶의 만족도 변화를 해석하는 단순한 접근을 넘어, 초기 성인기의 다양한 역할 이행 양상과 삶의 만족도 간의 관계를 심층적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다.

다음 절에서는 초기 성인기의 세 가지 핵심 역할 이행인 졸업, 취업, 분가 여부 및 그 조합에 따른 삶의 만족도의 차이에 관한 선행연구들을 검토하고, 이를 바탕으로 본 연구의 분석 틀과 가설을 도출하고자 한다.

3) 초기 성인기 역할 이행과 삶의 만족도의 관계

일반적으로 교육 수준이 높은 사람일수록 높은 삶의 만족도를 보고하는 경향이 있다 (Ilies, Yao, Curseu, & Liang, 2019; Salinas-Jiménez, Artés, & Salinas-Jiménez, 2011). 그러나 본 연구가 주목하는 ‘최종학교의 졸업’은 단순한 교육 수준 상승이 아니라 삶의 전환점으로서의 의미를 지니므로 보다 신중한 고려가 필요하다. 한편, 졸업은 새로운 자율성과 직업 경력의 시작, 경제적 독립, 사회적 지위 상승을 가능하게 하며, 미래에 대한 긍정적인 기대감과 함께 삶의 만족도를 일시적으로나마 향상시킬 수 있다(Karavdic & Baumann, 2014; Siembab & Stawarz, 2019).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졸업 이후 사회경제적 현실에 직면하는 과정은 불확실성과 압박을 수반할 수 있으며, 생애 주기에 따른 삶의 만족도 U자형 변화에서 졸업은 장기적인 감소 추세를 시작하거나 가속화하는 계기로 작용할 가능성도 있다. 특히 청년 고용 안정성이 낮은 사회에서는 졸업의 긍정적 효과가 미미하거나, 오히려 졸업 이후 삶의 만족도가 급격히 하락할 수 있다(Blustein et al., 2000; Marshall & Butler, 2015; Zhong & Xu, 2023).

반면에 취업은 삶의 만족도를 증가시키거나 감소를 완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Dietrich, 2012; Helliwell & Huang, 2014). 교육 수준과 삶의 만족도의 정적 관계가

직업과 소득을 통해 매개된다는 기존 연구를 고려하면(Ibrahim & Nadif, 2025; Ilies et al., 2019), 원만한 학교-일자리 이행은 삶의 만족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요인 중 하나이다(Tolgensbakk, Vedeler, & Hvinden, 2017). 하지만 불안정하거나 낮은 질의 일자리는 오히려 삶의 만족도를 저하시킬 수 있다(McKee-Ryan, Song, Wanberg, & Kinicki, 2005; Zhong & Xu, 2023). 또한 일자리의 질적 차이로 인해 취업의 긍정적 효과는 남성보다 여성에게서, 고학력자보다 저학력자에게서 제한적으로 나타날 수 있다.

끝으로 부모로부터의 분가가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은 경제적 자원과 사회경제적 배경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Holdsworth, 2004; Iacovou, 2002). 부모의 지원이나 졸업과 취업을 통해 확보한 경제적 능력을 바탕으로 한 분가는 자율성과 자기효능감을 높여 삶의 만족도를 향상시킬 수 있다(Kins, Beyers, Soenens, & Vansteenkiste, 2009; Ho, 2015; Schwanitz, Rampazzo, & Vitali, 2021). 특히 여성의 경우, 분가를 통해 가부장제적 가족 문화로부터 심리적 해방감을 경험하면서 삶의 만족도 상승을 경험할 가능성이 있다(김기현, 오병돈, 2024; Qu & de Vaus, 2015). 반면 경제적 능력이 부족한 상태에서의 분가는 불안정성과 고립을 초래하여 삶의 만족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Holdsworth, 2004).

요컨대 기존 문헌은 초기 성인기의 핵심 역할 이행인 졸업, 취업, 분가 여부 및 그 조합이 청년의 삶의 만족도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음을 시사한다. 한국과 같이 청년 고용이 불안정한 사회에서는 많은 청년들이 최종학교 졸업 이후 삶의 만족도 감소를 경험할 가능성이 크며, 원만한 학교-일자리 이행은 졸업 이후 삶의 만족도 하락을 완화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또한 졸업과 취업 등을 통해 경제적 토대를 마련한 이후의 분가는 삶의 만족도 향상에 기여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초기 성인기의 졸업, 취업, 분가라는 세 가지 핵심 역할 이행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하는 것을 주요 목표로 한다. 아울러 초기 성인기 역할 이행의 효과가 성별, 가족 배경, 교육 수준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음을 고려하여 집단 간 차이도 함께 탐색하고자 한다. 한국 사회에서는 전통적인 가부장제 문화와 의무 군복무 등의 제도로 인해 남성과 여성의 초기 성인기 역할 이행 경로에 상당한 차이가 존재하며(김기현, 오병돈, 2024), 이러한 차이는 삶의 만족도의 성별 격차도 야기할 수 있다. 또한 경제적으로 여유 있는 부모로부터의 지원은 초기 성인기

의 삶의 만족도 하락을 완화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아울러 교육 수준에 따라 청년이 진입하는 일자리의 질과 안정성이 달라지므로, 최종학력에 따른 삶의 만족도 변화도 분석할 필요가 있다.

3 연구 방법

1) 분석 자료

본 연구는 아동과 청소년의 성장과 발달 과정을 종합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설계된 한국 아동·청소년패널조사 2010(Korean Children and Youth Panel Survey 2010, 이하 KCYPS 2010)의 자료를 활용하였다. KCYPS 2010은 초등학교 1학년, 초등학교 4학년, 중학교 1학년의 세 개 코호트를 대상으로 2010년부터 매년 추적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이들이 각각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 대학교 1학년이 되는 2016년에 총 7년에 걸친 본조사를 마무리하였다. 이후 중학교 1학년 코호트를 대상으로 2017년부터 2024년까지 8차에 걸친 유지조사가 추가로 시행되었고, 이로써 해당 코호트에 대해 총 15차에 걸쳐 매년 반복 측정된 광범위한 패널 자료가 구축되었다. 요컨대 KCYPS 2010은 아동기와 청소년기를 넘어 초기 성인기의 사회경제적 변화를 장기적으로 추적할 수 있는 대표적인 국가 수준의 종단 자료이다.

본 연구는 1차 본조사에 참여한 2,351명 중 유지조사에 한 차례 이상 참여한 응답자 2,077명(88.3%)을 분석 대상으로 하였다. 이들의 총 관측치는 11,152개이며, 표본 대표성과 패널 이탈률을 보정하기 위해 모든 분석에 패널 가중치를 적용하였다. 유지조사 응답 시점을 기준으로, 응답자의 99% 이상이 만 19세에서 27세 사이에 해당하였다.

2) 분석 변수

본 연구의 종속변수(시간 가변 변수)인 삶의 만족도는 유지조사 1차년도부터 8차년도까지 매년 동일한 문항을 통해 측정되었다. 문항은 “귀하의 전반적인 생활을 고려할 때 현재 삶에 어느 정도 만족하십니까?”이며, 응답은 5점 리커트 척도(1=전혀 만족하지 않는다, 2=만족하지 않는다, 3=보통이다, 4=만족한다, 5=매우 만족한다)로 이루어졌다.

주요 독립변수(시간 가변 변수)는 졸업, 취업, 분가 여부와 이들의 상호작용항이며,

모두 매년 반복 측정된 값을 활용하였다. 각 역할 이행 여부는 '이행함(1)'과 '이행하지 않음(0)'으로 부호화하였다.

추가적으로 통제변수 및 하위집단 분석을 위한 변수(시간 불변 변수)로 성별(여성=1, 남성=0), 청소년기 본조사에서 측정된 가구소득(상위 50%=1, 하위 50%=0), 그리고 초기 성인기 유지조사에서 측정된 교육 수준(4년제 대학 재학 이상=1, 기타=0)을 고려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Rubin(1987)이 제안한 다중 대체(multiple imputation, MI) 방법을 적용하여 결측치를 보완하였다. 이 과정에서 총 50개의 대체 자료셋을 생성하였으며, 이를 통해 표본 손실을 방지하고 추정치의 편향 가능성을 최소화하였다.

3) 분석 방법

본 연구는 초기 성인기의 핵심 역할 이행이 한국 청년의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기 위하여 패널 자료 분석 기법을 활용하였다. 패널 자료는 동일한 개인을 반복적으로 추적 관측함으로써 개인 간 차이뿐만 아니라 개인 내 변화까지 동시에 파악할 수 있다는 강점을 지닌다. 이러한 특성을 고려하여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단계적 접근 절차를 마련하였다.

(1) 기술통계

먼저 종속변수, 주요 독립변수, 그리고 통제변수의 기술통계를 산출하여 제시하였다. 이때 패널 자료의 특성을 보다 명확히 드러내기 위해 시간 가변 변수와 시간 불변 변수를 구분하여 결과를 보고하였다. 또한 시간 가변 변수인 종속변수와 주요 독립변수의 평균값이 유지조사 시점별로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보여주는 그래프를 함께 제시하여, 시간적 추세를 시각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다.

(2) 집단 내 상관계수(ICC, Intraclass Correlation Coefficient)

다음으로 삶의 만족도의 총 분산을 개인 간 차이와 개인 내 차이로 분해하기 위해 집단 내 상관계수를 산출하였다. ICC는 삶의 만족도가 주로 개인 간 차이에 의해 설명되는지, 아니면 개인 내 변화에 의해 설명되는지를 보여주는 지표이다. 이러한 결과는 후속 분석에서 개인 간 분석과 개인 내 분석을 수행할 타당성을 뒷받침한다.

(3) 개인 간 분석(Between-individual analysis)

삶의 만족도의 개인 간 차이를 검증하기 위해 시간 가변 변수를 개인별 평균값으로 변환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를 통해 평균적인 집단 간 삶의 만족도 차이를 추정하였다. 주요 독립변수로는 졸업, 취업, 분가 여부 및 이들의 상호작용항을 포함하였으며, 성별, 가구소득, 교육 수준과 같은 시간 불변 변수를 통제변수로 추가하였다.

(4) 개인 내 분석(Within-individual analysis)

이어서 본 연구의 핵심 분석에 해당하는 개인 내 분석을 수행하였다. 개인 내 변화는 무작위효과(random effects, RE) 모형이나 고정효과(fixed effects, FE) 모형을 통해 분석할 수 있다. 무작위효과 모형은 개체 간 차이와 개체 내 변화를 동시에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개체의 불관측 이질성(unobserved heterogeneity)과 독립변수가 서로 독립적이라는 가정을 전제해야 한다. 반면 고정효과 모형은 시간 불변 변수를 포함할 수는 없지만 시간에 따라 변하지 않는 비관측 고유 특성의 영향까지 제거함으로써 독립변수의 효과를 보다 엄밀하게 추정할 수 있다.

보다 구체적으로 고정효과 모형은 다음과 같은 장점을 지닌다. 첫째, 관측되지 않는 응답자의 고유한 특성(예: 개인적 능력, 성격, 가정환경 등)이 분석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차단할 수 있다. 이러한 특성은 삶의 만족도뿐만 아니라 졸업, 취업, 분가와 같은 주요 독립변수에도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이를 제거하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고정효과 모형은 개체 간 차이(between-individual variation)가 아니라 개체 내 시간 변화(within-individual variation)를 활용함으로써 독립변수의 효과를 보다 정밀하게 추정할 수 있다. 셋째, 시간 고정효과(time fixed effects)를 포함하면 분석 기간 동안 발생한 외생적 요인(예: 경기 상황, 정책 변화 등)을 통제할 수 있다. 특히 본 연구의 분석 기간(2017~2024)에는 코로나19 팬데믹이 포함되어 있어, 그로 인한 사회경제적 충격이 삶의 만족도 및 역할 이행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시간 고정효과를 포함하는 것은 필수적이다.

나아가 모형의 적합성을 방법론적으로 검증하기 위해 Hausman 검정과 Mundlak 접근(Mundlak, 1978)을 병행하였다. Hausman 검정은 무작위효과 모형과 고정효과 모형의 추정치 간 차이를 통계적으로 비교하여 더 적합한 모형을 판별한다. Mundlak 접근은

무작위효과 모형에 독립변수의 개인별 평균을 추가함으로써, 무작위효과 모형이 고정효과 모형과 동일한 불관측 이질성을 반영하는지를 평가할 수 있게 한다. 두 검증 모두 고정효과 모형이 더 적합하다는 결과를 보여주었다.

한편, 고정효과 모형에서는 개인 간의 차이가 제거되므로 성별, 가구소득, 교육 수준과 같은 시간 불변 변수를 통제변수로 포함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 대신 이들 변수를 집단 구분 변수로 활용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주요 분석 결과가 성별, 가구소득, 교육 수준에 따라 어떻게 상이하게 나타나는지를 검토하였다.

4. 분석 결과

1) 기술통계

〈표 V-1〉는 본 연구에서 사용한 주요 변수들의 기술통계 결과를 보여준다. 우선 삶의 만족도의 전체 평균은 3.530으로, 응답자들은 전반적으로 '보통'보다 다소 높은 수준의 삶의 만족도를 보고하였다. 시점별로는 [그림 V-2]에서 볼 수 있듯이, 삶의 만족도는 고등학교 졸업 이후 실시된 유지조사 1차(3.668)와 2차(3.725)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값을 보였으나, 3차(3.475) 이후에는 하락하여 5차(3.439)까지 낮아졌다가 이후에는 소폭 회복되는 추세를 보였다. 통계적으로는 유지조사 1차와 2차의 삶의 만족도가 이후 차수의 삶의 만족도보다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일반적으로 한국 청년들이 초기 성인기에 삶의 만족도가 감소하는 경험을 한다는 점을 시사한다. 이에 덧붙여 〈표 I-1〉에 따르면, 주요 독립변수인 졸업, 취업, 분가 여부의 전체 평균값은 각각 48.2%, 47.8%, 31.0%로 나타났다. 차수별 평균을 살펴보면 [그림 V-3]과 같이 졸업과 취업 비율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뚜렷하게 증가하는 반면, 분가 비율은 상대적으로 완만하게 상승하였다. 이러한 기술통계는 초기 성인기의 세 가지 주요 역할 이행과 삶의 만족도의 연관성을 암시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지만, 졸업·취업·분가가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서는 보다 심층적인 분석이 필요하다.

또한 모든 청년이 획일적이거나 단계적으로 성인기 이행 과정을 경험하는 것은 아니며, 그 과정은 다양하게 나타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그림 V-4]는 졸업, 취업, 분가 여부를 조합하여 초기 성인기 이행 상태를 8개 집단으로 구분하고, 각 집단이 차지하는 비율이 시간에 따라 어떻게 변화했는지를 보여준다. 세 가지 이행을 모두 완료하지 않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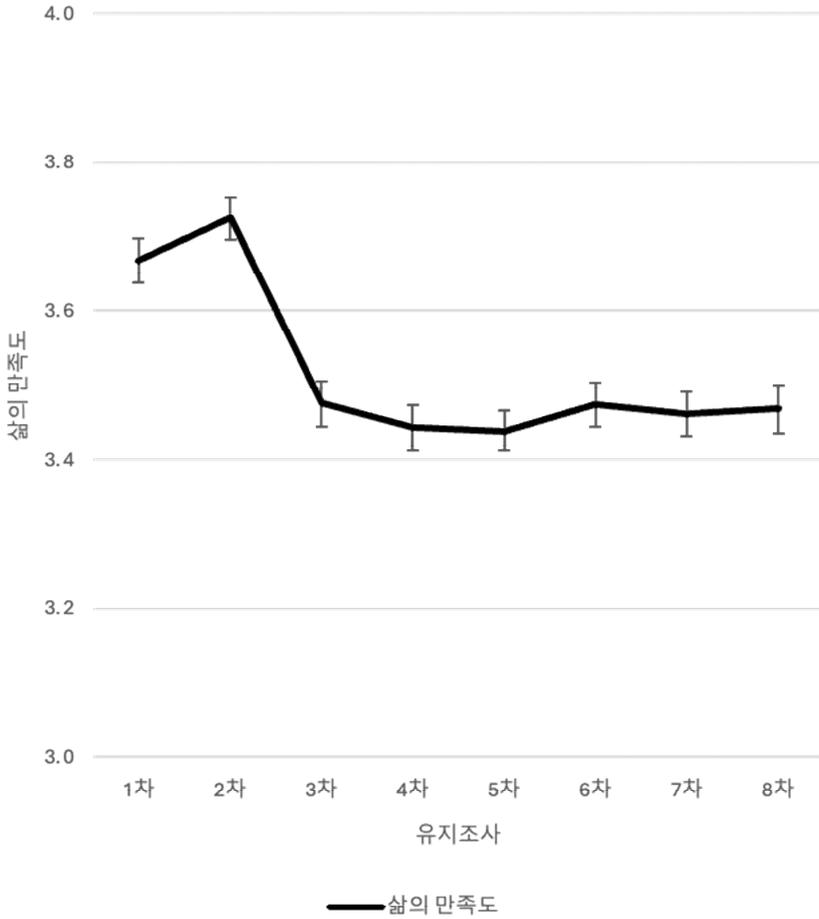
응답자의 비율은 조사 기간이 진행될수록 지속적으로 감소하였으며, 고등학교 졸업 이후 8차 조사 시점까지 최종학교를 졸업하지 않은 응답자는 약 10%에 불과하였다. 그러나 응답자의 60% 이상은 8차 조사 시점까지 세 가지 이행을 모두 완료하지 못하였고, 각 이행 여부 조합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졸업, 취업, 분가의 이행 시기와 순서가 개인마다 상이하게 전개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표 V-1. 기술통계

		전체	유지조사							
			1차	2차	3차	4차	5차	6차	7차	8차
시간가변 변수										
삶의 만족도	평균	3.530	3.668	3.725	3.475	3.443	3.439	3.474	3.462	3.468
(최소값=1; 최대값=5)	표준편차	(0.885)	(0.814)	(0.866)	(0.894)	(0.908)	(0.884)	(0.889)	(0.875)	(0.911)
졸업	평균	0.482	0.186	0.256	0.263	0.387	0.548	0.713	0.828	0.900
(그렇다=1)	표준편차	(0.500)	(0.389)	(0.436)	(0.440)	(0.487)	(0.498)	(0.452)	(0.377)	(0.300)
취업	평균	0.478	0.115	0.295	0.400	0.471	0.571	0.665	0.731	0.755
(그렇다=1)	표준편차	(0.500)	(0.319)	(0.456)	(0.490)	(0.499)	(0.495)	(0.472)	(0.443)	(0.430)
분가	평균	0.310	0.212	0.232	0.249	0.254	0.311	0.404	0.425	0.480
(그렇다=1)	표준편차	(0.463)	(0.409)	(0.422)	(0.432)	(0.435)	(0.463)	(0.491)	(0.494)	(0.500)
시간불변 변수										
여성	평균					0.489				
(=1; 남성=0)	표준편차					(0.500)				
가구소득 상위 50%	평균					0.500				
(=1; 하위 50%=0)	표준편차					(0.500)				
4년제 대학 재학	평균					0.667				
(=1; 기타=0)	표준편차					(0.47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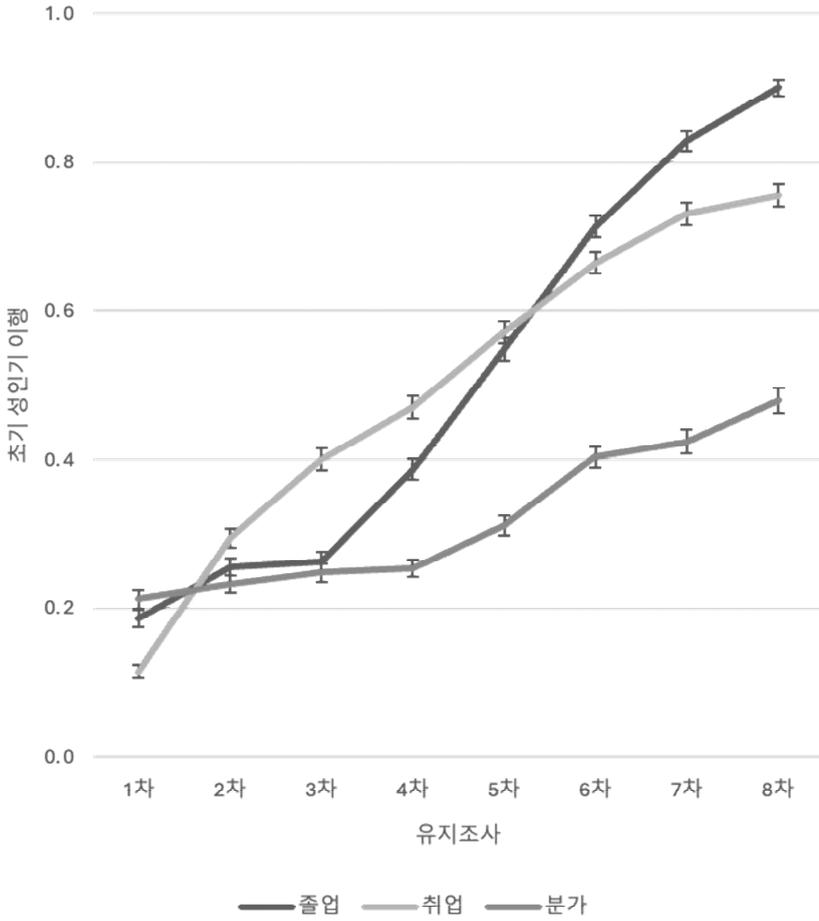
자료: 한국아동·청소년패널 조사, 2010-2024년,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개인수: 2,077명
 관측치: 11,152개

한편, 시간 불변 변수의 분포를 보면 여성의 비율은 48.9%로 성별 균형이 비교적 잘 유지되었다. 또한 청소년기 본조사에서 측정된 가구소득의 상·하위 50% 비율은 동일하게 50.0%로 나타났다. 아울러 유지조사 기간에 4년제 대학을 재학한 경험이 있는 응답자의 비율은 66.7%로, 다수의 응답자가 고등교육을 받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상의 결과는 본 연구의 표본이 성별 및 가구소득 분포에서 대표성을 유지하면서도, 시간의 흐름에 따라 초기 성인기 핵심 역할 이행이 점진적으로 확대되는 과정을 잘 반영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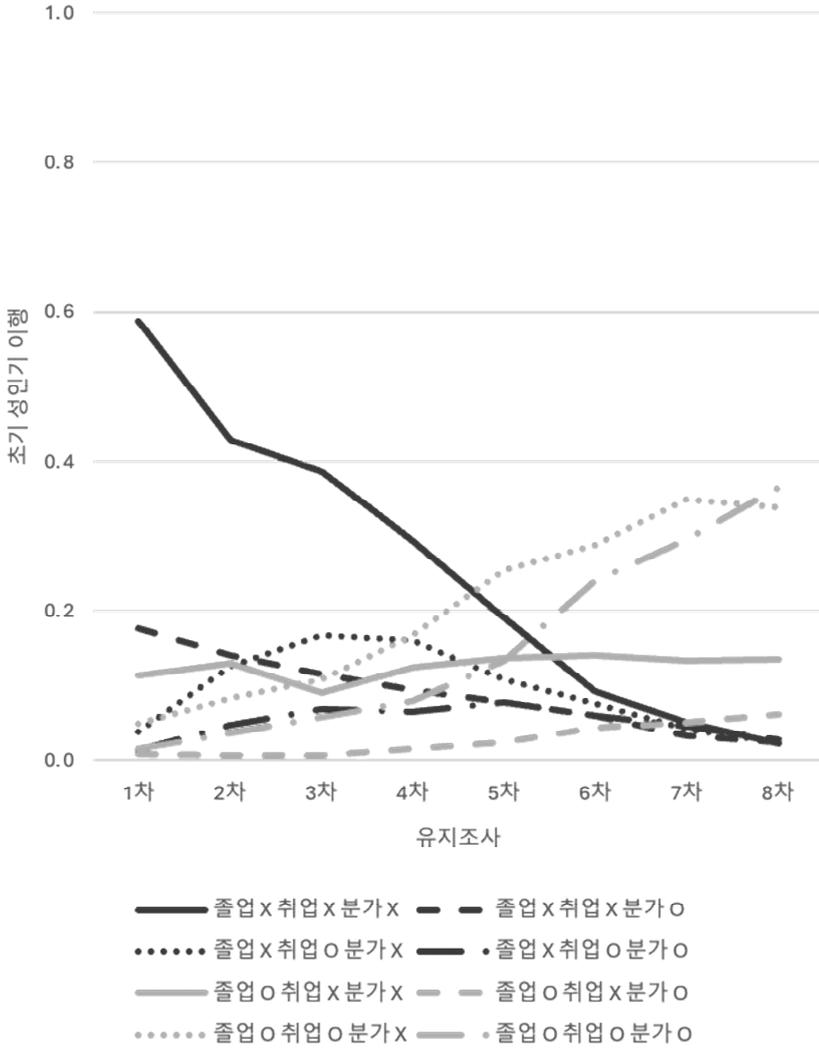
자료: 한국아동·청소년패널 조사, 2010-2024년,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개인수: 2,077명
 관측치: 11,152개

그림 V-2. 유지조사 시점별 삶의 만족도 변화



자료: 한국아동·청소년패널 조사, 2010-2024년,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개인수: 2,077명
 관측치: 11,152개

그림 V-3. 유지조사 시점별 졸업·취업·분가 비율 변화



자료: 한국아동·청소년패널 조사, 2010-2024년,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개인수: 2,077명
 관측치: 11,152개

그림 V-4. 유지조사 시점별 졸업·취업·분가 이행 조합에 따른 집단 분포 변화

2) 집단 내 상관계수

졸업, 취업, 분가의 이행 여부가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에 앞서 패널 자료의 구조적 특성을 확인하기 위해 집단 내 상관계수(Intraclass Correlation Coefficient, ICC)를 산출하였다. <표 V-2>는 삶의 만족도의 분산을 개인 간 차이와 개인 내 변동으로 분리한 결과를 보여준다. 분석 결과, 개인 간 분산은 0.482, 개인 내 분산은 0.738로 산출되었으며, 이에 따라 ICC 값은 $\rho=0.299$ 로 나타났다. 이는 삶의 만족도의 총 변동성 중 약 29.9%가 개인 간 차이에 의해, 나머지 약 70.1%가 동일 개인의 시간적 변화에 의해 설명됨을 의미한다.

표 V-2. 삶의 만족도 분산 분해 결과

	추정치
평균	3.530
개인 간 분산	0.482
개인 내 분산	0.738
ICC (ρ)	0.299

자료: 한국아동·청소년패널 조사, 2010-2024년,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개인수: 2,077명
관측치: 11,152개

이러한 결과는 삶의 만족도의 변동이 주로 개인 내 변화에서 비롯되지만, 개인 간 이질성 또한 무시할 수 없음을 보여준다. 다시 말해, 삶의 만족도는 청년 개인의 고유한 특성뿐 아니라 초기 성인기에 경험하는 다양한 역할 이행과 같은 시점별 사건과 맥락에 의해서도 크게 영향을 받는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개인 간 차이를 반영하는 분석과 더불어 개인 내 변화를 포착할 수 있는 패널 분석을 병행할 필요가 있다.

3) 개인 간 분석

<표 V-3>에 제시된 개인 간 분석(Between-individual analysis)의 두 회귀 모형은 졸업, 취업, 분가 여부와 이들의 상호작용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개인 간 차이를 보여준다. 먼저 상호작용항을 포함하지 않은 모형 1의 결과를 보면, 졸업과 취업 변수의 회귀계수

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졸업자는 미졸업자보다 삶의 만족도가 평균 0.146 낮았으며($\beta = -0.146$, $p < .05$), 취업자의 삶의 만족도는 미취업자보다 평균 0.182 높았다($\beta = 0.182$, $p < .01$). 분가는 양(+)의 회귀계수를 보였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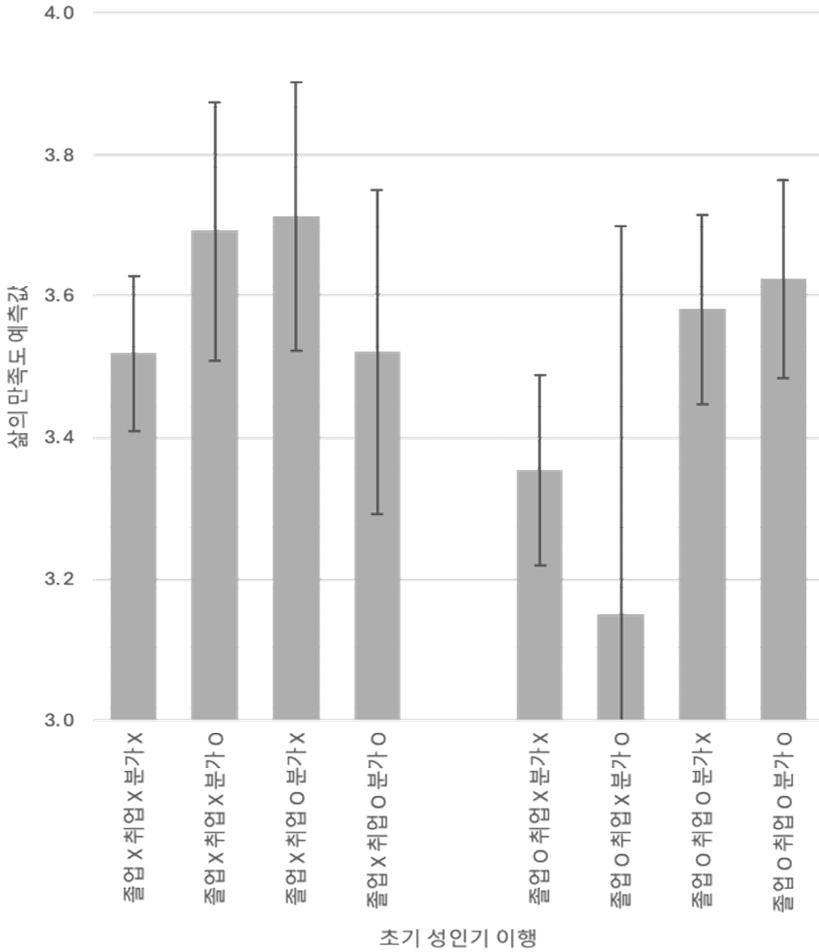
표 V-3. 청년의 졸업, 취업, 분가 여부에 따른 삶의 만족도의 차이: 개인 간 차이 분석

	모형 1	모형 2
졸업	-0.146 * (0.063)	-0.165 (0.092)
취업	0.182 ** (0.067)	0.194 (0.118)
분가	0.030 (0.053)	0.173 (0.110)
졸업×취업		0.033 (0.156)
졸업×분가		-0.376 (0.323)
취업×분가		-0.365 (0.210)
졸업×취업×분가		0.611 (0.387)
여성	-0.096 ** (0.034)	-0.102 ** (0.036)
가구소득 상위 50%	0.089 ** (0.034)	0.086 * (0.034)
4년제 대학 제학	0.100 * (0.041)	0.096 * (0.041)
개인수	2,077	2,077

* 자료: 한국아동·청소년패널 조사, 2010-2024년,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졸업, 취업, 분가의 개별 효과와 더불어 세 변수의 상호작용 효과를 함께 검증한 모형 2에서는 모든 주요 변수와 상호작용항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다만 회귀계수의 크기는 모형 1보다 다소 확대되어, 그 결과를 보다 주의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었다. 모형 2를 바탕으로 삶의 만족도 예측값을 계산하여 [그림 V-5]에 시각화한 결과, 졸업하였으나 취업하지 못한 응답자의 삶의 만족도가 다른 응답자들보다 낮게 나타나는 경향은 확인되

었으나, 이외에는 뚜렷한 패턴을 찾기 어려웠으며 졸업, 취업, 분가 여부의 8가지 조합에 따른 삶의 만족도의 차이도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자료: 한국아동·청소년패널 조사, 2010-2024년,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개인수: 2,077명
 관측치: 11,152개

그림 V-5. 졸업·취업·분가 조합별 삶의 만족도 예측값: 개인 간 분석 결과

한편, 두 모형에 포함된 통제변수들은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여성은 남성에 비해 삶의 만족도가 낮았으며(모형 1: $\beta=-0.096$, $p<.01$; 모형 2: $\beta=-0.102$, $p<.01$), 청소년기 가구소득이 상위 50%에 속한 응답자는 그렇지 않은 응답자보다 삶의 만족도가 높았다(모형 1: $\beta=0.089$, $p<.01$; 모형 2: $\beta=0.086$, $p<.05$). 또한 초기 성인기에 4년제 대학에 재학한 경험이 있는 응답자 역시 삶의 만족도가 더 높았다(모형 1: $\beta=0.100$, $p<.05$; 모형 2: $\beta=0.096$, $p<.05$).

개인 간 분석 결과를 종합하면, 졸업은 삶의 만족도와 음(-)의 관련성을, 취업은 삶의 만족도와 양(+)의 관련성을 갖는다. 그러나 세 가지 역할 이행의 결합에 따른 삶의 만족도의 차이는 평균적인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오히려 성별, 가구소득, 교육 수준과 같은 사회인구학적 요인들이 개인 간 삶의 만족도의 차이를 설명하는 데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평균 수준의 개인 간 분석만으로는 졸업, 취업, 분가 여부가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효과를 명확히 규명하기 어렵다는 점을 보여주며, 응답자의 고유한 특성을 정밀하게 통제한 개인 내 분석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4) 개인 내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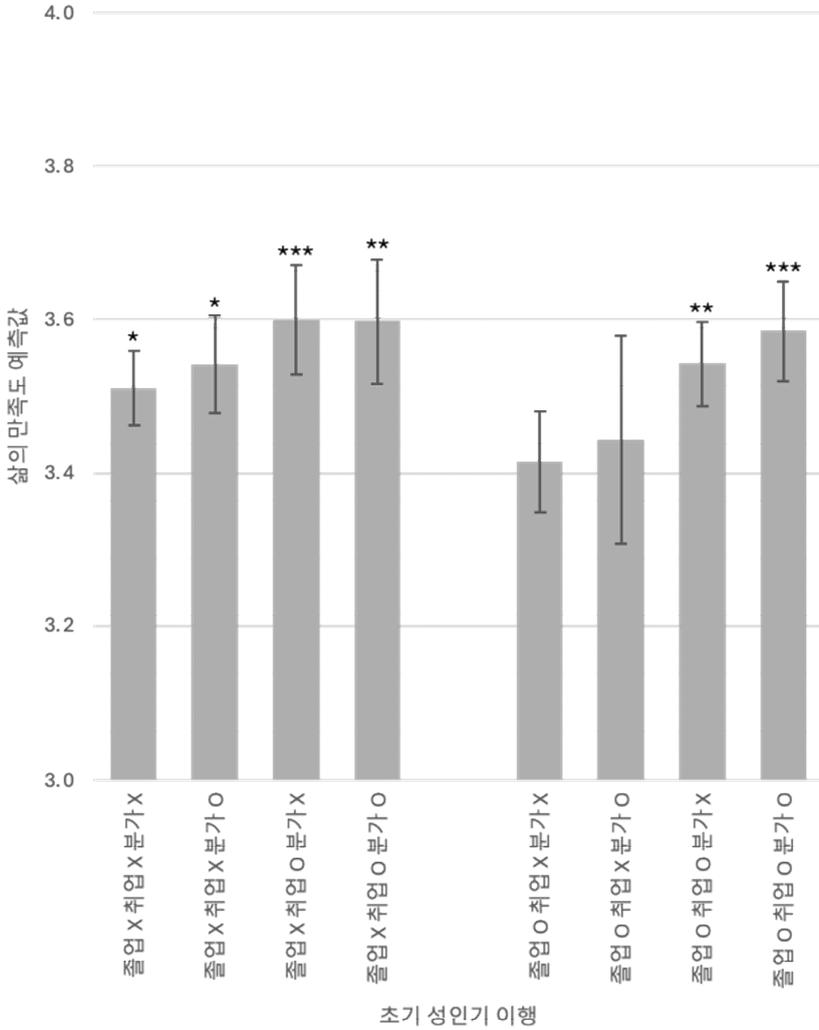
다음으로 개인 내 분석(Within-individual analysis)을 수행하였다. 앞선 분석에서 확인한 바와 같이, 삶의 만족도의 총 분산 중 70.1%는 개인 내 차이에 의해 설명된다. 개인 내 분석은 측정되지 않은 개인의 고유한 특성까지 통제할 수 있기 때문에, 졸업, 취업, 분가의 이행 여부와 그 조합이 초기 성인기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는 데 있어 본 연구의 핵심적인 분석이라 할 수 있다.

먼저 고정효과 모형과 무작위효과 모형의 적합성을 비교하기 위해 Hausman 검정과 Mundlak 접근을 실시하였다. Hausman 검정 결과, 고정효과 모형과 무작위효과 모형의 추정치 간에 체계적인 차이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chi^2=38.77$, $p<.001$), 이는 고정효과 모형이 더 적합함을 시사한다. 이어서 Mundlak 접근에서도 독립변수의 개인별 평균 항에 대한 공동 유의성 검정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확인되었고($F=4.95$, $p=0.002$), 이는 무작위효과 모형의 가정—즉 독립변수와 개인 고유 효과 간의 독립성—이 충족되지 않음을 보여준다. 두 검증 모두 고정효과 모형이 무작위효과 모형보다 적합하다는 결론을 뒷받침하였다.

표 V-4. 청년의 졸업, 취업, 분가 여부에 따른 삶의 만족도의 차이: 개인 내 차이(고정효과) 분석

	모형 1	모형 2
졸업	-0.070 * (0.034)	-0.097 * (0.046)
취업	0.106 *** (0.027)	0.089 * (0.044)
분가	0.032 (0.027)	0.031 (0.039)
졸업×취업		0.040 (0.058)
졸업×분가		-0.002 (0.082)
취업×분가		-0.033 (0.065)
졸업×취업×분가		0.046 (0.101)
유지조사 (준거집단 = 1차)		
2차	0.025 (0.040)	0.029 (0.040)
3차	-0.230 *** (0.044)	-0.225 *** (0.044)
4차	-0.270 *** (0.043)	-0.264 *** (0.043)
5차	-0.263 *** (0.043)	-0.257 *** (0.043)
6차	-0.238 *** (0.048)	-0.232 *** (0.048)
7차	-0.249 *** (0.050)	-0.245 *** (0.050)
8차	-0.242 *** (0.051)	-0.240 *** (0.051)
개인수	2,077	2,077
관측치	11,152	11,152

* 자료: 한국아동·청소년패널 조사, 2010-2024년,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자료: 한국아동·청소년패널 조사, 2010-2024년,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개인수: 2,077명
 관측치: 11,152개
 * $p < .05$, ** $p < .01$, *** $p < .001$ (준거집단: 졸업O·취업X·분가X)

그림 V-6. 졸업·취업·분가 조합별 삶의 만족도 예측값: 개인 내 분석 결과

(1) 전체 집단 분석

<표 V-4>는 고정효과 모형의 추정 결과를 보여준다. 상호작용항을 포함하지 않은 모형 1에서는 졸업이 삶의 만족도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으며($\beta=-0.070$, $p<.05$), 취업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beta=0.106$, $p<.001$). 분가의 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상호작용항을 추가한 모형 2에서도 기본적인 패턴은 유지되었다. 졸업의 효과는 여전히 음(-)의 방향을 보였으며($\beta=-0.097$, $p<.05$), 취업의 효과는 양(+)의 방향을 유지하였다($\beta=0.089$, $p<.05$). 분가는 여전히 유의하지 않았으며, 졸업 \times 취업, 졸업 \times 분가, 취업 \times 분가, 졸업 \times 취업 \times 분가 등 모든 상호작용항 또한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세 가지 이행 여부의 조합에 따른 삶의 만족도의 차이를 보다 직관적으로 확인하기 위해 [그림 V-6]에 모형 2를 바탕으로 한 예측값을 제시하였다. 분석 결과, 졸업하지 않은 네 집단에 비해 졸업한 네 집단의 삶의 만족도가 전반적으로 낮은 경향이 나타났다. 특히 졸업은 했지만 취업과 분가를 하지 않은 경우, 졸업하지 않았거나 취업을 한 집단에 비해 삶의 만족도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낮았다.

또한 <표 V-4>의 시간 고정효과를 살펴보면, 1차를 기준으로 2차는 큰 변화가 없었으나 3차 이후부터는 삶의 만족도가 1차보다 유의하게 낮아졌다. 이는 기술통계에서 확인된 것처럼 초기 성인기 동안 삶의 만족도가 구조적으로 감소하는 경향을 보여주며, 이러한 추세를 통제된 이후에도 졸업과 취업의 효과가 여전히 유의하다는 점을 시사한다.

종합하면, 개인 내 분석 결과는 졸업의 부정적 효과와 취업의 긍정적 효과가 초기 성인기 삶의 만족도 변화의 핵심적인 패턴임을 보여준다. 한국 청년들은 일반적으로 초기 성인기 동안 삶의 만족도가 하락하는 경험을 하며, 특히 학교-일자리 이행이 원활하지 않을 경우 이러한 하락 추세가 더욱 심화된다.

(2) 하위 집단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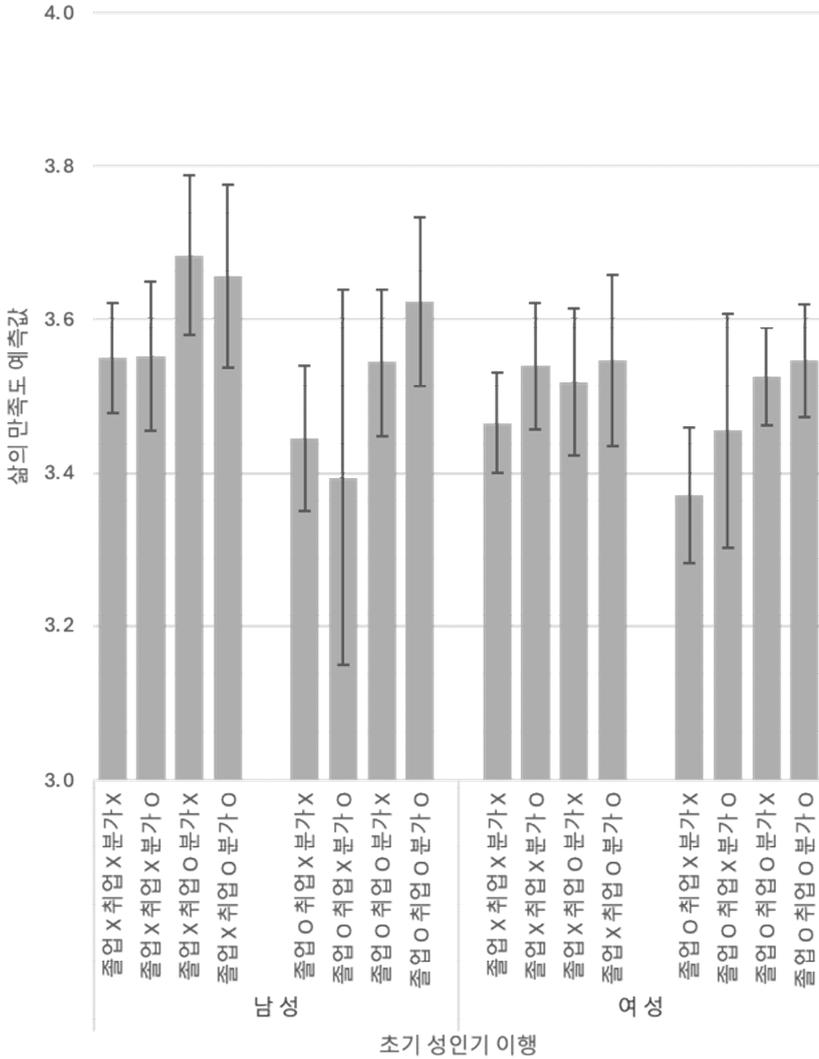
다음으로 전체 집단 분석에서 나타난 주요 결과의 강건성을 확인하고, 성별(남성과 여성), 가구소득(상위 50%과 하위 50%), 교육 수준(4년제 대학 재학 경험 여부)에 따른 차이를 탐색적으로 논의하기 위해 하위 집단 분석을 실시하였다. [그림 V-7], [그림 V-8], [그림 V-9]는 상호작용항을 포함한 개인 내 회귀분석 모형을 각 집단별로 추정하여, 8가지 이행 상태별 삶의 만족도를 시각화한 결과이다. 하위 집단 구분으로 인한 표본 수 감소와

상호작용항 포함으로 인해 오차범위가 비교적 크게 나타났으므로, 하위 집단 분석 결과는 추후 연구를 위한 탐색적 자료로서 신중하게 해석할 필요가 있다.

세 가지 구분(성별, 가구소득, 교육 수준)에 따른 분석 결과, 공통적으로 졸업자의 삶의 만족도가 미졸업자보다 낮은 경향이 확인되었다. 특히 졸업을 하였으나 취업을 하지 않은 경우 삶의 만족도가 다른 조합보다 일관되게 낮았다. 이는 전체 집단 분석에서 확인된 핵심 결과가 모든 하위 집단에서도 재현됨을 보여준다. 다만 집단별로 몇 가지 주목할 만한 차이가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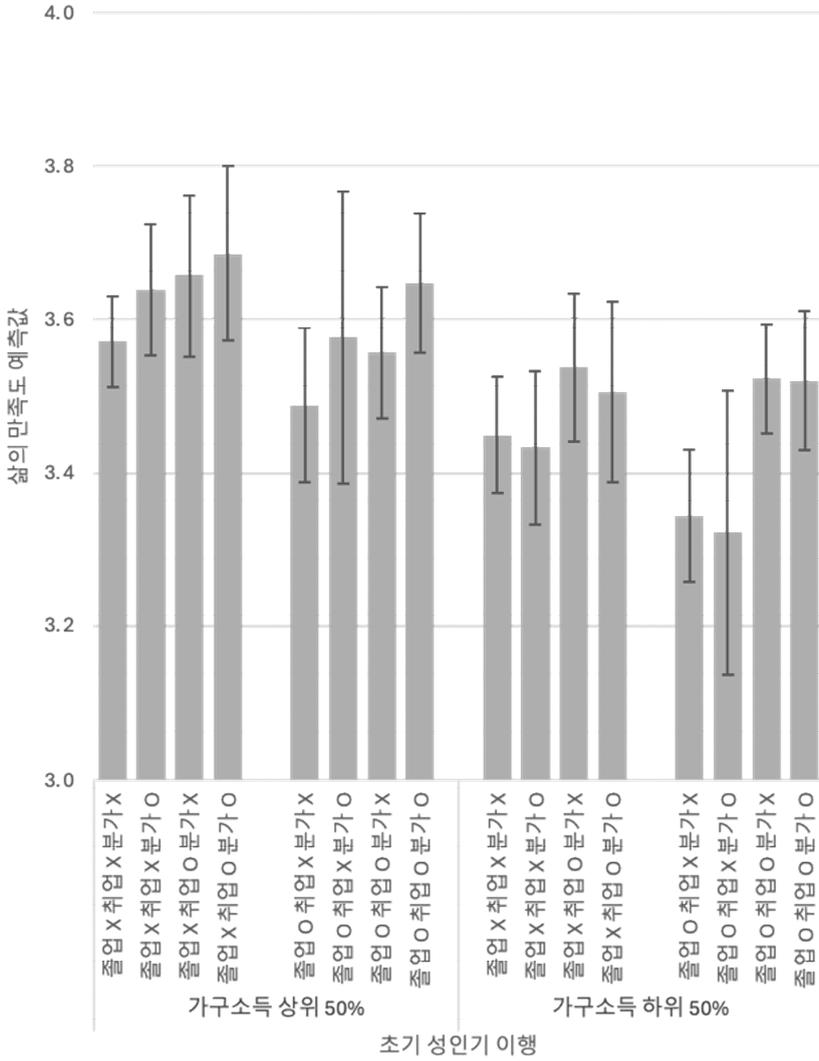
성별에 따른 분석을 보면, 전반적으로 남성이 여성보다 삶의 만족도가 높았다. 그러나 남성의 경우 졸업과 취업이 모두 병행되지 않는 한 분가 경험이 삶의 만족도를 낮추는 경향이 나타났다. 반대로 여성은 졸업이나 취업 여부와 관계없이 분가했을 때 분가하지 않은 경우보다 삶의 만족도가 더 높았다. 이는 남성에게 분가가 부모로부터의 지원 상실을 의미하는 반면, 여성에게는 가부장적 가족 문화로부터 벗어나는 기회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한다. 분가 효과의 이질성을 충분히 규명하려면 결혼을 동반한 분가와 그렇지 않은 분가를 구분해야 하지만, 본 연구는 분석 자료의 제약으로 인해 이를 구분하지 못하였다.

가구소득별 분석에서는 청소년기의 가구소득이 높았던 응답자들이 일관되게 높은 삶의 만족도를 보고하였다. 특히 하위 50% 가구소득 집단에서는 졸업 후 취업하지 못한 경우 삶의 만족도가 현저히 낮았으며, 취업의 긍정적 효과가 상위 50% 집단보다 더 뚜렷하게 나타났다. 또한 상위 50% 집단에서는 분가가 삶의 만족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경향이 확인된 반면, 하위 50% 집단에서는 오히려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경향이 나타났다. 이는 낮은 사회경제적 배경이 청년기의 삶의 만족도를 전반적으로 낮출 뿐 아니라, 취업의 긍정적 효과를 약화시키고 분가의 부정적 영향을 강화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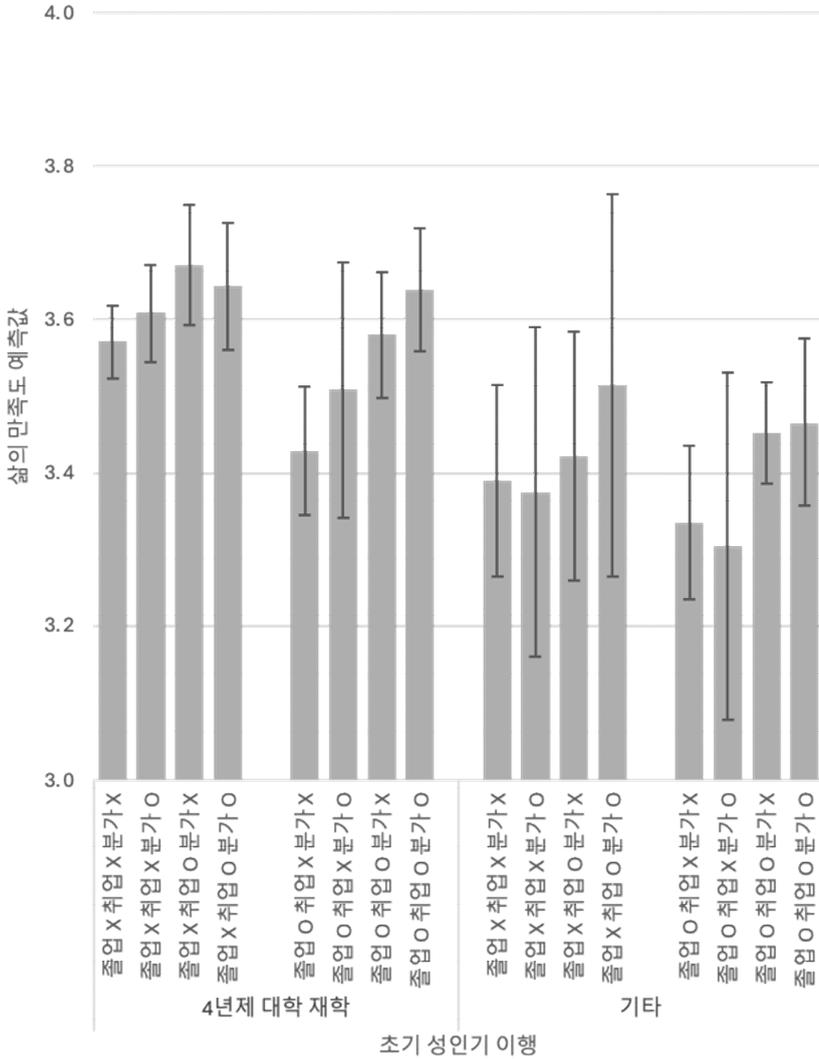
자료: 한국아동·청소년패널 조사, 2010-2024년,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개인수: 2,077명
 관측치: 11,152개

그림 V-7. 성별에 따른 졸업·취업·분가 조합별 삶의 만족도 예측값: 개인 내 분석 결과



자료: 한국아동·청소년패널 조사, 2010-2024년,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개인수: 2,077명
 관측치: 11,152개

그림 V-8. 가족배경에 따른 졸업·취업·분가 조합별 삶의 만족도 예측값: 개인 내 분석 결과



자료: 한국아동·청소년패널 조사, 2010-2024년,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개인수: 2,077명
 관측치: 11,152개

그림 V-9. 교육 수준에 따른 졸업·취업·부가 조합별 삶의 만족도 예측값: 개인 내 분석 결과

교육 수준별 분석에서는 유지조사 기간 동안 4년제 대학을 다닌 적이 있는 고학력자가 저학력자보다 전반적으로 삶의 만족도가 높았다. 그러나 고학력자도 졸업을 하였으나 취업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삶의 만족도가 다른 경우보다 낮았다. 저학력자는 세 가지 성인기 이행 여부와 관계없이 전반적으로 낮은 삶의 만족도를 보였으며, 취업의 긍정적 효과가 분명히 나타났다. 이는 한국 청년들의 사회경제적 맥락을 결정하는 핵심 요소인 교육 수준이 성인기 역할 이행과 삶의 만족도의 관계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보여준다.

5. 논의

1) 결과 요약

본 연구는 한국 청년들의 초기 성인기 핵심 역할 이행인 최종학교 졸업, 취업, 분가가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한국 아동·청소년패널조사 2010의 본조사 및 유지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청년들의 삶의 만족도는 고등학교 졸업 2년 이후부터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낮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이러한 감소 추세가 진행되는 초기 성인기 동안 졸업과 취업은 꾸준히 증가하였으며, 분가 역시 완만히 상승하였다. 그러나 조사 종료 시점까지 세 가지 전환을 모두 완료하지 못한 응답자가 여전히 다수를 차지하며, 성인기 이행이 획일적·단선적으로 진행되지 않고 시기와 조합에서 상당한 다양성을 보임이 확인되었다. 따라서 세 가지 성인기 역할 이행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보다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 패널 자료를 이용한 회귀분석을 시행하였다.

삶의 만족도의 총 분산을 분해한 결과, 29.9%는 개인 간 차이로, 70.1%는 개인 내 변화로 설명되었다. 이는 개인 간 차이 분석과 개인 내 변화 분석이 모두 의미를 가지지만, 삶의 만족도가 개인의 고유한 특성보다는 동일 개인의 시간적 변화와 사회적 맥락에 따라 더 크게 달라진다는 점을 보여주며, 개인 간 분석보다 개인 내 분석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개인 간 분석에서는 졸업과 삶의 만족도 간의 부정적 연관성과 취업의 긍정적 연관성이 확인되었으며, 분가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세 가지 이행의 상호작용은 유의하지 않았지만, 졸업했으나 취업하지 못한 집단의 삶의 만족도가 특히 낮게 나타나는 경향이 확인되었다. 한편, 성별·가구소득·교육 수준과 같은 사회인구학적 요인과 삶의 만족도의 관계는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는데, 여성보다는 남성이, 가구소득 상위 집단이 하위

집단보다, 그리고 4년제 대학 재학 경험이 있는 청년이 그렇지 않은 청년보다 삶의 만족도가 높았다.

개인 내 분석에서는 졸업의 부정적 효과와 취업의 긍정적 효과가 유의하게 나타났다. 분가는 유의한 효과를 보이지 않았으며, 세 가지 역할 이행 간의 상호작용도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예측값 분석에서는 ‘졸업은 했으나 취업하지 못한 경우’의 삶의 만족도가 다른 조합에 비해 현저히 낮은 것으로 나타나, 학교에서 일자리로의 이행이 원활하지 않을 때 삶의 만족도의 하락이 특히 심각하다는 점이 확인되었다.

탐색적인 목적에서 실시한 성별, 가구소득, 교육 수준에 따른 하위 집단 분석에서도 전체 집단 분석에서 확인된 주요 패턴이 공통적으로 나타났다. 특히 졸업 후 취업이 병행되지 않을 때 삶의 만족도가 낮아지는 경향은 모든 하위 집단에서 일관되게 관찰되었다. 그 외에도 남성은 분가가 삶의 만족도를 낮추는 반면, 여성은 분가를 통해 오히려 삶의 만족도가 높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또한 가구소득이 낮은 집단에서는 분가가 부정적으로 작용한 반면, 소득이 높은 집단에서는 분가의 긍정적인 효과가 확인되었다. 고학력자에 비해 저학력자는 전반적으로 낮은 삶의 만족도를 보였으나, 취업의 긍정적 효과는 더욱 두드러졌다.

요컨대 본 연구의 분석은 한국 청년들이 일반적으로 초기 성인기에 삶의 만족도의 하락을 경험하며, 졸업 이후의 사회경제적 부담이 이러한 하락을 가속화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특히 졸업 이후 취업하지 못한 경우 삶의 만족도의 하락이 두드러졌다. 취업 경험은 삶의 만족도 향상에 있어 가장 확실한 긍정적 요인으로 확인되었다. 분가는 평균적으로 일관된 효과를 보이지 않았으나, 성별, 가구소득, 교육 수준에 따라 그 영향이 달라지면서 사회경제적 맥락의 중요성이 드러났다.

2) 제언 및 시사점

한국 청년들의 삶의 만족도는 비슷한 수준의 경제 발전을 달성한 국가의 청년들에 비해 현저히 낮은 뿐만 아니라, 고등학교 졸업 이후 초기 성인기를 거치며 감소하는 경향이 있다. 본 연구는 연령에 따른 단선적인 성인기 이행 과정을 전제하는 접근을 넘어, 패널 자료를 활용해 세 가지 핵심적인 초기 성인기 역할 이행인 최종학교 졸업, 취업, 분가가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심층적으로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졸업 이후 취업을 하지 못할 경우 삶의 만족도의 하락이 가장 두드러졌으며, 이는 학교에서 일자리로의 원활한

이행이 삶의 만족도 하락을 완화하는 핵심 요인임을 보여준다. 반대로 취업 경험은 삶의 만족도 향상에 있어 가장 확실한 긍정적 효과를 지닌 요인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한국 청년들이 경험하는 초기 성인기 삶의 만족도 하락을 완화하기 위해 무엇보다 ‘학교-일자리 이행(school-to-work transition)’을 촉진하는 정책적 노력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또한 분가가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은 일관적이지 않았으며, 성별, 가구소득, 교육 수준에 따라 상이하게 나타났다. 남성에게는 분가가 삶의 만족도를 낮추는 반면, 여성에게는 오히려 높이는 방향으로 작용하는 경향이 있었다. 사회경제적 자원이 충분한 집단에서는 분가의 긍정적 효과가, 그렇지 않은 집단에서는 부정적 효과가 확인되었다. 이는 분가가 단순한 자립의 지표가 아니라 가족·성별·경제적 맥락 속에서 다르게 경험되는 복합적 과정임을 보여주며, 향후 정책은 이러한 맥락적 요인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아울러 교육 수준 역시 삶의 만족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확인되었다. 고학력자는 전반적으로 높은 삶의 만족도를 보였으나, 졸업 후 취업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만족도의 급격한 하락을 경험하였다. 저학력자는 전반적으로 낮은 삶의 만족도를 보였지만, 취업 경험이 삶의 만족도를 높이는 긍정적 효과가 두드러졌다. 이는 교육 수준에 따라 일자리의 질과 안정성이 달라지고, 그에 따라 삶의 만족도의 변화도 상이하게 나타난다는 점을 보여준다. 따라서 청년 정책은 학력에 따른 노동시장 진입 격차를 완화하고, 안정적이고 질 높은 일자리 기회를 확대하는 데 집중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초기 성인기의 삶의 만족도 하락을 완화하기 위해 학교-일자리 이행에 대한 제도적 지원, 성별 및 가족 배경을 고려한 맞춤형 정책, 교육 수준에 따른 격차 해소가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한다. 청년들의 삶의 만족도를 높이는 것은 개인의 행복 증진을 넘어, 한국 사회의 장기적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핵심 과제이기도 하다.

○———— 제6장 결론 및 제언

- 1. 요약
- 2. 정책적 시사점

1. 요약

본 연구는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KCYPS 2010)의 중1패널과 유지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청소년에서 성인기로 이행하는 과정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특히 고등학교 3학년 시기의 교육기대와 실제, 학교에서 일자리로의 전환, 초기 성인기의 주요 역할행(졸업·취업·분가)이 청년의 삶의 만족도와 어떻게 연계되는지를 종합적으로 규명함으로써, 청년의 사회이행 구조를 다층적으로 이해하고자 하였다.

본 장에서는 이와 같은 결과를 도출한 네 가지 연구를 요약하고 통합적 시사점을 기술하고자 한다.

첫째, 본 연구는 고3 시기의 교육기대가 이후 실제 이행과 어떤 관계를 가지는지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교육기대는 성별, 학업성취도, 고교유형, 거주지, 가정배경 등 구조적 요인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대부분의 학생이 ‘대학 진학’을 기본 경로로 인식하였으나, 실제 이행에서는 기대와 현실의 불일치가 적지 않았다. 특히 고졸 취업이나 대학원 진학을 희망했던 집단의 상당수는 예상과 달리 대학 진학을 선택한 것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현상은 진로정체감과 더불어, 학업 성취, 진로 정보 접근성 등 청소년기의 경험이 이후 경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작용함을 보여준다. 결과적으로 청소년기의 진로결정은 개인의 의지보다는 교육체계와 사회경제적 환경이 결합된 구조적 맥락 속에서 이루어진다는 점이 확인되었다.

둘째, 심층면담 분석을 통해 청소년기의 교육기대가 형성되고 변화하는 과정을 구체적으로 탐색하였다. 그 결과, 참여자들은 ‘현실적 포기형’, ‘실용적 타협형’, ‘상향 지속형’의

7) 본 장은 김윤희 부연구위원(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집필하였음.

세 유형으로 구분되었으며, 세 유형 모두 '대학 진학은 사회적으로 필수적 경로'라는 인식을 공유하였다. 즉, 교육기대의 형성과 이행은 개인의 능력이나 노력보다 학교 풍토, 사교육 참여 정도, 가족의 기대, 지역적 환경 등 제도적·문화적 요인에 의해 크게 영향을 받았다. 더불어 일부 참여자는 경제적 제약이나 지역적 기회 부족으로 인해 기대 수준을 낮추거나 수정하는 경험을 보고하였다. 이와 같은 결과는 교육기대의 형성이 사회구조적 불평등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음을 시사하며, 제도적 환경이 개인의 진로선택을 제약하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함을 보여준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진로교육은 개인의 흥미나 적성 중심에서 벗어나, 사회구조적 격차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확대될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셋째, 학교에서 노동시장으로의 전환 과정을 분석한 결과, 청년의 이행 경로는 크게 네 가지로 구분되었다. 즉, '대졸-재직형', '조기 재직형', '학업 지속 후 중단형', '전문대 일-쉽 반복형'의 유형이 확인되었다. 이 중 '대졸-재직형'은 비교적 안정적인 경로를 보였으나, '조기 재직형'과 '일-쉽 반복형'은 고용의 불안정성과 낮은 만족도를 특징으로 하였다. 이러한 차이는 단순한 개인 노력의 결과라기보다, 가정의 사회경제적 배경, 초기 일자리의 질, 사회적 자본의 유무 등 구조적 요인에 의해 좌우되는 경향이 뚜렷하였다. 특히 조기 재직형의 경우 빠른 노동시장 진입에도 불구하고 장기적 안정성을 확보하기 어려웠으며, 초기 일자리의 질이 이후 경력의 방향성과 삶의 만족도에 결정적 영향을 미쳤다. 따라서 청년의 노동시장 이행은 개인의 선택에 국한되지 않고, 사회적 자원 분포와 제도적 조건에 의해 규정되는 복합적 과정으로 이해할 수 있다.

넷째, 초기 성인기 역할 이행(졸업·취업·분가)이 청년의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고등학교 졸업 이후 청년의 삶의 만족도는 전반적으로 하락하였으며, 특히 '졸업 후 미취업' 상태에서 만족도 저하가 두드러진 반면, 취업 경험은 삶의 만족도를 향상시키는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한편, 분가는 사회경제적 여건에 따라 상이한 영향을 미쳤다. 남성은 분가 이후 만족도가 낮아지는 경향을 보였으나, 여성은 자율성과 심리적 안정감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소득 수준이 높은 집단에서는 분가가 긍정적으로 작용했지만, 경제적 제약이 큰 집단에서는 오히려 부담으로 작용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삶의 만족도가 개인의 역할 이행 자체보다 사회경제적 조건과 자원 접근성의 차이에 따라 달라지는 경향이 있음을 보여준다. 즉, 이는 개인의 주관적 행복이 구조적 불평등과 밀접하게 연동될 가능성을 시사한다.

이상의 결과를 통합적으로 보면, 청년의 성인기 이행은 단일한 개인적 경로로 설명되기

어렵고, 사회구조적 조건과 개인적 선택이 상호작용하는 다층적 과정으로 이해된다. 청소년기의 교육기대는 가정배경과 학교제도의 영향을 받으며, 이는 이후 학교-일자리 이행 경로를 제한하거나 촉진하는 구조적 요인으로 작용한다. 나아가 초기 성인기의 졸업·취업·분가 과정은 교육, 노동, 주거의 연속적 전환 속에서 상호의존적으로 전개되며, 사회경제적 자원 접근성과 제도적 지원의 수준에 따라 이행의 질이 달라진다. 즉, 청년의 사회이행은 개인이 처한 구조적 위치와 제도적 맥락의 산물로, ‘이행의 질’은 사회가 청년에게 제공하는 기회구조와 지원 체계의 수준을 반영하는 지표로 해석될 수 있다.

2. 정책적 시사점

이러한 결과는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보여준다. 첫째, 학교-일자리 이행의 연속성 강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분석 결과, 학업에서 취업으로의 전환이 지연될수록 청년의 삶의 만족도가 구조적으로 낮아지는 경향이 확인되었다. 이는 청소년기 진로교육과 고등교육 단계의 노동시장 연계가 이행의 질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보여준다. 따라서 학업과 고용의 단절을 최소화하고, 전환기의 불확실성을 완화할 수 있는 연속적 지원체계가 요구된다.

둘째, 진로교육의 구조적 지원이 강화될 필요성이 있다. 교육기대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가정·학교·지역 간 격차는 진로결정의 기회 불평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에 진로탐색 기회와 정보 접근의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학교교육을 넘어 지역사회와 가정의 연계가 강화되어야 함을 보여준다. 진로교육은 개인의 흥미 발굴뿐 아니라, 제도적 불평등을 완화하는 사회적 장치로 기능할 필요가 있다.

셋째, 불안정 이행의 사회적 의미를 재정의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즉, 조기 취업, 일·습반복형 등 비전형적 경로는 단순히 실패가 아니라, 경력 탐색과 적응의 과정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반복적 전환을 포용할 수 있는 사회적 이해와 제도적 수용 구조가 마련된다면, 청년의 노동시장 경험이 장기적 경력으로 연결될 수 있다.

넷째, 주거와 자립의 지원 방향성이 요구된다. 분가의 효과가 성별과 소득에 따라 상이하게 나타난 것은 주거 안정성이 청년의 심리적·사회적 안정의 핵심 조건임을 보여준다. 청년의 자립이 경제적 부담으로 전이되지 않도록 지원의 방향성이 환경적·구조적 요인을 함께 고려하는 방식으로 조정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삶의 만족도를 반영한 청년정책 평가체계의 구축 필요성이 제기된다. 청년 정책이 단순한 취업률이나 소득 수준 중심의 성과지표에 머무르지 않고, 청년의 삶의 질 변화를 포괄적으로 반영해야 한다. 교육·고용·주거의 연속적 전환을 통합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지표 개발이 향후 정책 효과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이다.

본 연구는 몇 가지 한계가 존재하며, 이에 따른 후속 연구 방향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전국 단위 청소년을 대상으로 시작된 2010년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KCYPS) 중1패널 자료를 활용하였으나, 이후 사회·경제적 구조 변화나 청년세대의 고용·주거 환경 변화를 충분히 반영하기에는 제약이 있다. 따라서 향후 연구에서는 최근 조사자료나 후속 패널을 활용하여, 세대 간 변화를 비교 분석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둘째, 분석의 초점이 개인 수준의 변수를 중심으로 이루어져 제도적 개입이나 정책 효과를 직접 검증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향후에는 제도적 요인과 사회정책 변수를 함께 고려하여, 구조적 영향력을 보다 명확히 규명할 필요가 있다.

셋째, 본 연구는 청년의 성인기 이행을 교육·고용·주거 중심으로 분석하였으나, 사회참여, 관계망, 가족 형성 등 다양한 삶의 영역을 포괄하지는 못하였다. 이러한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삶의 질을 구성하는 다차원적 요인을 통합적으로 고려한 연구가 필요하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후속 연구에서는 세 가지 방향의 확장이 요구된다.

우선, 청년층을 대상으로 한 후속 패널 구축과 세대 간 비교연구를 통해, 시기별 사회이행 구조의 변화를 장기적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다. 또한, 정책 제도와 노동·교육·복지 영역의 상호작용을 반영한 다층적 분석이 수행될 필요가 있다.

나아가, 일자리의 질, 주거 안정성, 사회참여, 가족관계 등 삶의 다양한 구성요소를 통합적으로 탐색함으로써, 청년의 사회이행과 삶의 질 간의 동태적 관계를 보다 심층적으로 규명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한계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그간 단편적으로 다루어졌던 청년의 사회이행을 장기적 시계에서 통합적으로 접근하였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특히 청소년기부터 성인 초기까지의 연속적 경로를 추적한 장기 패널 데이터를 활용하여, 교육기대와 실제 이행, 학교에서 일자리의 전환, 그리고 초기 성인기의 역할 수행이 서로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실증적으로 규명하였다. 또한 양적 분석과 질적 분석을 병행함으로써, 수치로는 포착되기 어려운 사회구조적 맥락과 개인의 경험을 함께 해석할 수 있었다. 이러한 접근은 청년의 사회이행을 단편적 사건이 아닌, 시간 속에서 변화하는 과정으로 이해할

수 있게 한다는 점에서 방법론적 의의를 지닌다.

종합하면, 본 연구는 교육기대, 학교-일자리 이행, 초기 성인기 역할 전환이 청년의 삶의 질과 구조적으로 연계되어 있음을 실증적으로 확인하였다. 청년의 성인기 이행은 개인의 선택과 사회구조적 조건이 맞물려 작동하는 복합적 과정으로, 이를 체계적으로 이해하는 것은 향후 청년정책의 설계와 평가에서 실질적인 근거를 마련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결과적으로 본 연구는 청년의 성인기 이행을 구조적으로 이해하기 위한 실증적 근거를 제시함으로써, 향후 청년정책의 체계적 설계와 평가의 기반을 마련하였다. 나아가 청년이행의 질 향상을 위한 사회적 논의에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는 학문적·정책적 의의를 가진다.

○ ————— **참고문헌**

참고문헌

- 교육부 (2023a).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지정 추진계획**.
- 교육부 (2023b). **진로교육 활성화 방안(2023~2027)**.
- 교육부,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서비스(2024). KESS <https://kess.kedi.re.kr/>에서 2024년 10월 29일 인출.
- 국가데이터처 (2025). **2025년 5월 경제활동인구조사 청년층 부가조사 결과**. 대전: 국가데이터처.
- 권혁진, 유호선 (2011). 청년층의 학교에서 고용으로의 이행 특성: 성, 학력별 이행과정의 차이를 중심으로. **사회복지정책**, 38(1), 1-31.
- 기노시타 야스히토 (2017). **질적연구법 실천: 수정판 근거이론 접근법의 모든 것 (M-GTA:Modified Grounded Theory Approach)** (황경성 역). 파주: 범우사.
- 김기현 (2025). 아동·청소년패널 추진 배경과 청년정책 연계 방안. **서울연구원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제1차 공동포럼 「청년 삶의 경로를 고려한 데이터 기반 연구 방안」** 자료집. 서울: 서울연구원.
- 김기현, 방하남 (2005). 고등교육 진학에 있어 가족배경의 영향과 성별 격차: 한국과 일본의 경우: 한국과 일본의 경우. **한국사회학**, 39(5), 119-151.
- 김기현, 배정희, 김창환, 성재민 (2021). **청년 사회 첫 출발 실태 및 정책방안 연구 I: 일자리** (연구보고 21-R19). 세종: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김기현, 오병돈 (2024). **2024 한국 아동·청소년 패널조사: 데이터분석보고서-성인기 이행** (연구보고 24-일반05-01). 세종: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김성남, 최수정 (2012). 청년기의 교육 및 노동시장 이행 경로 유형화: 고교계열에 따른 차이를 중심으로. **직업교육연구**, 31(3), 227-249.
- 김진모, 전영욱, 류지은, 김영흥, 정지용 (2018). 직업계고 졸업자의 경력유형별 학교생활

- 과 노동시장성과 분석. **농업교육과 인적자원개발**, 50(2), 105-126.
- 김창환 (2022). 가족의 사회경제적 배경과 대학원 진학 확률의 성별 격차. **한국사회학**, 56(1), 151-201.
- 김희명, 황매향 (2015). 한국판 아동용 끈기(Grit) 척도의 타당화. **경인교육대학교 교육연구원 교육논총**, 35(3), 63-74.
- 노법래 (2013). 시퀀스 분석을 통한 장애인의 노동시장 참여 패턴과 그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장애와 고용**, 23(1), 109-130.
- 박미희, 홍백의 (2014). 청년층의 노동시장 이행 유형과 그 결정요인. **사회복지정책**, 41(4), 21-49
- 박수익 (2010). 교육기대의 변화에 대한 성별 차이 연구. **교육사회학연구**, 20(2), 101-128.
- 변금선 (2018). 학교에서 노동시장으로 이행의 계층화-1970-80년대 출생코호트의 청년기 노동궤적 비교-. **한국사회복지학**, 70(3), 113-137.
- 변금선, 김기훈 (2019). 청년층의 삶의 질 격차에 관한 연구: 1988~1998년생 청년의 다중격차 실태 분석. **사회복지정책**, 46(2), 257-285.
- 변기용 (2020). **근거이론적 방법: 현장 기반 이론 생성을 위한 질적 연구**. 서울: 학지사.
- 오유진, 김교성 (2019). 성별·학력별 청년 노동시장의 이행 궤적과 유형 비교. **노동정책연구**, 19(3), 1-35.
- 유민상, 신동훈, 신영규, 박미희 (2022). **청년 사회 첫 출발 실태 및 정책방안 연구 II: 성인 이행기 청년의 자립** (연구보고 22-일반07). 세종: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유현주, 박자경, 민지식 (2021). 청년층의 생애 숙련변화 궤적 유형화 및 특성 분석. **노동정책연구**, 1-36.
- 이혜란, 이지은, 류신혜 (2024). 핀란드, 미국, 한국 학생의 기대교육포부 수준과 학업성취도의 관계: 부모의 SES 집단 비교를 중심으로. **교육사회학연구**, 34(1), 67-94.
- 장근영, 성은모, 모상현, 진성희, 최효선, 김균희 (2015). **청소년 역량지수 측정 및 국제비교 연구 III: IEA ICCS 2016-총괄보고서** (연구보고 18-R15). 세종: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장원빈, 문의정 (2023). 부모와 자녀 간 교육기재 수준의 불일치가 청소년의 자아존중감, 우울감,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성별 비교를 중심으로. **아동복지연구**, 21(2), 1-23.

- 장윤선, 임소현, 이윤희, 김은영 (2023). 학부모의 자녀교육 기대 관련 요인 탐색: KELS 2005, 2013 코호트 비교를 중심으로. *아시아교육연구*, 24(2), 371-392.
- 정민철, 민현주 (2024). 대졸자 전공계열에 따른 노동시장 이행궤적 분석: 집단중심추세모형을 중심으로. *사회과학연구논총*, 40(2), 335-356.
- 차종천, 오병돈 (2012). 교육열망과 학습참여가 학업성취의 불평등에 미치는 영향: 공교육, 사교육, 자기주도학습에 대한 비교분석. *아시아교육연구*, 13(4), 417-441.
- 최인희 (2020). 대학원생의 특징 및 대학원 진학 영향 요인 분석: 한국교육종단연구 자료를 중심으로. *열린교육연구*, 28(4), 23-43.
- 하형석, 김기현, 최인재, 한지형 (2024). 2024 한국아동 청소년패널조사: 사업보고서 (연구보고 24-일반05). 세종: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하형석, 정은진, 최승주 (2017).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 VIII: 한국청소년패널조사 2018 기초연구** (연구보고 17-R16-3). 세종: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한국은행 (2024). **2024년 11월 경제전망보고서**. 서울: 한국은행.

- Alexander, K., Bozick, R. & Entwisle, D. (2008). Warming up, Cooling out, or Holding Steady? Persistence and Change in Educational Expectations after High School. *Sociology of Education*, 81(4), 371-396.
- Alwin, D. F. & Otto, L. B. (1977). High School Context Effects on Aspiration. *Sociology of Education*, 50(4), 259-273.
- Arnett, J. J. (2000). Emerging adulthood: A theory of development from the late teens through the twenties. *American Psychologist*, 55(5), 469-480.
- Arnett, J. J. (2007). Emerging adulthood: What is it, and what is it good for?. *Child development perspectives*, 1(2), 68-73.
- Belle, M. A., Antwi, C. O., Ntim, S. Y., Affum-Osei, E., & Ren, J. (2022). Am I gonna get a job? Graduating students' psychological capital, coping styles, and employment anxiety. *Journal of Career Development*, 49(5), 1122-1136.
- Blanchflower, D. G. (2021). Is happiness U-shaped everywhere? Age and subjective well-being in 145 countries. *Journal of Population Economics*, 34, 575-624.

- Blanchflower, D. G., & Oswald, A. J. (2008). Is well-being U-shaped over the life cycle? *Social Science & Medicine*, *66*(8), 1733-1749.
- Blustein, D. L., Juntunen, C. L., & Worthington, R. L. (2000). The school-to-work transition: Adjustment challenges of the forgotten half. In S. D. Brown & R. W. Lent (Eds.), *Handbook of Counseling Psychology* (3rd ed., pp. 435-470). New York: Wiley.
- Brzinsky-Fay, C., & Kohler, U. (2010). New developments in sequence analysis. *Sociological methods & research*, *38*(3), 359-364.
- Brzinsky-Fay, C., Kohler, U., & Luniak, M. (2006). Sequence analysis with Stata. *The Stata Journal*, *6*(4), 435-460.
- Choi, Y. K., Joshanloo, M., Lee, J. H., Lee, H. S., Lee, H. P., & Song, J. (2023). Understanding key predictors of life satisfaction in a nationally representative sample of Koreans. *International Journal of Environmental Research and Public Health*, *20*(18), 6745. <https://doi.org/10.3390/ijerph20186745>.
- Diener, E. (1984). Subjective well-being. *Psychological Bulletin*, *95*(3), 542-575.
- Dietrich, H. (2012). *Youth Unemployment in Europe: Theoretical Considerations and Empirical Findings*. Bonn: Friedrich-Ebert-Stiftung.
- Duckworth, A. (2016). *Grit: The power of passion and perseverance*. New York: Simon & Schuster.
- Furstenberg, F. F., Rumbaut, R. G., & Settersten, R. A. (2005). On the frontier of adulthood: Emerging themes and new directions. In R. A. Settersten, F. F. Furstenberg & R. G. Rumbaut (Eds.), *On the Frontier of Adulthood: Theory, Research, and Public Policy* (pp. 3-25).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Gilmore, D. D. (1990). *Manhood in the Making: Cultural Concepts of Masculinity*. New Haven, CT: Yale University Press.
- Giustinelli P. (2022). *Expectations in Education: Framework, Elicitation, and Evidence*. In Human Capital and Economic Opportunity Working Group, Working Papers.
- Graham, C., & Ruiz Pozuelo, J. (2017). Happiness, stress, and age: How the

- U curve varies across people and places. *Journal of Population Economics*, 30(1), 225-264.
- Helliwell, J. F., & Huang, H. (2014). New measures of the costs of unemployment: Evidence from the subjective well-being of 3.3 million Americans. *Economic Inquiry*, 52(4), 1485-1502.
- Helliwell, J. F., & Wang, S. (2014). Life satisfaction in Korea: Trends, distributions, and explanations. In J. Helliwell, R. Layard, & J. Sachs (Eds.), *Measuring and Explaining Subjective Well-Being in Korea* (pp. 51-78). Paris: OECD Publishing.
- Helliwell, J. F., Layard, R., Sachs, J. D., De Neve, J.-E., Aknin, L. B., & Wang, S. (Eds.). (2024). *World Happiness Report 2024*. University of Oxford: Wellbeing Research Centre.
- Ho, J. H. (2015). The problem group? Psychological wellbeing of unmarried people living alone in the Republic of Korea. *Demographic Research*, 32(47), 1299-1328.
- Hogan, D. P., & Astone, N. M. (1986). The transition to adulthood. *Annual Review of Sociology*, 12, 109-130.
- Holdsworth, C. (2004). Family support during the transition out of the parental home in Britain, Spain and Norway. *Sociology*, 38(5), 909-926.
- Iacovou, M. (2002). Regional differences in the transition to adulthood. *The Annals of the American Academy of Political and Social Science*, 580(1), 40-69.
- Ibrahim, Z. L., & Nadif, B. (2025). The pursuit of happiness: A meta-analysis review. *Journal of Interdisciplinary Studies*, 14(3), 1-29.
- Ilies, R., Yao, J., Curseu, P. L., & Liang, A. X. (2019). Educated and happy: A four-year study explaining the links between education, job fit, and life satisfaction. *Applied Psychology*, 68(1), 150-176.
- Jones, G., & Wallace, C. (1992). *Youth, Family, and Citizenship*. Philadelphia: Open University Press. 강영배, 김기현 (역). **청소년 시민사회론**. 서울: 교육과학사.

- Karavdic, S., & Baumann, M. (2014). Positive career attitudes effect on happiness and life satisfaction by master students and graduates. *Open Journal of Social Sciences*, 2, 15-23.
- Karwetzky, C., Michaelsen, M. M., Werdecker, L., & Esch, T. (2022). The U-curve of happiness revisited: Correlations and differences in life satisfaction over the span of life—An empirical evaluation based on data from 1,597 individuals aged 12-94 in Germany. *Frontiers in Psychology*, 13, 837638.
- Kins, E., Beyers, W., Soenens, B., & Vansteenkiste, M. (2009). Patterns of home leaving and subjective well-being in emerging adulthood. *Developmental Psychology*, 45(5), 1416-1429.
- Kruskal, J. B. (1983). An overview of sequence comparison: Time warps, string edits, and macromolecules. *SIAM review*, 25(2), 201-237.
- Marshall, A. E., & Butler, K. (2015). School-to-work transitions in emerging adulthood. In J. J. Arnett (Ed.), *The Oxford Handbook of Emerging Adulthood* (pp. 316-333). Oxford, UK: Oxford University Press.
- McKee-Ryan, F., Song, Z., Wanberg, C. R., & Kinicki, A. J. (2005). Psychological and physical well-being during unemployment: A meta-analytic study. *Journal of Applied Psychology*, 90(1), 53-76.
- Mencarini, L., Vignoli, D., Zeydanli, T., & Kim, J. (2018). Life satisfaction favors reproduction. The universal positive effect of life satisfaction on childbearing in contemporary low fertility countries. *PloS one*, 13(12), e0206202.
- Mencarini, L., Vignoli, D., Zeydanli, T., Junho, Kim. (2018). Life satisfaction favors reproduction. The universal positive effect of life satisfaction on childbearing in contemporary low fertility countries. PLOS ONE. 13(12), e0206202. <https://doi.org/10.1371/journal.pone.0206202>.
- Morgan, S. L. (1998). Adolescent educational expectations: Rationalized, fantasized, or both?. *Rationality and Society*, 10(2), 131-162.
- Mundlak Y. (1978). On the Pooling of Time Series and Cross Section Data.

- Econometrica*, 46(1), 69-85.
- Nilsson, B. (2019). The school-to-work transition in developing countries. *The Journal of Development Studies*, 55(5), 745-764.
- OECD. (1996). "Transition from School to Work," in *Education at a Glance: Analysis*. Paris: OECD, 14-53.
- OECD. (1998). "Getting Started, Settling in: the Transition from Education to the Labour Market," in *OECD Employment Outlook*, June. Paris: OECD, 81-122.
- OECD. (2024). *How's Life? 2024: Well-being and Resilience in Times of Crisis*. OECD Publishing, Paris: OECD. September 27, 2025, from <https://doi.org/10.1787/90ba854a-en>.
- Qu, L., & de Vaus, D. (2015). Life satisfaction across life course transitions. *Journal of the Home Economics Institute of Australia*, 22(2), 15-27.
- Rubin, D. B. (1987). *Multiple Imputation for Nonresponse in Surveys*. New York, NY: John Wiley & Sons.
- Ryan, P. (2001). The school-to-work transition: A cross-national perspective. *Journal of Economic Literature*, 39(1), 34-92.
- Salinas-Jiménez, M. D. M., Artés, J., & Salinas-Jiménez, J. (2011). Education as a positional good: A life satisfaction approach. *Social Indicators Research*, 103(3), 409-426.
- Schoon, I., & Bynner, John. (2019). Young people and the Great Recession: Variations in the school-to-work transition in Europe and the United States. *Longitudinal and Life Course Studies*, 10(2), 153-173.
- Schwanitz, K., Rampazzo, F., & Vitali, A. (2021). Unpacking intentions to leave the parental home in Europe using the Generations and Gender Survey. *Demographic Research*, 45, 17-54.
- Settersten Jr, R. A. (2007). The new landscape of adult life: Road maps, signposts, and speed lines. *Research in Human Development*, 4(3-4), 239-252.
- Siembab, M., & Stawarz, N. (2019). How does life satisfaction change during

- the transition from school to work? *Journal of Happiness Studies*, 20, 165-183.
- Strauss, A., & Corbin, J. M. (1990). *Basics of qualitative research: Grounded theory procedures and techniques*. Sage Publications, Inc.
- Strauss, A., & Corbin, J. M. (1998). *Basics of qualitative research: Techniques and procedures for developing grounded theory (2nd ed.)*. Sage Publications, Inc.
- Tolgensbakk, I., Vedeler, J. S., & Hvinden, B. (2017). *Youth unemployment and the consequences for life satisfaction and social trust in seven European countries (NEGOTIATE Working Paper No. 4.4)*. Oslo: Norwegian Social Research, Oslo and Akershus University College of Applied Sciences.
- Trusty, J. (2000). High Educational Expectations and Low Achievement: Stability of Educational Goals Across Adolescence. *Journal of Educational Research*, 93(6), 356-365.
- Zhong, H., & Xu, J. (2023). Precarious employment and subjective career success during the school-to-work transition. *Psychology Research and Behavior Management*, 16, 2327-2339.

○ — 부 록

부 록

1. 면담질문지

면담질문지

- 여는 말

- 가벼운 인사, 연구자 소개, 연구목적 및 통계법 제33조 등을 전달함
- 면담대상자의 자기소개(현재 하는 일, 거주 지역 등), 면담 참여 동기 및 소감 등을 요청함
- 2016년부터 지금까지의 경험을 충분히 기억을 되살릴 필요가 있음을 알림
- 연구에 활용할 수 있도록 단답식보다는 충분한 내용의 답변을 요청하고 자신의 경험 뿐 아니라 자신과 유사한 경험을 한 동료의 입장을 포함해서 답변해 줄 것을 요청함

I. 고3 당시의 교육기대

1. [공통] 고등학교 3학년 당시, 본인이 기대하거나 계획했던 진학 경로는 어떤 것이었나요?

- 대학 진학(전문대, 4년제, 대학원 등), 취업, 휴식, 기타 활동 등
- 당시에 가장 희망했던 대학 또는 전공은 무엇이었나요?

2. [공통] 진학(또는 취업) 목표를 세우게 된 배경에는 어떤 요인들이 주로 작용했고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 성적, 적성, 흥미, 부모님의 학력 수준과 직업, 가정의 경제적 상황 등

- 고교 계열(직업계고, 일반고), 고교 소재지(수도권, 비수도권) 등
- 교사의 조언, 진로교육, 직업활동체험, 자원봉사활동, 아르바이트 등
- 국내의 경제상황, 취업시장 상황, 정책상황(직업계고 활성화), 입시제도 변화 등

3. [공통] 당시 진학(또는 취업) 목표에 대해 얼마나 자신감을 가지고 있었나요?

- 자아존중감(자기 자신의 능력, 성품, 가치에 대한 느낌)을 통한 목표 달성 가능성

4. [공통] 진학(또는 취업) 준비 과정에서 특별히 어려웠던 점이나 고민했던 점이 있었다면 무엇이었나요?

- 학교의 진로교육, 학교 현장실습 관리 등
- 정부의 교육정책, 청년 취업진로지원정책 관련

II. 실제 교육기대 이행(진학 또는 취업) 과정

5. [대학·대학원 진학(졸업)자] 현재 본인의 최종 학력은 어떻게 되나요?

(예: 고졸, 전문대 졸업, 4년제 졸업, 대학원 진학 등)

- 현재 상태와 고3 당시 기대 간의 차이가 있었다면, 그 변화는 어떤 이유에서 비롯되었나요?

5-1. [고졸자] 고등학교 졸업 직후 어떤 경로를 선택하게 되었나요?

- 취업, 아르바이트, 군 입대, 진로 모색 등

5-2. [고졸자] 결과적으로 대학 진학을 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 학업의지 부족, 성적 부족, 입시 실패, 등록금 부담, 가족 부양, 직업 선택 등

6. [대학·대학원 진학(졸업)자] 재수를 하거나 진학을 유예한 경험이 있다면, 그 선택을 하게 된 이유는 무엇이었나요?

6-1. [고졸자] 재수를 준비한 경험이 있다면, 어떤 이유로 중단하게 되었습니까?

7. [대학·대학원 진학(졸업)자] 재학 중인 대학의 소재지(수도권, 비수도권)는 진로 결정에 어떤 영향을 주었나요?

- 수도권 대학에 대한 기대, 주거지 또는 가족 상황의 영향 등

8. [대학·대학원 진학(졸업)자] 재학 중인 대학의 유형(2년제, 3년제, 4년제, 5~6년제)을 선택하게 된 이유는 무엇이었나요?

- 학비, 조기 취업, 성적 부담, 전공 특성, 대기업 취업 등

9. [대학·대학원 진학(졸업)자] 대학 입학 시 모집 방법(수시/정시), 전형 유형(일반/특별/기타)은 어떤 것이었고,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 해당 전형을 선택한 이유(예컨대, 그 전형이 본인에게 유리했다고 생각했는지)

9-1. [고졸자] 입시제도(모집방법: 수시/정시, 전형 유형:일반/특별/기타 등)에 대해 어떤 느낌을 받았으며, 자신에게 유리했는지 혹은 불리했는지?

10. [대학·대학원 진학(졸업)자] 입시 과정에서 본인이 고려한 주요 기준은 무엇이었으며,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 예: 대학명(대학 서열) vs 전공, 취업률 vs 흥미, 부모의 의견 vs 본인 판단 등

11. [대학·대학원 진학(졸업)자] 실제로 대학에 진학한 후, 입학 전의 기대와 얼마나 일치했나요?

- 만족스러웠던 점과 실망했던 점, 대학생활에서 느꼈던 개인적인 변화

11-1. [고졸자] 실제로 대학에 진학하지 않고 곧바로 사회로 진입하면서 경험한 가장 큰 어려움은 무엇이며, 그 과정에서 무엇을 느꼈나요?

12. [대학·대학원 진학(졸업)자] 대학을 휴학하거나 중퇴한 경험이 있다면, 그 이유는 무엇이었나요?

13. [대학·대학원 진학(졸업)자] 졸업을 유예한 경험이 있다면, 그 배경과 이유는 무엇이었나요?

- 취업 준비, 불확실한 진로, 경제적 어려움, 사회적 압박감 등

14. [대학·대학원 진학(졸업)자] 대학원에 진학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 학문적 흥미, 전문직 목표, 취업의 어려움 회피, 주변(부모, 친구 등)의 권유 등

15. [대학·대학원 진학(졸업)자] 대학원 진학을 포기했다면,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친 요인은 무엇이었습니까?

- 취업 준비, 불확실한 진로, 등록금 부담, 주변(부모, 친구 등)의 권유, (원하는 대학원으로) 진학 실패, 사회적 인식 등

Ⅲ. 교육기대 이행 과정에 대한 자기 성찰 및 정책 제언

16. [공통] 지금 돌아보았을 때, 진학(또는 취업)과 관련하여 가장 잘한 결정과 가장 후회되는 결정은 각각 무엇인가요?

- 왜 그렇게 느끼는지, 이후 삶에 미친 영향은?

- 만약 그 시점으로 돌아간다면, 당시 결정을 어떻게 바꾸고 싶나요?

17. [대학·대학원 진학(졸업)자] 교육과 진로를 둘러싼 자신의 경험을 통해, 현재 고3 학생들을 위한 교육정책 또는 진로(진학·취업) 지원시스템에서 국가나 학교 차원에서 보완되어야 할 점이 있다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 대학 또는 고교 시절 경험 중 불편했던 점이나 개선되었으면 하는 점은?

18. [대학·대학원 진학(졸업)자] 대학 진학을 증가, 장기 휴학, 졸업 유예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효과적인 정책적 방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19. [대학·대학원 진학(졸업)자] 국가경쟁력 확보 차원에서 대학원 진학률을 높이기 위한 방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20. [공통] 진학(또는 취업) 과정에서 본인의 어떤 특성(예: 협동심, 창의성, 끈기 등)이 도움이 되었거나 장애가 되었나요?

※ 용어 설명			
항목	정의	교육기대와의 관련성	성인기 이행 과정에서 역할
협동심	팀워크, 공동 목표 추구	사회적 네트워크, 대인관계 적응	사회적 네트워크, 대인관계 적응
창의성	독창적 사고, 문제해결	진로 탐색 다양화, 자기주도적 진학 결정	유연한 전공/진로 전환 역량
끈기	장기 목표에 대한 집착과 노력	재수, 실패 극복, 목표 유지	진로 유지, 역경 극복, 성취

- 마무리
- [공통] 오늘 이야기하면서 놓친 부분이나 더 말씀하고 싶은 것을 요청함
- [공통] 면담 협조에 대한 감사 인사를 전하고 정리함

이 연구는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 2010(KCYPS 2010)」 중1패널 자료를 활용하여 청년의 성인기 이행과정에서 나타나는 주요 변화와 그 원인을 실증적으로 규명하고,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연구에서는 고3 시기의 교육기대와 실제 이행, 학교-일자리 전환, 초기 성인기의 핵심 역할 전환(졸업·취업·분가)이 청년의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검토하였다. 다항로짓분석, 시퀀스분석, 패널회귀모형을 적용하고, 21명 심층면담을 통해 제도·문화적 요인을 보완적으로 탐색하였다.

분석 결과, 교육기대는 학업성취도와 학교유형, 진로정체감에 따라 달랐으며, 절반 이상은 기대한 경로를 실현하지 못하였다. 진로결정은 개인의 선택보다 학교 풍토·가족기대·지역 환경 등 구조적 요인에 크게 영향을 받았다. 학교-일자리 이행은 ‘대졸-재직형’, ‘조기 재직형’, ‘학업 지속 후 중단형’, ‘전문대 일-쉬 반복형’으로 구분되었고, 초기 성인기 취업은 삶의 만족도를 높였으나, 분가 효과는 성별에 따라 달랐다.

이러한 결과는 청년의 사회이행이 구조적 제약 속에서 이루어지는 복합적 과정임을 보여주며, 진로지원과 주거·고용 안정 정책의 통합적 접근 필요성을 시사한다.

ABSTRACT

This study aims to empirically examine the major transitions experienced by young people in the process of entering adulthood, using data from the Korea Children and Youth Panel Survey 2010 (KCYPS 2010), first-grade middle school cohort. The purpose is to identify key determinants shaping these transitions and to draw policy implications for supporting stable youth pathways.

Specifically, the study investigates how educational expectations and actual attainments at the end of high school, school-to-work transitions, and key early-adulthood role changes—such as graduation, employment, and residential independence—affect young people’s life satisfaction. Multinomial logit models, sequence analysis, and panel regression models were applied, complemented by in-depth interviews with 21 participants to explore institutional and cultural factors underlying these processes.

The results indicate that educational expectations varied by academic achievement, school type, and career identity, yet more than half of respondents failed to realize their intended educational or occupational pathways. Career decisions were found to be shaped less by individual choice than by structural factors such as school climate, parental expectations, and regional context. Four major types

of school-to-work trajectories were identified—“college-to-employment,” “early employment,” “extended study with interruption,” and “vocational work-pause cycles.” Employment in early adulthood was positively associated with life satisfaction, while the effect of residential independence differed by gender.

These findings highlight that youth transitions to adulthood are complex processes shaped by structural constraints rather than purely individual choices. The study underscores the need for integrated policy approaches that strengthen career guidance, housing stability, and employment security for young people.

2025년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발간자료 목록

기관고유과제

- 연구보고25-기본01 학교 밖 청소년 진로지원을 위한 다체계 연계 지원방안 연구: 진로 위기 청소년을 중심으로 / 김성은·김희진·조혜영·김현수
- 연구보고25-기본02 20대 초반, 후기청소년은 왜 금융이해력이 낮은가? : 후기청소년 금융이해력 증진 방안 연구 / 김지경·송현주·송원일
- 연구보고25-기본03 학교와 지역사회 연계 청소년활동 활성화 방안 연구 : 2022 개정 교육과정 중심으로 / 강경균·오해섭·최홍일·성은모
- 연구보고25-기본04 수요자 중심 평가모형을 활용한 청년정책 진단 연구 / 김형주·장근영
- 연구보고25-기본05 아동·청소년·청년정책 전달체계 개선 방안연구 / 성윤숙·문호영·손병덕
- 연구보고25-기본06 가족돌봄 청소년 실태 및 지원방안 연구 / 황여정·정은주
- 연구보고25-기본07 지역사회 청소년 참여 활성화를 위한 지원방안 연구 / 김정숙·연보라·전현정·김나영
- 연구보고25-기본08 시설거주 청소년 교육기회 확대 방안 연구 / 김승경·백혜정
- 연구보고25-일반01 2025 아동·청소년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 이행 연구 - 한국 아동·청소년 인권실태 / 유민상·이경상·서고운·유성렬·유설희
- 연구보고25-일반01-01 2025 아동·청소년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 이행 연구 - 한국 아동·청소년 인권실태: 기초분석보고서 / 유민상·이경상·서고운
- 연구보고25-일반02 청년의 성인기 이행경로 연구 I : 총괄보고서 / 김기현·김윤희·이용해
- 연구보고25-일반02-01 청년의 성인기 이행경로 연구 I : 심층분석보고서 / 김기현·김윤희·권경만·오병돈·유현주
- 연구보고25-일반03 이주배경청년 사회통합방안연구 I / 양계민·서정아·권오영·변수정·장윤선
- 연구보고25-일반06 2025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 : 사업보고서 / 하형석·황진구·최인재·한지형
- 연구보고25-일반06-01 2025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 : 데이터분석보고서 / 최인재·노언경·정승
- 연구보고25-일반07 2025 다문화청소년 종단연구 / 신동훈·이지연·이정민·장한소리
- 연구보고25-일반07-01 2025 다문화청소년 종단연구: 기초분석보고서(1기 패널) / 신동훈·이지연·이정민
- 연구보고25-일반07-02 2025 다문화청소년 종단연구: 기초분석보고서(2기 패널) / 신동훈·이지연·이정민

협동연구과제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25-36-01
(자체번호 연구보고25-일반04)

청년 친화적인 지역인재양성 및 일자리 창출 방안 II
/ 최용환·임지연·좌동훈·박윤수·이동성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25-37-01
(자체번호 연구보고25-일반05)

사회환경 변화에 따른 청소년보호정책 개선방안
연구 II : 위기청소년의 마약류 사용 실태
/ 배상률·김영지·모상현·김남희·조제성·김다은·
홍서아

수 시 과 제

연구보고25-수시01 청소년상담사 자격제도 현황 및 체계화 방안 연구 / 좌동훈·남화성

연구보고25-수시02 이주배경청소년 역량강화방안연구: 청소년활동프로그램을 중심으로 /
양계민·권오영·안지현

연구보고25-수시03 안전하고 교육적인 현장체험학습 운영·지원을 위한 법적 제도화 방안 연구 /
권오영·남화성

연구보고25-수시04 청소년의 방과후활동수요 및 방과후아카데미 발전 방안 연구 / 장근영

연구개발적립금 과제

연구보고25-연적금01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사업 개선방안 연구 / 김승경·백해정·김경준

연구보고25-연적금02 전 세계 청년정책 현황 분석 연구 / 김기현·유민상·신동훈·한지형

연구보고25-연적금03 지역 청년고용정책에 대한 효과성 분석과 전략수립 연구
/ 최용환·임지연·좌동훈

연구보고25-연적금04 청소년 유해약물 사용 실태 및 정책방안 연구 / 배상률·김영지·모상현

수탁과제

〈 일 반 〉

연구보고25-수탁01	2024 인성교육프로그램 발굴·확산 사업 결과보고서 / 최용환·이창호·임지영
연구보고25-수탁02	2025 학교폭력 피해학생 치유·회복 지원 가이드라인 (2종) / 최정원
연구보고25-수탁03	학교폭력 피해학생 치유·회복 프로그램 (초등학생용 2종) / 최정원
연구보고25-수탁04	2024년 1차 학교폭력 실태(전수)조사 분석보고서 / 성윤숙·이창호
연구보고25-수탁04-01	2024년 1차 학교폭력 실태(전수)조사 통계자료집 / 성윤숙·이창호
연구보고25-수탁05	2024년 2차 학교폭력 실태(표본)조사 분석보고서 / 성윤숙·이창호
연구보고25-수탁05-01	2024년 2차 학교폭력 실태(표본)조사 통계자료집 / 성윤숙·이창호·
연구보고25-수탁06	2024년 학교폭력 실태조사 사업 결과보고서 / 성윤숙·이창호
연구보고25-수탁07	2024년 학교폭력 실태조사 심층분석 및 개선방안 연구 / 성윤숙
연구보고25-수탁08	2025년 제2기 학생 인성 함양 리더십세삭 캠프 운영보고서 / 성윤숙
연구보고25-수탁09	지방청소년활동진흥센터 청소년활동사업 성과관리 진단 / 임지연·김혁진·문지혜
연구보고25-수탁10	2025년 1차 학교폭력 실태(전수)조사 통계자료집/ 성윤숙·문호영
연구보고25-수탁11	2025년 청소년수련시설 종합평가 / 황진구·김영지·모상현·김경준·이용해·허효주·안지현·진인범·박지영
연구보고25-수탁12	특수교육대상자 인권실태조사 사업보고서 / 서고운
연구보고25-수탁13	2026년 청소년종합실태조사 사전 연구 / 김지경·유준오·송현주·허효주
연구보고25-수탁14	역량기반 인증수련활동 효과 유의성 평가도구 개선 연구 / 송원일·김정숙·최수정
연구보고25-수탁15	제2차 청년정책 기본계획('26~'30) 수립 연구 / 하형석·김기현·유민상·신동훈·성재민·박미선·박병영·변금선·배정희·권향원·김문정·진인범
연구보고25-수탁16	2025년 1차 학교폭력 실태(전수)조사 분석보고서 / 성윤숙·문호영
연구보고25-수탁17	청소년 인문교실 프로그램 개발 및 활성화 방안 연구 / 강경균
연구보고25-수탁17-1	청소년 인문교실 프로그램 학생용 워크북(초등) / 강경균
연구보고25-수탁17-2	청소년 인문교실 프로그램 교사용 매뉴얼(초등) / 강경균
연구보고25-수탁17-3	청소년 인문교실 프로그램 학생용 워크북(중등) / 강경균
연구보고25-수탁17-4	청소년 인문교실 프로그램 교사용 매뉴얼(중등) / 강경균
연구보고25-수탁18	2025 학교 밖 청소년 실태조사 / 김희진·황여정·김성은

< 학교폭력예방교육지원센터 >

- 연구보고25-학폭01 시도별 학교폭력 예방교육 사업 주요 현안 및 정책 분석
/ 안병훈·모상현·김용남·박선영·김영인
- 연구보고25-학폭02 2024년 학교폭력 예방교육 어울림 학생서포터즈단 결과보고서
/ 모상현·백승훈·박재욱
- 연구보고25-학폭03 2024년 학교폭력 예방 프로그램 운영 우수사례집 / 모상현·백승훈·김영인
- 연구보고25-학폭04-01 학교에서 쉽게 활용하는 학교폭력 예방교육 개정 어울림 프로그램으로
일년나기(초등학교 3~4학년) / 모상현·장금연·최미애·최인재·
김영인·박재욱·구찬동·김아라·심현아
- 연구보고25-학폭04-02 학교에서 쉽게 활용하는 학교폭력 예방교육 개정 어울림 프로그램으로
일년나기(초등학교 5~6학년) / 모상현·장금연·최미애·최인재·김영인·
박재욱·구찬동·김아라·심현아
- 연구보고25-학폭04-03 학교에서 쉽게 활용하는 학교폭력 예방교육 개정 어울림 프로그램으로
일년나기(중학교 2~3학년)
/ 모상현·장금연·최미애·최인재·김영인·박재욱·구찬동·김아라·심현아
- 연구보고25-학폭04-04 학교에서 쉽게 활용하는 학교폭력 예방교육 개정 어울림 프로그램으로
일년나기(고등학교 2~3학년)
/ 모상현·장금연·최미애·최인재·김영인·박재욱·구찬동·김아라·심현아
- 연구보고25-학폭05 2024 학부모용 학교폭력 예방교육 소식지 모음집 / 모상현·박재욱·전원지
- 연구보고25-학폭06 2024 학교폭력 예방교육 어울림 프로그램 운영학교 효과성 분석
/ 모상현·이경상·김현수·전원지·문은솔
- 연구보고25-학폭07 제5차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
/ 모상현·김경년·김경애·김봉섭·김소아·김승혜·박주형·차성현
- 연구보고25-학폭08 학교폭력예방 학생 언어습관 자기 진단도구 개발 연구
/ 박창균·조재윤·이정우·최태경
- 연구보고25-학폭09 2025년 학교폭력 예방교육 어울림 학생서포터즈단 운영안내서
/ 모상현·백승훈·김영인·최지윤
- 연구보고25-학폭10 2025 학교폭력 예방교육 컨설팅단 운영 매뉴얼
/ 모상현·최지윤·박재욱·문은솔

< 대안교육기관지원센터 >

- 연구보고25-대안01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안정적 재정지원 방안 : 보통교부금 개선 가능성 검토
/ 남수경
- 연구보고25-대안02 지속가능한 대안교육을 위한 재정지원방안 연구
/ 함승수·이시호·박현정·김희정
- 연구보고25-대안03 2025 대안교육기관 청소년 패널조사
/ 하형석·최인재·전현정·이지숙·신원규

〈위(WEE)프로젝트연구·지원센터〉

- 연구보고25-위센터01 위(Wee) 뉴스레터 / 김영지·김소연·주예찬
- 연구보고25-위센터02 제14회 위(Wee) 희망대상 우수사례집
/ 김영지·김승경·정춘현·김영인·주예찬
- 연구보고25-위센터03 문제행동별 개인상담 개입 지도서(중·고등) / 김영지·김승경·김영인
- 연구보고25-위센터04 2025 위(Wee) 클래스 및 센터 운영 가이드 / 김영지·양하나·정춘현
- 연구보고25-위센터05 2025년도 위(Wee) 프로젝트 연구·지원 사업 운영 결과보고서
/ 김영지·김승경·서고운·전현정·이정민·최홍일·양하나·이수민·
김소연·정춘현·김주영·문세진·김다인·김영인·주예찬·이유진

〈 학업중단예방지원센터 〉

- 연구보고25-학중01 학업중단 예방을 위한 프로그램 꿈지락 활동집 / 김성은·이진아
- 연구보고25-학중02 학업중단 위기학생 실태조사 사전연구
/ 김희진·백혜정·황여정·유성렬·전예빈·정유경
- 연구보고25-학중03 학업중단 위기학생 실태조사 사전연구: 기초분석보고서
/ 김희진·백혜정·황여정·전예빈

자 료 집

< 세 미 나 >

- 세미나25-01 2025년 17개 시·도교육청 인성교육 담당자 1차 협의회 (25.3.27.)
세미나25-02 2025년 인성교육 우수교원 네트워크 발대식(1차 세미나) (25.6.13.)
세미나25-03 2025년 인성교육 우수교원 네트워크 중간보고회 (25.8.12.)

< 워 크 쉘 >

- 워크숍25-01 2025 학업중단 예방 및 대안교실 프로그램(꿈지락) 운영 워크숍 자료집
(25.7.31.-25.8.7.)
워크숍25-02 가정형 위(Wee)센터 워크숍 (25.8.11.)

< 포 럼 >

- 포럼25-01 고립 은둔 청소년 삶 실태 및 정책과제 (25.3.26.)
포럼25-02 이주배경청년 사회통합방안 모색을 위한 전문가 포럼 (25.4.29.)
포럼25-03 청소년의 디지털 시민성 함양을 위한 정책과제 (25.4.29.)
포럼25-04 청년의 엇갈린 삶의 경로_한국과 일본의 성인기 이행 (25.7.28.)
포럼25-05 인구감소시대 이주배경청년의 안정적 정착 및 자립역량강화방안 모색 (25.8.26.)
포럼25-06 정책환경 변화에 따른 지역 청소년시설 추진방향 모색 (25.11.11.)
포럼25-07 디지털 시대의 청소년 보호 정책과제 개발 (25.11.19.)
포럼25-08 디지털 시민으로 성장하는 청소년 AI시대의 책임과 권리 (25.11.27.)
포럼25-09 인구감소지역 청소년 성장지원 사업성과 및 향후과제 (25.12.4.)

< 콜 로 키 움 >

- 콜로키움25-01 선주민과 이민자간 노동시장 성과와 정책과제 (25.4.17.)
콜로키움25-02 이주배경청소년 대상 한국어교육의 현황과 과제 (25.5.13.)
콜로키움25-03 청소년 유해약물 정책 관련 해외사례 (25.8.26.)

〈 기 타 자 료 집 〉

- 자료25-01 2024 대안교육기관 교육 활동 프로그램 우수사례집
- 자료25-02 학교 내 대안교실 운영 매뉴얼 제2판
- 자료25-03 학업중단 숙려제 공통운영기준, 3판
- 자료25-04 '모두의 학교를 위한 학교문화 책임규약' 가이드북
- 자료25-05 2025년 대안교육기관 교직원 연수 제1차 연수 강의자료
- 자료25-06 2025년 대안교육기관 교직원 연수 제2차 연수 강의자료
- 자료25-07 2025년 대안교육기관 교직원 연수 제3차 연수 강의자료
- 자료25-08 지역사회 청소년 참여 활동 가이드북
- 자료25-09 2025년 대안교육기관 패널조사 제1차 설명회
- 자료25-10 2025년 대안교육기관 패널조사 제2차 설명회
- 자료25-11 제14회 한국아동·청소년패널 학술대회
- 자료25-12 2025년 제12회 학업중단 예방 우수사례 공모전 수상작품집
- 자료25-13 2025년 대안교육기관 패널조사 제3차 설명회
- 자료25-14 대안교육기관 등록·운영 가이드라인
- 자료25-15 2025년 대안교육기관 교육·활동 프로그램 우수사례집
- 자료25-16 청소년 부모·한부모 지원 매뉴얼 (2판)

학 술 지

- 한국청소년연구 제36권 1호(통권 116호)
- 한국청소년연구 제36권 2호(통권 117호)
- 한국청소년연구 제36권 3호(통권 118호)
- 한국청소년연구 제36권 4호(통권 119호)

기타 발간물

< NYPI Bluenote 이슈 & 정책 >

- 154호 학업중단 예방을 위한 학교와 지역자원 연계: 학생맞춤통합지원 정책을 중심으로
- 155호 청년 친화적인 지역인재양성 및 일자리 창출의 정책방향
- 156호 OECD 국가의 청년정책 현황 및 시사점
- 157호 청소년은 어떻게 범죄의 길에 빠지게 되는가: 청소년 범죄 경로와 예방 대책
- 158호 청년 온라인 커뮤니티의 현황과 정책적 시사점

< NYPI Bluenote 통계 >

- 86호 사회환경 변화에 따른 청소년보호정책 개선방안 연구 I : 사이버도박
- 87호 청소년 근로 실태 및 권리 보장 현황
- 88호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2024년) 데이터 구축 및 주요 조사 결과
- 89호 청소년활동을 통한 환경 실천 지원방안
- 90호 2024 아동·청소년 인권실태조사 주요 지표 결과

연구보고25-일반02-01

청년의 성인기 이행경로 연구 I : 심층분석보고서

인 쇄 2025년 12월 24일
발 행 2025년 12월 31일

발행처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70
발행인 백 일 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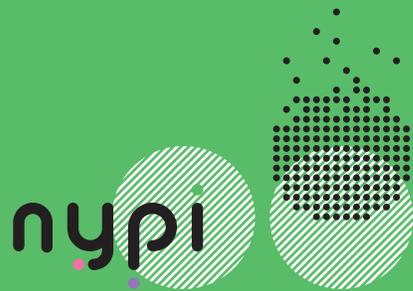
등 록 1993. 10. 23 제 21-500호
인쇄처 사단법인 대한민국공무원공상유공자회 인쇄사업부

사전 승인없이 보고서 내용의 무단 전재·복제를 금함.
구독문의 : (044) 415-2125(지식정보관)

ISBN 979-11-5654-458-6 94330
979-11-5654-456-2 (세트)

연구보고25-일반02-01

청년의 성인기 이행경로 연구: 심층분석보고서



NYPI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National Youth Policy Institute

30147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370 세종국책연구단지
사회정책동(D동)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6/7층
Social Policy Building, Sejong National Research Complex, 370, Sicheong-
daero, Sejong-si, 30147, Korea
Tel. 82-44-415-2114 Fax. 82-44-415-2369



ISBN 979-11-5654-458-6
979-11-5654-456-2 (세트)